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회사가 모르면 모든금리로 내집마련 자동금리로!
교육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처: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월 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현대불교는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과격적으로 1면에 '이렇게 들었다'란을 연다. 그때그때 시사의 초점이 되는 주제를 잡아 그 해답을 경전 조사어록 등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금주에는 새해를 맞아 제 불보살의 서원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서원

만약 내가 중생의 여러 악한 마음을 깨뜨려 줄 수만 있다면, 내가 무간지옥에 늘 있으면서 무량겁에 걸쳐, 중생 때문에 큰 고뇌를 받게 되도 고통으로는 알지 않으리라. (열반경)

나는 온갖 세계를 초월하는 큰서원을 세워 반드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겠다. 그러나 이 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나는 무량겁에 걸쳐 큰 시주가 되어, 여러 가난한 자를 널리 구제치 못하면 등각을 이루지 않으리라.〈무량수경〉

원컨대 중생으로 하여금 늘 편안하고 즐거워 갖가지 병고가 없게 되기를. 악한 짓을 행하고자 하면 그 모두가 이루어지지 않고, 닦는 바 선업은 다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모든 악취의 문을 닫아 결고 인천이 열반으로 이를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게 되기를. 만약 중생들이 여러 악업을 쌓은 탓으로 온갖 극중한 고통을 당할 때에는, 내가 다 대신 받아 줌으로써, 그들이 해탈을 모두 얻어 지상의 깨달음을 완전히 성취하게 되기를…

보살은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널리 온갖 중생을 위해 갖은 고통을 모두 받으면서, 그 헤아릴 길 없는 생사·고통의 바다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겠다. 나는 널리 온갖 중생을 위해, 모든 세계, 모든 악취에서 미래의 무수한 시간이 다하도록 온갖 고통을 받는대도, 항상 중생을 위해 선근을 부지런히 닦겠다. 〈화엄경〉

대지통보살이 비로자나여래를 향해 큰 서원을 일으켰다. "완컨대 제 마음이 허공같이 되며 금강같이 굳어지, 보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퇴전(退轉)함이 없고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과정인 42단를 차례로 닦으오리다. 한편 중생을 널리 구하되, 만약 허공이 다하는 때가 온다면 중생 제도를 그만두려니와, 허공이 다하는 일이 없다면 그 일을 쉬지 아니 하오리다. 〈대승대교왕경〉



나는 보살행을 닦아 전생의 일을 아는 숙명자를 성취하겠다. 온갖 장애를 제거하여, 영구히 없애서 남음이 없게 하겠다. 생사와 여러 마(魔)의 번뇌의 행위로부터 멀리 떠나겠다. 그리하여 해가 허공에 있고 연꽃이 물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아서, 시방을 두루 돌며 중생들을 교화하고 악도의 고통을 없애 주어 보살행을 갖추겠다. 〈문수사리발원경〉

관련기사 3면



◇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새싹불자들을 기르기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새싹불자는 미래불교 주인"

불자학생 해마다 감소…교계 뒤늦게 '비상'

흥미유발 프로 개발을…유아 포교도 나서야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12월19일 오전 10시 우이국민학교 3하년 4반 교실.

"불교신자 손들어 보세요"

담임 선생님 말에 전체학생 45명중 7명이 손을 들었다. 잠시뒤 2명의 학생이 주위를 살피더니 손을 들었다.

"교회에 나가거나 성당 나가는 사람은?"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요"라는 큰 소리와 함께 23명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전체 학생의 반 이상이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인 셈이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어떨까. 15일 충남 성환 동성중학교의 불교신자를 조사한 바로는 1·2·3학년 전체 학생수 3백30명중 불자는 72명. 한 학급 평균 6명인 셈이다. 서울 동덕여고 2학년 13반을 현장에서 조사한 바로는 반 학생 45명중 불자는 3명이었다.

또 최근 3년 서울지역 8개여고 표본조사 결과 불자 학생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본지가 우이국교, 동성중, 동덕여고 등 교육현장에서 조사한 바로는 역시 불자 청소년의 수는 극소수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고 있었다.

〈관련기사 7·8·9면〉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와 관련한 서적을 읽어 본 적이 있는가와 캠프참여도에 대해서도 물었다. 교실은 일시에 혼란스러워졌다. 타종교를 믿는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경험을 무용담처럼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금전 불교를 믿는다고 손을 들었던 학생들은 아무 말없이 주위만 살필 뿐이다.

절에 가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는 물음에 불교를 믿고 있는 학생들조차 무섭다고 말했다. 무시무시하고 커다란 나무인형이 꿈에 나타난다고도 했다. 반면 기독교나 천주교 학생들은 교회나 성당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된다고 대답했다. 이번 현장조사만으로도 불교가 얼마나 포교에 등한시해 왔고, 불교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해 5월 교육개혁위의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천주교의 경우 가톨릭계 학교장 연수를 통한 교육개혁안에 대한 집중연구와 공동대책을 모색하는등 발빠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개신교도 각 교단별 청소년 단체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기독교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 각 교회별로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불교의 경우 이에 대한 몇몇 개인적 노력 외에는 실질적인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조계종이 올해를 '불교 청소년의 해'로 정하고 구랍 9일 불교청소년 지도자대회를 여는등 청소년 포교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달 안으로 15개 시·도 단위 지부와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2월중 전국규모의 청소년 단체를 발족시키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또한 단발적인 행사나,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청소년 포교에 대한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왜 사찰과 멀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불교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대응책을 찾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련원 확보등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사찰 불교학생회를 비롯 각급학교 불교 학생반 운영등을 통해 불자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 불교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소리이다. 〈한명우 · 도필선 기자〉

"나의 복됨보다 남의 불행 살피자"

월하종정 신년법어



◇ 월하스님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반보를 양보하는 미덕으로 나의 복됨보다는 남의 불행한 바를 먼저 생각하는 자비로움이 가득한 세상, 삼만한 세상을 가꾸어 나갑에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구랍 27일 송연호 19면 참조〉

"북한수재민 도웁시다"

종교지도자 33명 성명

원주 조계종 총무원장등 불교, 개신교, 가톨릭을 비롯한 각 종교 지도자 33명은 구랍 22일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복지정책과 북한 수재민을 도울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 이념과 체제를 초월 범종교, 범국민적인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결처질 수 있기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신정연휴 관계로 10일字 휴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현대불교 임직원 일동

신년 특집 24면 발행

願, 왜 세워야 하나 3면
각 종단 총무원장 새해 포부 4면
'새싹 불자를 키우자' 7·8·9면
새아침 지상법석—인허스님 11면
문화포교 활로 찾는다 16면
미래사회와 불교문학 17면
애틀랜타 향하는 불자선수 19면
'부끄러운 불교인' 달라지자 20면
108배와 건강 임상실험 21면
쥐띠불자 집배원 박종관씨 23면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12·13면



신 년 사

새싹불자를 키우자

불기 2540년 새해를 맞는다. 산중에 달력이 없는 바를 내세우는 마당에 굳이 새해가 있을까보냐.

또한 그 시작과 끝이 없는 세세생생의 연면(連綿) 가운데 그 어디메에 묵은 해가 있고 새해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세상의 일이란 그 일들의 매듭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한 마디 매듭이 이루어져야 다음 매듭을 향하여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고대인들이 천문(天文)을 깨달아 달력을 만든 것도 시간에 대한 창조적 인식 때문이었으리라.

그 덕택에 오늘의 우리에게도 역사를 구분하는 일을 크게 평가하거니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일에 하나의 정진을 새로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럴진대 새해를 맞는 우리로서는 어떤 일을 발원해야 마땅하겠는가. 이땅에 불법이 건너온 이래 1천6백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런 가운데 신라의 화랑불교야말로 한국불교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10대 혹은 20대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젊은 불교, 싱싱한 불교, 푸른 불교 그리고 정열의 불교를 지향함으로써 원숙한 불법의 경지가 자칫 늙은 불교로 정체되는 것을 혁신적으로 극복하는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화랑불교가 통일신라이래 그 힘을 잃은 뒤로는 그만한 젊음의 아름다운 정진이나 신행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뜻있는 불교지도자들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불법을 만나게 해야 한다, 젊은이에게 베풀어지지 않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라는 제언들을 외쳤던 것이다.

과연 원시불교 교단의 구성은 고령의 제자도 있었거니와 많은 청소년 제자들을 받아들여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의 천재적 감수성을 궐치는 일을 가능케 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과의 치열한 대화를 한 수보리나 그밖의 수많은 초기 청년출가자들이야말로 오늘에 이르도록 불교의 근원적인 생명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을 갖춘 우리 불교이거니와 그 부정적 측면에는 불교가 너무 늙었다는 비판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어느 학설에는 기독교는 열정의 종교이고 불교는 체념의 종교라는 어이없는 주장도 있는 것을 기억한다.

이런 처지에서 조계종이 새해를 '불교청소년의 해'로 지정한 것은 때늦은 느낌과 함께 매우 절실한 과제를 내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한 종가(宗家)의 그것만이 아니다. 무릇 불교계의 어느 곳에서도 이 사업은 실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불교적 정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는데서 불교와의 동질성을 시작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이 정서의 주체는 어머니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과 불보살의 자비를 일치시키면서 그 사랑은 철저히 기성세대의 것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미덕의 그늘에는 불교가 어린이나 젊은이를 독립된 대상으로 만나지 않는 것도 지적된다.

과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는 노인 및 기성세대의 기복신앙이나 장례의식이 아니면 매우 개인주의적 수행으로 지탱되고 있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를 낳는다. 그래서 '산중불교에서 사회불교로!' 라는 명제는 조선조의 억불정책으로 인한 비사회성을 극복하자는 것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린이불교와 중고등학생불교운동을 펼친 몇몇 원로 및 중진스님을 기억하고 있거니와 이제는 조계종이든 태고종이든 천태종이든 어느 종이든 당면과제로서의 새싹불자키우기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종교의 청소년 전도의 폭발적인 확대에 견주면 거의 보잘것 없는 우리 불교계 새싹불자의 궁핍이 드러난다.

이제까지는 '보살신앙'으로 유지된 불교라 하더라도 장차의 새로운 첨단문명사회에서의 불교적 영향력을 이끌어갈 새싹불자 없이는 더이상 불교가 형해화(形骸化)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바야흐로 서구사상의 2분법이나 유일신론의 종교가 21세기의 새로운 전망에서 그 역할에 깊은 회의를 낳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힘찬 자기혁신으로서의 미래불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도 올 한 해만을 '불교청소년의 해' 운운의 전시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새해야말로 '새싹불자'를 하나하나 키워냄으로써 내일의 불교를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는 그 희망의 실천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 아기부처를 목욕시키는 공양은 그날만의 일이 아니다.

각 종단 종정스님 신년법어

태고종 보성스님



한마음 깨끗하면 세계가 깨끗

사람 마음에 따라 세계가 달라집니다. 사람 마음이 착하고 바르면 사회는 밝고 아름다워집니다. 사람 마음이 착하지 못하고 악해지면 세상도 어둡고 사나워집니다. 한 마음이 깨끗하면 온 세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하여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과 죄업들은 진정으로 참회하고 또한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등을 밀던 손을 화해의 손길로 바꾸고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걸던 발을 화합의 길로 들여놓아 다같이 안락하고 다같이 발전할 수 있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도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독사는 독을 뿜습니다. 같은 땅에 같은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눈 낮은 태도를 버리고 남과 이웃을 위해 자비를 베풀고 그 이익을 생각하는 눈 높은 이타생활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천태종 도용스님



도덕적 생활하면 절로 불국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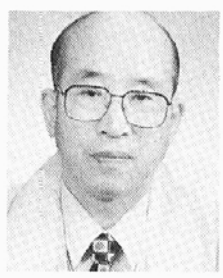
새해에는 도덕의 세상이 펼쳐지는 자비와 사랑의 한 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고 자비를 행하는 사회와 국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맡은바 처해 있는 곳에서 다같이 노력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사회와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들이 남을 지도하고 사회와 인류를 구제하는 마음을 내기에 앞서, 자기 스스로 도덕적 생활을 실천할 때 저절로 이나라는 불국토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청정한 사람들이 평화와 안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적극 참여하여 병들어 아파하는 이 나라에 도덕이 뿌리를 내리는 건전한 새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전한 도덕과 자비행의 실천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고조하며 희망찬 병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조국의 통일 성취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진각종 각해대종사



자기개혁으로 안팎을 비추자

법신불의 광명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중생들의 심성에 각해심인(覺海心印)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진각대도는 각해심인의 큰 가르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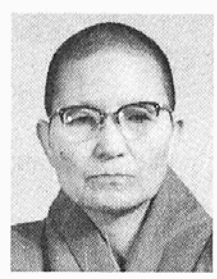
심인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주인공이며 만법의 중심입니다. 나의 영롱한 본체입니다.

법계는 심인의 신비로운 조화입니다. 심인은 안을 밝히고 밖을 비추줍니다. 심인의 큰 바다는 사바의 고통을 녹여줍니다. 심인의 세계는 진실합니다.

종교인은 종교인이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은 경제인이 되고 교육자는 교육자가 됩시다. 종교인은 종교인의 행을 하고 종교인의 말을 하고 종교인의 마음을 가집시다.

새해에는 심인을 살려 이웃과 함께 사는 만다라 정토 속에 살아갑시다. 자신을 참회하고 자기를 잘 써서 이웃에게 베풀어 줍시다. 사회정의도 민족의 통일도 심인을 살리는 자기 개혁의 행동화에 있습니다. 진각대도(眞覺大道)의 성취는 지금 여기 심인을 밝히는 사람에게 나투어 있습니다.

보문종 혜안스님



"참 나를 깨닫자" 다짐을 새롭게

우리는 새로운 빛을 받으면서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의식개혁과 정신혁명을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그대로의 의식과 어제 그대로의 정신을 지닌채 새 아침의 찬란한 광명을 바라다본다면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의 새 아침에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느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은 채 그날 그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의식개혁과 정신혁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해 아침에 마음속에 새로운 목적을 새겨넣어야 합니다. 나도 역시 탐진치를 버리고 법신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참나로 전환되지 않으면 의미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직 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새해 아침에 목적을 세웁시다. '참나를 깨달아 참다운 삶을 살자'는 다짐을 굳게 해봅시다.

관음종 대천스님



歲戴丙子 運亨通 如是觀音加護力
國泰民安 樂萬邦 子自累甲除萬厄

진실한 믿음있을 때 복된 세상

우리의 인생은 인연업생으로 자고가는 숙객(宿客)에 지나지 않지만 깨달음의 서원을 가지고 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년들어 해마다 국가에 여러가지 재앙이 발생해 국민들이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일찍이 불교 인과법에 비추어보면 성실히 준비하지 않은 것의 결과이며 업보라 하겠습니다. 종교의 위덕(威德)은 믿음이 진실했느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법이 천하에 존재하며 발전과 영광의 역사를 가질 수 있음은 부처님 정법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진실한 신앙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사회는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복된 믿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병자영신(丙子迎新)에는 국민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인정이 넘치는 태평한 세상을 만듭시다.

총지종 록정대종사



수행의 길은 일상 속에 있나니

사람은 누구나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나 우치한 중생은 무명과 탐진치에 사로잡혀 악업만을 태산처럼 쌓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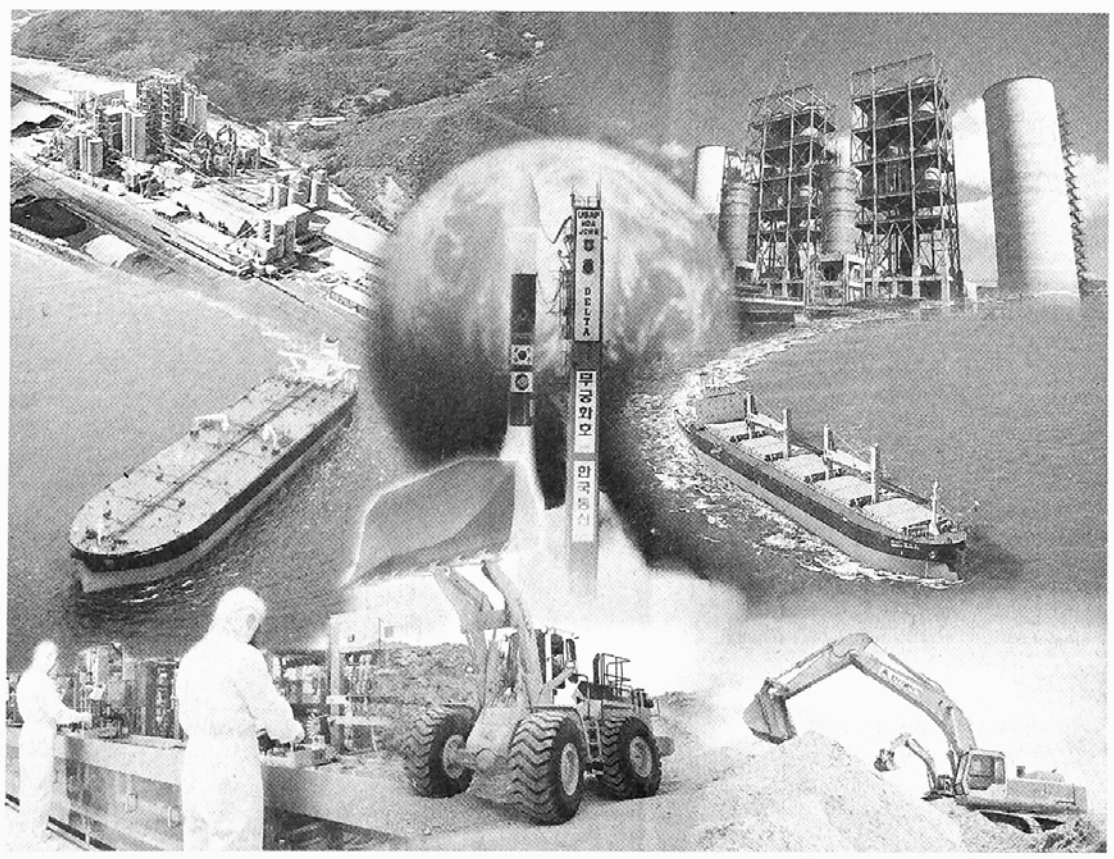
오늘날 이 사회가 물질만능과 인간성 상실의 아수라장으로 변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가 바르지 못하고 자비스럽지 못한데 있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정토를 얻고자 하면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할 것이니 그 마음의 청정함에 따라 불토가 청정할 것이다. 세상을 구하고 다스리는 길은 바른 마음이 근본이 된다"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모든 현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른 마음, 수행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일상속에 있는 것이니 오직 부처님의 정법을 통하여 지심으로 참회하고 보살정신의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있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정신, 그것이 바로 보살의 정신이며 수행의 자세입니다. 보살도를 실천함에 절로 우리 주변은 밝고 아름다워질 것이며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HALLA 자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 라

謹賀新年



信賴와 創造의 企業, 漢拏

지난 한해 보내주신 聲援에 感謝드리며 여러분이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祈願합니다.

여러분의 漢拏는 올해에도 重工業, 自動車部品, 建設, 시멘트, 貿易, 海運, 創業支援投資, 情報通信, 펄프 및 製紙, 環境事業 등 여러 分野에서 더욱 信賴받는 企業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漢拏의 ULTIMATE GOAL(窮極目標)은 最善의 品質과 最善의 生産性, 最善의 競爭力을 바탕으로 하는 堅固한 基盤위에 나름대로의 企業文化와 企業道義를 創設하고 이러한 基盤위에 企業의 無限한 繁榮을 追求하면서 國家社會에 나름대로의 責務를 다하는 것입니다.

漢拏는 任職員들의 訓練에도 力點을 두어 오늘날 民主社會에 가장 正直하고, 勇敢하고, 열린 意識을 지니고, 責任질 줄 아는 가장 훌륭한 市民을 育成하고 있습니다.

HALLA 漢拏 〈信賴와 創造〉

한라중공업 • 만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조 • 한라자원 • 한라해운 • 한라콘크리트 • 한라창업투자 • 캄코 • 마이스터 • 한라마이티정보통신 • 한라펄프제지 • 한라일렉트로닉스 • 한라환경산업 • 배달학원

"이렇게 살겠다" 삶의 목표 다지기

願

왜 세워야 하는가



강 건 기
〈전북대 철학과 교수〉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생을 보람있게 가꾸려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질문이다. 바로 이런 진지한 질문을 통해 우리들의 삶은 훨씬 우리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통해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는 확고한 삶의 목표와 방향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굳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실천궁행해 가는 삶은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삶일까.

진리를 향해 사는 일

원(願)이란 다름아닌 삶의 굳건한 방향과 목표이다. 따라서 원을 세우는 일은 삶의 굳건한 방향과 목표의 건립이다. 즉 '세상이 무너져도 이것만은' 하는 삶의 기둥을 건립하는 일이 원을 세우는 일이다.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 원을 세우는 일은 아주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불교의 신행이야말로 진리를 향해 사는 일이며 가장 인간답게 사는 일이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와 방향의 정립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불교는 가장 인간답게 살려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보살은 '각성된 사람'을 가리킨다. 즉,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확고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쉼없는 정진을 해가는 사람이다.

보살이 세우는 삶의 목표를 원이라 하며 그 내용은 진리를 향해 살겠으며 일체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 이롭게 하겠다는 서원을 담고 있다. 모든 보살의 원을 총괄하는 사홍서원(四弘誓願)과 보현보살의 열가지 원, 법장비구의 마흔여덟가지 원 등이 이를 잘 가리킨다.

아무튼 원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존재의 원천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발심(發心)이요 그런 발심이 된 '각성된' 사람을 불교는 보살이라고 한다. 따라서 원의 확립이 야말로 보살의 기준이며 신행의 원동력이요 추진력이다.

청정하게 순화된 삶

굳건한 삶의 목표가 원으로 확립된 삶은 어떠할까? 첫째로 그런 삶은 새롭고 큰 삶이다. 지금까지의 일상성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새롭고, 큰 목표를 향하기 때문에 큰 삶이다. 예컨대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가는 사람들도 어떤 자세,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과 크기는 달라진다. 한 사람은 별다른 생각없이 공부에 임할 때 그는 그저 하루하루 눈 앞에 닥친 공부를 해갈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공부를 통해 인류에 한번 공헌해야겠다' 한다면 그는 평생을 걸고 진력해 갈 것이다. 앞의 사람이 하루살이식 공부라면 뒤의 사람은 생을 건 공부이다. 그는 그만큼 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원이 확립된 삶은 창조적인 삶이다. 원은 나에 대한 반성을 통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바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생각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 따라서 생의 순간순간, 하는 일 모두가 그 원을 향한 정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삶은 가장 창조적인 삶이다. 원이 꼭 성취되는 것도 그 창조성의 결과이다.

셋째, 원의 확립은 우리들 삶을 순화시키고 청정하게 한다. 바른 삶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삶이 으젓잖은 생각이나 일에 끄달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중생은 욕심으로 살고(欲生) 보살은 원으로 산다(願生)'고 하였다.

끝으로 원으로 사는 삶은 불퇴전의 용기와 힘이 살아 움직인다. 목표와 방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오직 한 생각(一念)으로 오롯하기 때문에 힘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불퇴전의 용기와 힘은 원을 이루는 원동력이요 해탈의 언덕에 이르는 추진력이다.

삶의 굳건한 목표와 방향을 세우는 일, 그것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삶을 보람되게 가꾸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자리이타 원동력…"창조적 일상위해 필요"
불퇴전의 실천행이 '보살의 길'로 이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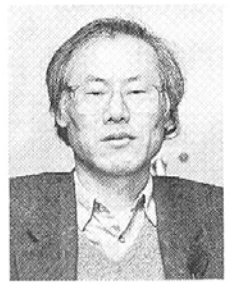
현대만평

박구원



丙子年! 어두운곳에 행운이…

새아침 칼럼



강 정 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다운 역사 만들자

새해의 밝은 아침을 맞아 지난 해를 반추하면서 새 설계도를 그려보는 기쁨에 젖어 본다.

지난해 우리는 해방과 분단의 50돌을 맞았다. 해방의 기쁨에 흠뻑 취하기도 전에 분단의 아픔을 처절하게 겪어야 했던 우리들이었다. 이러한 아픔을 영구히 치유할 통일을 위하여 지난 해는 통일원년으로 거듭 나야 했지만 여전히 남북관계는 빙하시대에 머물러 있다. 성수대교 참사에 이어 삼풍백화점의 참사는 우리들 가슴속에 만연된 거품 자만심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는 학원 폭력과 같은 붉은 신호가 급박함을 알리고 있다. 고속도로에만 눈이 멀어 성장제일주의로 질주했던 우리들에게 급격한 제동이 걸렸던 한 해였다.

과거청산 필연적 진통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푸른 신호도 들어와 있다. 문민정부에 역사적 과제로 부하되었던 군사반란과 내란이라는 치욕과 비극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은 특별법제정을 통하여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노태우 부정축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다. 정경유착, 뇌물공여, 노동자탄압 일변도 등 봉건시대 경영으로 비대해진 재벌들이 사회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노조도 사상 처음으로 출범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화시대를 맞았다.

숨가쁘게 돌아간 역동적인 한 해였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과거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자동차 시동을 이제 막 걸은 한 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득히 펼쳐질 고속도로에 진입하기에는 거쳐야 할 자갈길이 너무나 긴 과도기이다.

병자년 새해의 과업은 바로 이 자갈길을 파헤쳐 저 멀리 뻗어간 고속도로에 우리 사회를 올려놓는 기초 작업을 쌓는 일일 것이다. 이 일, 곧 과도기적 과업에 대해 몇가지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켜진 붉은 신호를 푸른 신호로 바꾸는 일, 곧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것을 창설하는데는 필연적으로 진통이 따른다. 일시적인 소동도, 불안함도, 경기후퇴도, 고통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의 소쩍새의 피울음이고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한 산모의 마지막 산고이다.

우리는 정경유착의 청산, 부정부패 추방, 건설비리 근절, 5공청산 등과 같은 국화꽃과 옥동자를 위하여 일시적인 고통과 아픔을 무정부성으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위한 진통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하는 용기와 유연성이 과도기에 처한 우리 사회에 긴요하다.

둘째, 5·18 역사청산은 이제 막 시작이다. 특별법제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8·15 해방이후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청산작업이 반민법의 와해로 무산된 이후 우리 현대사는 역사청산을 통한 민족정기 수립이 지속적으로 좌절되었다. 이번 5·18 역사청산은 민족사에 민족정기 수립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완벽한 역사청산은 진상규명,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 국보위 등에서 제정한 위헌적 법률 및 제도 폐기, 5·18 민주·민중항쟁 정신계승 등이다. 마지막 단계에까지 우리 모두는 역사청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군부독재세력의 면죄부, 당리당략적 타협 등으로 '역사 바로세우기'는 실종되고 말 것이다.

셋째, 당면 민족사적 핵심과제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우리 조국을 우리 손으로 통일하는 통일기반 조성이다. 이 통일기반이란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들일랑 작게 처리하는 예지를 가져야 한다. 조그마한 쌀문제 때문에 남북관계를 서로 얼어붙게 하는 행위는 결코 통이 큰 사업작품이 아니고 전략적 사고도 아니다. 빈대때문에 초가삼칸을 불태워 버리는 어리석음을 정부나 국민들 모두 저질러서는 안된다.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큰 일을 자키면서 빈대를 잡는 방식으로 통일문제나 남북한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통일 한반도 비전 제시

넷째, 민주주의는 언제나 여러 세력간의 힘의 균형하에서 성취된다. 1공화국하에서는 이승만 개인을 중심으로 한 자유당세력이 야당에 비해 너무 비대했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부독재하에서는 군부가 무소불위였기 때문에 민주화가 사장되었다. 민주주의가 정착화되기 위하여는 여당과 야당, 자본가와 노동자, 중앙과 지방, 국가와 시민사회, 대통령과 대법원장, 행정부와 국회, 학교당국과 학생들 사이에 힘의 균형이 취해져야 한다.

다섯째, 세계화는 미국이나 일본이 하는 짓을 따라하는 것, 즉 모방이 아니다. 우리의 독특한 것을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그들의 것과 함께 겨루면서 서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서양의 오페라와 우리의 관소리가 다같이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오르면서 미국 뉴욕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은 식민주의이지 결코 세계화는 아니다.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우리화'부터 먼저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으로 새해를 일구면서 병자년을 알찬 과도기로 역사에 장식할 것을 기약하고 손에 손잡고 힘차게 역사진군에 앞장설 것을 제안한다.

신행 이끄는 불·보살의 원

불교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를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자신의 깨달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중생들까지도 깨달음을 이끄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깨달음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서원(誓願)이라고 한다. 서원은 종교인으로서의 약속이며 의지의 표명이다. 그래서 서원에는 불교정신의 적극성과 능동성 그리고 실천성이 극명하게 담겨있다.

대승불교에는 많은 서원이 전해지는데 모든 보살들에게 공통되는 서원이 사홍서원(四弘誓願)이다. 총괄적인 서원이라는 뜻에서 총원(總願)이라고 한다.

또한 관음보살, 지장보살 등 여러 보살들이 나름의 서원을 밝히고 있다. 사홍서원이 총원이라면 별원(別願)이라고 한다. 널리 알려진 별원에는 △보현보살의 10대서원 △약사여래의 12원 △아미타여래의 48원이 있다.

사홍서원 공식적인 불교의식에서 반드시 사용되고 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보현보살 10대서원 실행과 의지의 보현보살은 〈화엄경〉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있다.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려면 열가지 큰 행원을 닦으라고 강조한다.

약사여래 12원 동방세계에 불국토를 건설해 유리광국이라 하고 그 교주가 된 약사여래는 12가지의 큰 원을 세워 일체중생의 질병을 치료하며, 다시 무병의 고질적인 병까지도 치료하겠다고 서원한다.

아미타여래 48원 〈무량수경〉에는 아미타불의 본생인 법장비구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중생구제를 원한다. 오랜 수행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아미타불이 되어 서방의 극락세계에 머물고 있다. 48원중 제18원이 특히 유명하다. 그 내용은 아미타불 자신을 믿는 사람을 극락세계로 이끌겠으며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했다.

사홍서원 모든 보살 공통되는 4가지 총원
보현10대서원 부처님 공덕 이루는 10가지 행원
약사여래12원 일체중생의 질병치료 무병 기원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大韓佛教 曹溪宗

宗正 尹月下

元老會議
議長 金慧菴
副議長 金僧讚
副議長 金圓潭
事務處長 朴惺法

總務院
院長 宋月珠
總務部長 申法陀
總務局長 姜性慧
企劃室長 許玄應
企劃局長 韓正彬
監査局長 金法眞

財務部長 朴元愚
財務局長 李宗三
文化社會部長 金時玄
文化局長 車德信
社會局長 申圓昭
事業部長 李雪松
事業局長 柳石泉
護法部長 鄭慧昌
護法局長 朴正念
調査局長 曺弘冠
常任監察 金圓空
護法課長 金曉林
調査課長 朴雲光

司書室長 朴平常
司書次長 鄭智玄
首席司書 具玄中

中央宗會
議長 田雪靖
副議長 黃日面
副議長 李靑和
事務處長 成和梵

護戒院
院長 吳杲山
初審護戒委員長 金月棲

教育院
院長 金圓山
教育部長 鄭香寂
佛學研究所長 宋德雲
總務局長 徐正門
教育局長 白慧敏

布教院
院長 李性陀
布敎部長 金圓慧
布敎局長 金聖壽
鍊修局長 沈和庵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 전화 : 02-739-5590

각 종단 총무원장 새해 포부

화합·결속통해 종단도약

조계종 월주스님 개혁종단 출범 첫해인 지난해는 종단의 기본틀 다지기에 주력해 왔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탄한 행정기반을 통해 종단이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할 생각이다. 종단 내외적으로 화합과 결속을 계속 다져 나감과 동시에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재정운용등 종무행정을 펼쳐가겠다.

통일 환경 사회문제위원회를 설치,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며 종단보유 토지의 현황파악 및 이의 합리적 운영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효율적인 성보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및 종단 재무전산화와 생산불교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계획이다.

종도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규정과 원칙에 의한 종무행정을 펼쳐 종단의 개혁완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사회복지 구휼사업 주력

태고종 혜초스님 새해에는 전통종단으로서 위상강화와 기간조직의 혁신에 역점을 두고 종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본종은 대승교화종단의 이념을 제고하고 총무원을 정예화하여 종단기본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 전문 종무기관을 활성화하여 단위 종무행정과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따라서 올해에는 태고사 봉원사를 비롯 2천5백여 종단산하 전국 사찰과 신행단체 등 종단 기간조직을 정비, 강화하는 한편 종무행정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 종단자료와 각종 법령집 등을 편찬 보급할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또 종단 연합의 각종 법회(팔관재, 환경보존법회)를 봉행하여 종단의 응집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 구휼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병자년에는 모든 종도들이 합심노력해 전통종단으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가 되길 서원한다.



◇월주스님 ◇혜초스님 ◇운덕스님
◇락혜정사 ◇홍파스님 ◇대호스님

亞洲 불교국과 교류 강화

천태종 운덕스님 병자년 새해를 맞아 전국의 4부대중 전 종도들에게 불광이 깃들기를 삼보전에 기원한다.

한국불교가 국내·외적으로 볼 때 위상이 낮은 편이다. 한국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은 또한 종단의 위상을 강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 본종은 국제적인 교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일본을 비롯 아시아 모든 불교국가들과의 우호협력과 발전을 도모, 세계평화에 한국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특히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서울의 관문사를 비롯 전국의 각 도시마다 전당불사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이밖에도 본종은 복지, 환경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21세기를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종단으로 발돋움하는 도약토대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진기 50년 기념사업 전개

진각종 락혜정사 새해에는 대일여래의 지혜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고 진언행자의 가정마다 항상 밝은 기운이 감돌아 알찬 보람 영글기를 발원한다.

올해는 진기 50년이 되는 해인만큼 모든 종무행정을 진기 50년 기념사업에 맞추어 추진할 생각이다. 또 모든 종무행정의 기본 지표를 '안을 다독이고 밖을 보살피는 것'에 둘 방침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헌 종법 개정작업을 종단의 미래교화와 다음 세기의 교화비전을 밑받침하는 종합적인 구도로 마련할 것이다.

이밖에도 종단의 숙원사업인 위덕대학교 개교, 대구 진각회관 낙성, 종단의 최대 가람이 될 서울 밀각심인당 건립을 비롯 종무행정의 전산화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종단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집약하여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발판을 마련할 생각이다.

사부대중 교육불사 전념

관음종 홍파스님 현재 한국불교는 전반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종도가 합심해 한국불교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정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출가승려의 교육은 물론 신도교육에 전력할 때 한국불교는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관음종은 올해 사부대중의 의식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할 생각이다.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각 사암 신도단체를 활성화해 현재 제각각인 부분을 불교평신도운동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단에서는 포교활동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포교 지침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 '믿음의 생활신조'를 통해 전국사찰별로 신행운동을 전개하겠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들이 한가지 이상의 서원을 세우고 하루하루 꼭 실천했으면 한다.

종헌·종법 완비 강원설치

대한법화종 대호스님 금년에는 종풍을 진작시켜 도제를 양성하는 기본 틀을 정립해 나갈 생각이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종헌종법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 종단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겠다.

종헌종법이 완료되면 최우선사업으로 교육불사를 추진할 생각이다. 한국불교가 세계적인 불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출가·재가자들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원을 설치, 종단내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도량 조성은 물론 재가자들의 교육을 위해 교양대학도 개설할 것이다.

새해부터는 모든 종도들이 애종의 마음을 갖고 종단의 모든 불사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또 상처받은 중생들을 위해 정진하고 널리 베푸는 공덕과 지성으로 부처님의 큰 뜻을 실천하는 한해로 만들어 불교계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겠다.



이 각 범 신임 청와대 정책수석

"나를 버리고 나라만을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구랍 20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임명, 21일부터 근무에 들어간 이각범교수(서울대 사회학과·본지 논설위원)는 불교인이 아니었으면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토로한다.

합리적이며 개혁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수석은 87년 대선때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 개발을 해왔던 자문교수그룹멤버로 날카로운 논리와 정연한 이론의 사회 비판적인 글을 많이 발표해 왔다. 그것이 청와대와의 인연이 된 것 같다고 덧붙인다.

"나버리고 나라만 생각"

초발심으로 매사 공명정대하게

향후 5~10년 뒤 국민과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발굴하는 장기정책 프로그램을 조정 입안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는 이각범 수석은 "김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개혁에 대한 소신이 강하고 추진력이 있는 만큼 옆에서 잘 도와 나라 바로세우기에 동참하겠다"며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하는 초발심으로 매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우리는선우 · KBS에 각 1천만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구랍 27일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의 난민지원사업등 활동을 종단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1천만원을 전달했다(사진).

한편 월주스님은 이에 앞서 26일에는 KBS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신흥사 차기 주지에 피선

도후스님 이 구랍 26일 신흥사에서 개최된 산중총회에서 차기 신흥사 주지에 만장일치로 추천됐다. 신흥사 현주지 지홍스님은 낙산사 주지로 낙산사 주지 마근스님은 백담사 주지로 내정됐다.

흥륜사 중흥불사 30돌 법회

법륜스님(관음종 흥륜사 주지)은 오는 6일 오후 5시 인천송도 비치호텔에서 흥륜사 중흥불사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외국인 노동자 송년회' 개최

영담스님(부천 석왕사 주지)은 구랍 24일 석왕사에서 네팔, 스리랑카등 7개국 2백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의 집 송년법회'를 개최했다.

봉원사 35대 주지에

대운스님은 구랍 19일 봉원사 산중총회에서 제35세 주지에 선출됐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개최

목산스님(통도사 주지)은 오는 19일까지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을 비롯 법사 29명을 초청, 화엄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총화종 총무원장 취임식

전남정스님은 오는 16일 오후2시 쉐라톤워커힐 본관에서 총화종 제12대 총무원장에 취임한다.

불자 재소자에 수계식

지원스님(삼보사 주지)은 구랍 21일 서울구치소에서 불자 재소자 85명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봉행했다.

소년소녀가장에 쌀·성금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은 구랍 26일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과 이웃들을 위해 쌀 10가마와 30만원을 양재2동 동사무소에 전달했다.

'한국 리얼리즘 문학론' 출판회

장백일교수(국민대 국문과)는 구랍 2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리얼리즘 문학론〉 출판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삼성출판사 사옥 이전

김종규회장(삼성출판사)은 구랍 23일 사옥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2로 이전했다.

대만 암항사서 친선공연

정옥녀씨(청룡사 합창단 지휘자)는 주지 법운스님인 솔아래 구랍 23일~27일 청룡사 합창단과 무용단 총 73명과 함께 대만 대남 암항사에서 95친선공연을 가졌다.

불교잡지 기자회 공로패 받아

송금엽주간(월간 佛敎)은 구랍 28일 불교잡지기자회로부터 불교잡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증정받았다.

스님·협찬사 초청 사은법회

우판수씨(불교TV 부산지사장)는 구랍 29일 제1회 의상예술제 모델로 참가한 혜총스님 정관스님등 20여명의 스님과 원목사외 25개 협찬사를 초청하여 사은법회를 봉행했다.

게시판

▲기초교리반 개설=조계사(주지 현근)는 오는 6일부터 3개월과정 불교기초교리반을 개설한다. 강의는 매주 목·금요일. 수강료 7만원. (02)720-6742

▲성훈따주기 수강생 모집=수효사(주지 무구)는 성훈따주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오는 9일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2시. (02)313-3037

▲신원사 봉암사 순례=부산불교TV는 오는 6~7일 1박2일간 공주 신원사와 문경 봉암사 등을 순례한다. (051)645-5114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당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大韓佛教 三論宗

宗正 釋慧岩

僧正院長 釋正元
總務院長 釋摩定
副院長 李眞空
中央宗會議長 釋竹山
副議長 陸大月
副議長 閔有空
司正院長 釋解聖
副院長 釋普空
布敎院長 池慧峰
敎育院長 金慧空
文化院長 釋解愚
修禪院長 張泰照
事務總長 釋德峙
總務部長 鄭靑降
敎務部長 釋靈岩
糾正部長 釋解昔
社會部長 梁碧岩
財務部長 韓妙德
儀典部長 釋摩雲
弘報部長 趙法雲性
動員部長 金法蓮華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86-18
전화 : 425-0108, 419-5288 / 팩스 : 424-6639

"六行 생활화하는 참 인재 배출"

진각종립 위덕대학교 초대총장 손 제 석 씨



수요 인터뷰

—위덕대학교 초대총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저에게 종단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위덕대의 초대총장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해 먼저 종단의 원로 스승을 비롯 모든 종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계에서 동국대에 이어 두번째 종합대학으로 개교하게 되는 만큼 불교의 근본 이념에 입각한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대학으로 꾸려 나갈 생각입니다.

교계 두번째 종합대학

—오랜동안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으로서 교육발전에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위덕대의 설립배경과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종단은 그동안 서울 진선여중고, 대구 능인중고를 중심으로 불교이념에 입각한 중등교육불사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종단은 회당종조의 뜻을 받들어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신조입니다. 위덕대학교는 이런 점에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이 될 것을 자부합니다. 한마디로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위덕대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학과 증설, 대학원 설치등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분야는 무엇인지요.

약 력

- 31년 경북 포항생
- 56년 서울대 정치과 졸
- 76년 서울대 정치학박사
- 59~82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 73년 남북적십자회담 자문위원
- 80년 국제 정치학회 회장
- 82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 85~87년 문교부장관
- 89~95년 회당학원 이사장

"교육·연구 질 높여 '불교 상아탑' 모범 보일 터"

전자·통신 중점 육성…매년 학과 증설 계획

교육불사를 확대키로 하고 5년전 경주에 약 30여만평의 부지를 매입, 91년 교육부로부터 대학설립 승인계획을 받아 공사를 해 왔습니다.

현재 위덕대는 불교학과를 비롯 인문사회계열 4개 학과, 공학계열 7개 학과 4백여명의 첫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개교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각종이 앞서서 각종 교육불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진각종뿐 아니라 교계 전체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위덕대의 교육이념은 무엇입니까.

▲진리탐구, 인격도야, 이타자리의 3대 건학이념과 21세기의 선진통일한국을 이끌 인재육성, 과학기술혁신과 문화발전에 기여, 지역사회봉사를 통한 지역중심체로 성장코자 하는 3대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덕대의 교육신조는 낱낱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자의 확철한 교육

▲현재 우리 대학은 개교 첫해부터 2005년까지 1차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영역분야는 매년 2~3개 학과를 증설해 최종년도에는 30여개 학과 5천여명의 학부 재적생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4년 후부터 인문사회대학원을 중심으로 20여개의 대학원과 5개의 특수대학원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 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분야를 연구센터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계획 아래 밀교문화연구소, 신라문화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 첨단기술연구소 등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타자리의 건학이념을 체질화하고 '육행(六行, 선정 지혜 인욕 정진 보시 지계)'을 생활화하는 참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 지덕겸비의 위덕인을 배출한다는 구상입니다.

—위덕대가 밀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밀교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겠지요.

▲현재 동양철학, 밀교학 등을 연구할 수 있는 불교학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학과는 진각종 교역자 양성학과로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교역자를 원할 경우 진각종비생 장학금 등을 비롯 최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대학은 일반 학문의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밀교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밀교를 재정립하는 학문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 밀교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위덕대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밀교학의 상아탑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한국밀교 학문 재정립

—지난 85~87년에 문교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현재 우리 대학들이 당면한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대학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학과가 많은 것은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의 수를 줄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질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수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덕대는 △정보화사회 구현 △세계화추세 대응 △지방화시대 주도 라는 3대 특성화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대학의 학과의 과반수 이상이 전기·전자분야와 정보통신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자부하는 대학으로 만들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학과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 1일 개교하면 본격적으로 교육불사에 매진하시겠습니다.

▲위덕대학교는 총장 혼자만의 대학이 아니라 모든 불자들의 대학입니다. 앞으로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뜻이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중근 기자

나의 수행일기

맹란자 〈역·문관서우회 회장〉 상



합장하신 어머니 모습 '삶의 거울'

자작 희곡 '산비둘기' 연출 맡으면서 불교 체감

분주하게 걸음을 놓았던 내 반백년 동안의 이력을 돌이키니 부처님 일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잊고 지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러했던 것이다. 그동안의 힘든 노정과 비색(否塞)한 고개를 넘어오면서 이만큼 큰 탈 없이 지내올 수 있었다는 게 모두 부처님의 바른 인도가 있었기 대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불교가 무언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수승한 가르침인 것도 모르고 어미를 따라 처음부터 물속에서 태어나 살아왔던 새끼 물고기처럼 어머니로부터 자연스레 품을 받았던 것이다.

국민학교 4학년 때쯤이던가. 학교에서 돌아와보니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다. 어머니를 따라 몇번 가본 적이 있던 탑골승방(현 보문사)에 가셨다기에 어린 걸음으로 절을 찾아나섰다. 절 마당 안으로 들어서니 열려진 문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고운 한복을 입고 합장하며 조용히 서계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것은 그대로 내 가슴에 용해가 되어 장차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위패를 모시고 다시 그 법당 안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어머니의 그 합장한 두 손안에 담긴 염원이 무엇이었던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일체의 사량분별(思量分別)이 끊어진 지순한 어머니의 합장과 걸음이 떨리시던 3천배의 지성심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지만.

불상도 신비롭고 내 또래의 여자스님에게는 은근히 마음이 쏠렸다. 그것이 동기가 되었던지 훗날, 山寺를 배경으로 한 동승들의 얘기를 극화한 희곡 '산비둘기'를 써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화여대 주최 전국여고문예 콩쿨에서 상을 받게 되었다.

작품의 연출까지 맡게되어 의상이며 소도구 등을 빌리러 뻔질나게 절을 드나들게 되었다. 알기쉬운 교리 해설서도 찾아보게 되었고 나와 함께 사춘기를 맞이한 친구 스님과도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곤 했다.

연극 때문이었던지 세계사 시간에 선생님은 불교에 관한 숙제를 내게 맡기셨다. '소승과 대승불교의 차이'를 조사해서 다음 시간에 발표하라는 것이다. 마땅히 물을 사람도 없고 참고서 또한 없어서 다시 남별당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학식높은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조금 있으면 올터이니 기다리라"는 것이다. 밖이 어둑해지고 저녁공양이 끝나자 양복차림의 훤출한 남자 한 분이 들어 오셨다. 광우(정각사) 스님을 그렇게 해서 만나뵙게 되었으니 1958년도, 나는 숙명여고 2학년생이었다.

다생의 인연이 중했음인가? 광우스님이 정각사를 짓던 그 해에 우리 집은 바로 근처인 삼선교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남별당에서 소식을 전해 듣고 친구와 둘이서 절을 찾았다. 나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스님은 먹물옷을 입고 계셨다. 삭발로 드러난 통그스름한 두상과 단아한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다. 1960년 5월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하는 어느 날이었다. 이것이 스님과의 두번째 재회였다.

스님의 서가에서 김동화박사가 지은 〈불교학개론〉을 빌려다 읽기 시작했다. 그 당시는 실존주의 사상이 풍미하던 때라 까뮈나 사르뜨르의 책을 끼고 다녀야 행세깨나 하는 줄 알았다. 마침 나는 국어시간에 박종홍교수의 글 〈실존주의와 空思想〉에 관해 읽고는 분발심이 생겨 금강경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실존철학에 관해 물으러 갔더니 〈금강경〉을 보라는 야스퍼스의 말에 충격을 받고 돌아온 박종홍교수가 귀국하자 곧바로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었다는 요지를 추려서 "함께 공부해보지 않겠느냐"는 취지문을 작성하여 똑같은 걸 열다섯부나 써 가지고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의 종교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국문과 등에 우송하였다.

단층 양옥이던 정각사 다다미방은 대학생들로 꽉 찼다. 김동화선생님을 모시고 마침내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군더더기 없이, 원칙적이고 본론에 충실한 선생님의 강의는 한말씀도 놓칠 것이 없으련만 대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일요일이란 낭만과 자유를 구가하기에 쓰여질 시간이었던지 법당에는 빈 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주 5일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연구과정—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2월 2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원전강독 I	선종사상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대승불교사상사	불교미술	천 태 론	유식철학
연구과정	1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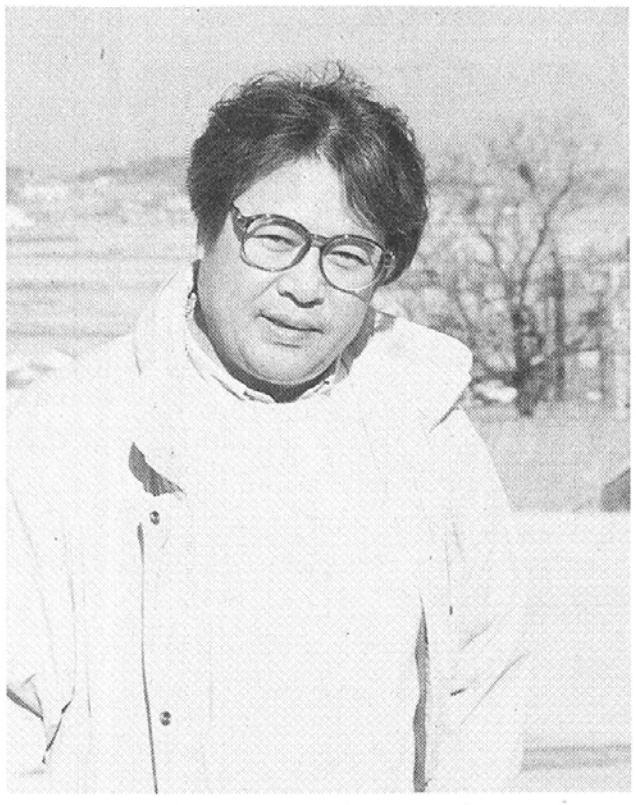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詩作은 '걸림' 삭이는 체내림"

산문밖의 禪

시인 황지우 씨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타까움을 시로 조각으로 표현

그는 서울로 돌아왔다. 더는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며, '정치적 폭력에 의해 건축되고 확장된 도시'를 떠나 귀향한 지 7년만이다. 공교롭게도 서울로 이사하고 난지 얼마안돼 그를 증오에 시달리게 했던 5공이 감옥으로 가는 것을 봤다.

"전두환씨가 감옥가는 날 밤에 샤워하는 아내의 등때를 밀어줬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유신과 5공 때, 그러니까 대학시절과 신혼의 시절을 맞바꾼 때였다. 어려웠던 시절 80년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압선 밑을 지나온' '머리 둘 둥지 하나 없는 야생의 세월'이었으며, "벗이여, 나의 근황은 위독하다. 위문와 다오. 붉고 흰 국화꽃 들고. 장의사 집앞을 지날 때마다 나는 섬짓섬짓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던 때였다.

서울로 돌아온 것이 못내 '부끄럽고 염치없는 짓'이라면서도, 도시로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가장 큰 구심력은 교육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들 제 771104-156282호와 딸 제 790916-244137호. 그는 암흑같던 그 시절 자식들을 주민등록번호에 묶어 그렇게 불렀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나는 너다〉〈게눈 속의 연꽃〉으로 이어지는 그의 시의 태반은 80년대다. 그의 시를 두고, 탐미주의자들은 시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굉개치는 파렴치행위로 불렀다. 아이들 만화에나 나오는 해골표지, 신문기사와 도표가 그대로 인용됐으니 그런 혐의를 받을만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폭력에 대한 비웃음이며 퉁렬한 풍자이며 저항이라고 했다.

"초기시의 형태파괴, 별것 아니고 내가 시달렸던 정치적 폭력에 대한 시인의 대응이었다고 봐주세요. 야만이 횡행하는 현실에서 시가 최후로 취할 수 있는 몸짓이었다고 봅니다. 언론이 전적으로 통제되었고, 표현의 자유는 봉쇄되었고, 검열의 공포에 떨었어요."

폭력은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은 물론 그것에 시달린 사람에게도 상처로 남기 마련이다. 가해자는 보복의 두려움을 차단키 위해 더 큰 폭력으로 무장하고, 당한 자는 증오의 독에 스스로도 중독되어 몸서리친다.

"개인적으로 가장 시달렸던 것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었어요. 증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시에서 '마음을 체하게 한다'고 썼는데, 시는 체내림의 방법이었죠."

그의 귀향은 증오를 달래고 체내림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늦깎이 스님인 큰형의 절을 찾았다. 참선수행도 하고, 청화스님의 법문도 들었다. 이때의 경험이 그의 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교와의 접촉이었다. 그리고 '마치 번개에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던 〈임제록〉을 읽었다.

친절하고 건너가기 알맞은 보폭으로 놓여있는 징검다리 같은 〈조주록〉과는 달리 〈임제록〉은 가풍자체가 다분히 거칠고 형태파괴적이라는 느낌을 짧게 말했다.

시 또는 시쓰는 행위란 무엇인가. 그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시학 있다면, 언젠가 시를 추구하기보다는 시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선과 유사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우리말로 시를 쓸 때는, 서구처럼 음운론적인 자기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말의 시는 선사들의 깨달음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시는 문학장르 가운데서 말을 가장 적게 쓰는데, 선은 불립문자라고 하죠. 말을 부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시도 말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선과 아주 가깝죠. 그러나 선은 말의 사다리를 뒷발로 걷어차버리는데, 시는 말의 사다리에 어정쩡하게 서있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 것이겠죠."

따라서 그는 시만이 절대적이 아니다. 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는 언어만이 아니라 언어 바깥에도 있다는 생각을 지난 5월 조각으로 드러냈다. 조각은 '침묵하는 언어'라고 정의했다. 스러져가는 것의 가치,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선적인 상상력으로 담아낸 조각전을 열며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런 말도 했다. "선 자체는 어렵지만, 선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터주는 고압전류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실신상태에 충격을 가해 깨어나게 하듯이." 그리고 진각국사와 소요태능선사의 선시에서 당시(唐詩)를 능가하는 높이와 품격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고통을 데리고 살고 삶의 가치를 알기위해 지금을 되돌아 봅니다"

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에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아아, 마침내, 끝끝내/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꽃피는 나무이다"라며 속꽃을 피웠던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그때 그 시절을 머리칼 쓸어올리며 먼눈으로 재어볼만큼 걸어왔다. 세월은 그리 변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 어찌 아팃한, 마치 날 궂으면 섬득거리는 신경통처럼 아픔이 배어나지 않을까. 시인의 삶은 천형일까.

시인은 원초적으로 비극적인 삶을 좇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고통을 데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언어적 침전물이 시가 아닐까요. 그래서 불사 해탈의 영원한 삶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삶이 더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는 몇 해 전 고인이 된 은사 김현선생이 말한, "네 시 속에는 유마가 느껴진다"는 말을 곱씹고 있다. '세속에 있으면서도 부처가 된다?' 불가능한 화두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람과 사람이 섬으로만 존재하는 세태에 한 국불교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이 유마거사가 아닐까. 경허선사는 왜 '지옥 속에 해탈이 있다'고 했을까. 다음에 낼 그의 시집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옥에서의 해탈'.

정성운 기자

"禪은 시적 영감 터주는 고압전류와 같아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일류 문화유산

한글 대장경

민족의 자존심
국보 팔만대장경

• 현재 172권 간행 보급중
• 98년까지 250권 완역예정
▶ 정가 1권 12,000원
▶ 1권당 700쪽 내외 호화양장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구입처
전화:(02) 272-2398
(02) 269-2972
FAX:278-4069

한글팔만대장경 목록

01. 장아함경
02. 중아함경 1~3
05. 잡아함경 1~3
08. 별역잡아함경
09. 증일아함경 1~2
11. 대루탄경 (외)
12. 불반니원경 (외)
13. 아라한구덕경
14. 비화경 (외)
15. 불본행집경 1~2
17. 찬집백연경
18. 현우경 (외)
19. 출요경 (외)
20. 법구경 (외)
21. 대반야경 1~20
41. 법화경
42. 화엄경(60권본) 1~3
45. 화엄경(80권본) 1~3
48. 화엄경(40권본)
49. 열반경 1~2
51. 대방등대집경 1~2
53. 대애경 (외)
54. 아차말보살경 (외)
55. 대집회정법경 (외)
56. 현겁경 (외)
57. 유마경 (외)
58. 입능가경 (외)
59. 정법 염처경 1~3
62. 사분율 1~3
65. 선견율비바사
66. 구사론 1~2
68. 중론백론
69. 현양 성교론 (외)
70. 대승기신론 소별기
71. 부휴당집 (외)
72. 선문염송 1~5
77. 조당집 1~2
79. 전등록 1~3
82. 무용당집 (외)
83. 백곡집, 월저당집
84. 법원주림 1~5
89. 경율이상 1~2
91. 본생경(쟈아타카) 1~5
96. 대보적경 1~5
101. 대지도론 1~5
106. 종경록 1~4
110. 유가사지론 1~4
114. 불성론
115. 아비달마집이문족론
116. 아비달마식신족론외
117. 아비달마품류족론외
118. 아비달마대비바론사 1~8
126. 십송율 1~3
129.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1~2
131. 정법화경 (외)
132. 예념미타도량참법
133. 대비로자나성불가지경
134. 기세인본경
135.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136. 해심밀경소 1~2
138. 해동고승전 (외)
139. 대각국사문집외 7
140. 범망경술기 (외)
141. 화엄경탐현기 1~4
145.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1~2
147. 십주비바사론 (외)
148. 부자합집경 (외)
149. 무량청정평등각경(외)
150. 대승보살장정법경(외)
151. 니야야빈두 (외)
152. 성실론
153. 지혜와 자비의 말씀(외)
154. 대승본생심지관경(외)
155. 방광대장엄경(외)
156. 과거현재인과경(외)
157. 문수사리문경(외)
158. 무소유보살경(외)
159. 금색동자인연경(외)
160. 보살영락경 (외)
161. 심밀해탈경 (외)
162. 제법집요경 (외)
163. 십력경 (외)
164. 보우경 (외)
165. 본사경 (외)
166. 보조국사집
167. 나옹화상집 (외)
168. 원감국사집 (외)
169. 소요당집 (외)
170. 반니원경 (외)
171. 불본행경 (외)
172. 불퇴전법륜경(외)

열심히 공부하면 스님처럼 되는지요

문 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면 스님과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문득 생각해 봅니다. 외람된 생각은 아닌지요.

〈김주영 · 부산시 금정구 창전동〉

답 누구나 다 본래 부처로 태어났고 부처될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공부는 학력도 나이도 성별도 자격도 따로 필요없는 공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같이 평범한 중생이 어찌 성불할 수 있겠나'하고 지레 물러서는데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퇴굴심이야말로 중생을 끝내 중생이게 만드는 병통입니다. 누구든 무한한 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 이를 무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부처라는데' '본래부터 불성을 지녔다는데' 하며 자만해서도 안됩니다. 또 남들은 공부에 진척이 있다는데 나는 왜 잘 안되나 하는 조급한 마음도 내서는 안됩니다. 또 이 공부엔 계단이 있다, 없다는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있다하면 없는 것이고 없다하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닦을 바가 있으니 계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깨달아 얻는 바가 따로 있지 않으니 계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에 걸리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스승만큼 되어보겠노라는 생각은 좋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부처님을 닮고 그렇게해서 부처의 과위에 이르겠다고 발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마음의 반야줄을 잡고 꾸준히 닦아나가기 바랍니다.

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을 냈는데…

문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매듭이 있다고 하면 그 매듭마다 크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연말연시를 넘기면서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좀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마음 기울여 도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 생각 내는 것과 그런 마음 돌려주는 것과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장현우 · 대전 유성구 도룡동〉

답 어떤 생각을 낸다하기 이전에 경우에 닥치면 그걸 보고 듣고 아는대로 그냥 닥친 것이지 생각을 내서 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닥트리니까 절로 생각이 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났으니까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행동을 했으니까 해결도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게 돌아갈 뿐입니다. 생각을 일부러 지어낼 것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말없이 할 수도 있고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하겠지만 말없이 마음도리로 하라고 했다해서 일부러 벙어리 흉내내야 할 까닭도 없는 것이지요. 마음을 낸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한다 하는 것도 그와같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수천마디 하고도 한 마디 한 사이도 없고 말 한 마디 안하고도 수천마디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생각은 가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규정짓지 마시고 상황따라, 환경따라, 용도따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진짜 멋쟁이 입니다. 그걸 일일히 맞는다 틀린다 어떻게 판정하시려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될대로 되라는 결코 아닙니다. 될대로 되라고 하면 벌써 생각을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고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경우가 다 나의 공부재료라는 점을 투철히 인식하신다면 맞느냐 틀리느냐는 생각, 마음을 낸다, 마음을 내서 돕는다는 생각 이전에 되돌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불사를 막 시작했는데요…

문 지금 제가 다니는 사찰에서는 막 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찰의 큰 스님과 주지스님,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의 원력에 의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찰의 신도들은 진정으로 부처님전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스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김한성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답 일체만불의 손없는 손, 빈 손이 다 거들어서 하고 있으니 불사의 원만회향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이 불사를 할 때 다같이 신심 기울여 동참하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다같이 더불어 하는 것이지요.

불사에 드는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포대, 서까래 하나, 그것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다 마음에서 오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혼자서 잘났기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내가 혼자했다라는게 아무 것도 없다'하셨습니다. 없어서 없다한게 아니시라 이쪽에서 했다, 내가 했다라고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하기는 했으되 함이 없이 했다는 점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쓰는 물자하나,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상황의 구석구석에 오로지 혼자만이 했다고 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혼자 한 게 아무 것도 없으니 설령 내가 했다고 해도 그것은 이름뿐이지 실제는 모두 다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불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짓고 법당 올리는 것만이 불사가 아니라 일체가 불사입니다.

지금 다니시는 사찰에서 공들여 불사를 시작했다니 그 또한 뜻깊은 불사입니다만 그것은 전체로서의 불사이지 개별적인 불사는 아닙니다. 동참하는 마음이 더불어 같이하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좌담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신년특집

"신세대 정서 맞는 눈높이 포교"

청소년 포교는 미래 불교를 이끌어 갈 동냥을 길러내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지는 96년을 맞아 미래를 일궈갈 '새싹불자를 키우자'를 연중 캠페인으로 벌이며, 이를 주제로 신년 특별좌담을 마련했다. 이 좌담회는 청소년 포교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법사 교사와 청소년 관련 전문학자 및 청소년 포교 행정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불교의 청소년 포교 현실을 진단하고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했다. 때마침 조계종이 96년을 '불교청소년의 해'로 지정해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등 올해 청소년 포교는 청소년들의 감각과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활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참석자
이영자 (우이국교 교사)
김형중 (명성여고 교법사)
김정호 (덕성여대 교수 · 심리학)
박희승 (조계종 포교원 포교과장)
사회: 위영란 (본지 취재부장)



◇좌담 참석자들은 청소년불자 감소추세에 우려를 표하고 청소년들의 감각과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실천을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오늘 좌담은 청소년문제에 대한 불교의 역할과 청소년포교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조계종 포교원에서 올해를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왜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며 얘기를 시작하죠.

박희승=그동안 한국불교는 내분에 휩싸여 청소년포교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커녕 제몸 추스리기에도 힘겨웠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조계종은 포교원을 별원으로 설치하는 등 포교활성화를 위한 전환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불교 내부의 미래를 준비하고, 향후 통일한국을 이끌 새인간상 정립이 불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첫해인 올해를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한 것입니다.

사회=불교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른 교계의 반성이 불교청소년의 해를 설정했다는 말씀인데요. 청소년불자의 현황은 어떤지요.

김형중=청소년 불교인구는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6학년도 고입원서철에 나타난 종교분포를 조사해 봤는데요, 불교는 10.3%, 개신교 40.6%, 천주교는 19.2%였습니다. 개신교 천주교를 합하면 기독교인구가 60%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중심적으로 주도해왔을 정도로 긍지를 가졌는데, 계속 무관심하면 결국 군소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내년을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했다니 늦은감은 있지만 매우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영자=국민학생 불자수도 개신교의 1/3 수준에 머물더군요. '엄마는 절에 가도 나는 교회가요'라고 당당히 얘기해요. 왜 가니 물어보면 '먹을 것 주고 노래하고 재미있어요'라는 대답이예요. 더욱 적극적이고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불교적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위기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청소년 포교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이런 현상까지 이르렀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울러서 불교의 대안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중=요즘의 청소년들은 서구적이고 물질적 쾌락적 율동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정적이고 전통적이죠. 그렇다고 요즘의 세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대를 이끌고 선도해야 할 문화를 불교가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참고로, 청소년들으로 정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문명·문화적 갈등을 초래했고 불교의 위기와 나아가 민족의식의 붕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독교인구가 늘어나도 청소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김정호=현대사회구조가 변화했음에도 유독 불교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농경시대적 포교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내분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세일즈맨이 상품팔듯 해서도 안되겠죠. 또 자세에 있어서도 불교가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실추된 불교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형중=소외계층에 관심 갖는 것이 종교의 중요기능이라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소외계층과 청소년층은 비생산층이므로 무관심하지 않았느냐는 반성도 뒤따라야 합니다.

박희승=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문제청소년보다는 일반 청소년들의 구제가 더 시급합니다. 평범한 청소년들이 정말 인간적이고 정상적인가 의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친구와 경쟁해야 진학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입장에서는 일반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그들이 올바르게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학생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하겠죠.

김정호=박선생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중에 중요 이슈가 불교가 사회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 아닌가요. 이를 종교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박희승=불교포교방략의 접근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가치관을 정립하는 정신운동입니다만, 사회는 불교인도 몸담고 있는 곳입니다. 상의상관하는 연관된 관계이므로 불교와 정치경제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불교인이 공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자=저는 가정과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엄마들이 대체로 기복신앙에 빠져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찰도 심각합니다. 교회는 새로 온 사람이 질릴 정도로 하는데, 절에서는 안내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왔다가도 그냥 가버립니다.

사회=불교계는 YMCA같은 회관도 없이 우선 주춧돌 놓듯이 시작하고 있는데 타종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것은 없을까요.

김정호=약물남용예방 캠페인, 방학을 이용한 각종 캠프, 교회에서의 문화학교 운영, 스포츠신문 선정성 감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항의하고 사회악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희승=역시 YMCA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신행보다는 사회봉사활동,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요즘은 지나치게 수익사업에 치중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타종교의 경험을 배우되 종교이기주의와 상업성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죠.

김정호=며칠 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2개월간 학교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7천9백70명이 적발되고 이중 9천88명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비단 학교폭력 뿐만아니라 본드흡입 등의 청소년탈선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제도권의 교육이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리학에서 청소년 시기를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의 시기라고 부를 만큼 청소년시기에는 자기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그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자기를 바르게 깨닫는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는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형중=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각 학교마다 선도위원회가 구성될 정도로 학교폭력문제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종교인구가 늘어나는데 반비례해 청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은 종교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사찰이 청소년들의 수행, 교화 나아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담역할까지 하면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불교청소년들은 '봉사를 잘한다' '환경운동을 열심히 한다' '불교청소년은 효자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영자=국민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크게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무스 바르고 화장실서 옷갈아 입고, 그런 아이들 중학교 가서 정학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국민학교 때부터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됩니다. 또 청소년불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찰 무료입장, 숙식제공 그리고 사찰순례 문화기행 등 종단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불자연예인 문인 법정스님 등 유명인사를 모시고 하는 순회강연도 좋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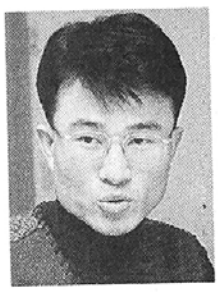
박희승=청소년만의 문제로 국한시켜서는 안됩니다. 청소년들의 폭력을 논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폭력성, 남을 무시하는 행위는 없었나 불교인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회=더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것으로 대신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담을 통해 불교는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정성운 기자



이영자



박희승

부모의 신행 자녀감성에 큰 영향
청소년캠프등 운영확대 인성개발



김형중

어른들부터 반성…가치관 재정립
통일한국 새 인간상 제시 불교몫



김정호

탈선청소년 교화기능 강화해야
불교 문화공간 다양화 급선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기구 필요
제도권교육 허점 보완책 세워야

"암 · 중풍 · 성인병 · 부인병 · 신경통 · 관절염 · 당뇨병 · 고혈압 · 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쑥뜸은 몇천년 동안 인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으나 뜨거운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몸에 흉터가 생긴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이제, 바라밀쑥뜸기로 뜨거운 고통없이 자신의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평생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 수십만원대의 보약과 약을 드시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효과를 못 보신 분, "이런 분은,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 쑥뜸기로 집안에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요!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으로 왜 인체의 병이 치료되는가?

인체에 병이 생기는 것은 마비, 확장, 염증, 수축, 경화, 세균, 내분비 부조화, 혈액순환장애, 신경과 체액의 불균형, 기(氣)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는 등으로 병이 생기는데 바라밀 쑥뜸으로 온몸에 퍼져있는 음경맥을 책임지는 경맥중 배꼽, 단전, 중완혈에 쑥뜸의 강한 에너지를 경락에 투입시키고 피부호흡, 모세혈관, 기혈(氣血) 작용을 적용시켜 기혈을 순환시키며, 5장6부와 각 기관과 조직에 기혈을 보충시켜주고 염증과 세균과 온몸의 노폐물을 배설시켜주어 질병을 치유하는 원리이다.

쑥 쑥뜸은 쑥을 태울 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 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 속으로 흡수시켜 거기에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살갗을 태워서 뜨거운 고통이나 염증을 생기게 하는 재래식 쑥뜸방법은 주로 뜨거운 열자극 효과로만 병을 치료코자하여 병을 완치시키는데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함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흡한 것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 · 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 · 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바라밀쑥뜸기의 원리요법과 특징

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약쑥의 생명력으로 질병치료와 미묘한 법열을 맛볼 수 있게 하였다.

한약재와 곡물과 경던주사 등 10여가지로 만든 쑥뜸기둥 링 받침대

약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쑥엑기스와 링받침대의 약효성분이 합쳐져서 쑥뜸기의 작용으로 3군데 혈자리 경혈속으로 새지않고 스며들게 하여 5장6부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염증과 세균을 제거하여 질병을 치유시킨다. 이때 피부표면에 떨어지는 쑥엑기스는 항암, 항균, 항독작용을 하는 인터페론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쑥뜸치료와 병행하여 복용하는 명약을 얻을 수 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권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 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 쑥뜸도구입체 반영구적
3) 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 바라밀쑥뜸기를 개발하신 각광스님 약력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원장
• 10여년간 불교건강법 및 지역건강법을 연구 · 수련
• 다년간 수련생을 모집하여 수련과 강의를 하고 있음

암 등의 난치병은 물론이고 작은 질병에서 큰 질병까지 온갖 질병을 집안에서 자기손으로 쉽게 치유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체내의 면역기능과 저항력을 증강시켜 주는 바라밀 쑥뜸기

◉ 사실에서 요청시 순회강의도 해드리며 신도들에게 스님께서 직접 보급하시고자 하면 본회에서 일차 스님을 찾아뵙고 보급방법 등을 의논드리겠습니다.
(보급후 비로 불사에 드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 백색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제작된 금강경 신탑다라니(규격 : 60cm × 160cm)의 엄청난 위신력을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극락왕생하도록 덮어주던 탑다라니를 영적인 기를 발하도록 100% 경면주사로 만들어 살아있는 사람이 깔고 덮는다면 살아 극락을 찾고 일체 재해를 소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시도된 탑다라니의 사용이 실로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데에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사업의 운세가 호운으로 바뀌고, 아픈 사람이 저절로 병이 낫고, 수험생이 집중력이 생기고 실수를 하지 않아 거의다 합격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운기가 좋은 운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증예, 바라밀 쑥뜸 건강치료요법 책자 참조)
현재 이러한 영험력을 경험한 스님들과 신도들에 의해 많은 신도들이 식구수대로 다투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바라밀 쑥뜸 뜰 때 이러한 영험력이 합쳐져 질병이 빠르게 완치될 수 있도록 쑥뜸기 구입시 금강경 신탑다라니 1품씩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 (051) 864-3740

■ 서울 · 경기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전화 : (0335) 34-9490, 39-1906
/ 야간 : (0342) 706-3060

신년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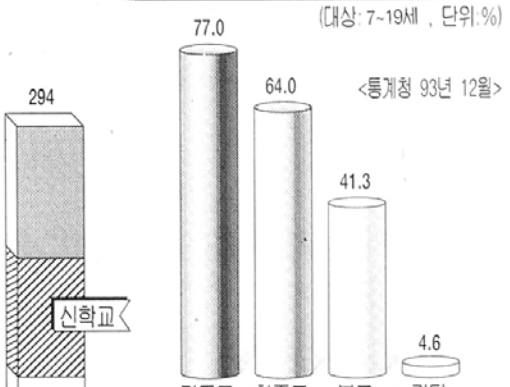
"새싹불자를 키우자"

통계로 본 청소년 포교현황

종교집회 주1회 이상 참여도

(대상: 7~19세 , 단위:%)

<통계청 93년 12월>



청소년 불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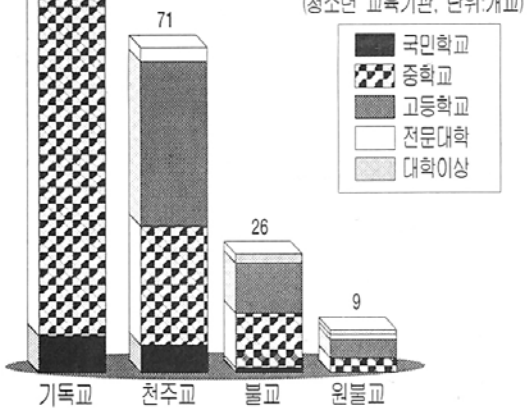


(대상: 7~19세, 단위: 명)

<통계청 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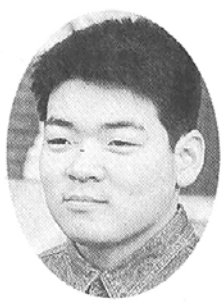
종립학교 현황

(청소년 교육기관, 단위: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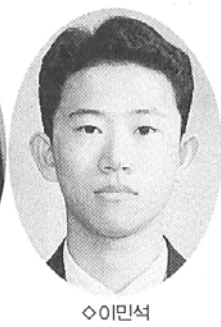
<94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자료집>
<94 한국의 종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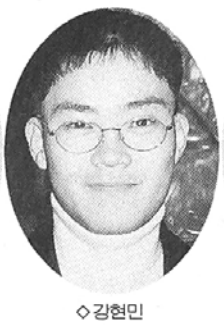
"대형사고 없도록 욕심 버렸으면…"


◇강재묵


◇권익대


◇윤소영


◇이민석


◇강현민


◇이남정


◇박정미

청소년 불자들의 **목소리**

스님들과 친해졌으면

강재묵 〈서울 시흥고2〉

'96 불교청소년의 해. 올해가 저희들을 위해 조계종이 제정한 해라니 어깨가 으쓱해진다.

저희들을 위한 포교의 해인 만큼 올해엔 스님들이 권위의식을 버리시고 저희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회나 성당 다니는 친구들처럼 목사나 신부님을 친숙하게 느끼고 따를 수 있도록 말이다. 함께 게임도 즐기고, 노래도 부르고, 웃고 떠드는 모습. 생각하면 절로 신이 난다. 그럴때 '불교'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게 아닐까 생각된다.

장애인 복지 개선되길

권익대 〈대구 보건학교2〉

3년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시가행렬을 보고 웬지모를 편안함을 느껴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현사 법당에서 향을 사르고 관음정근을 한다. 또 1주일에 한두번은 꼭 동화사 통일약사여래 대불을 찾아 마음에 쌓인 것을 하나하나 털어 놓기도 한다.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점은 3층 법당에 오를 때마다 계단을 지나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은 정상인들보다 그 수도 훨씬 적을 뿐더러 절까지 오는 경우도 많지 않다. 하지만 절을 지을 때 장애인이 마음놓고 법당에 드나들 수 있는 배려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는 사회가 하루속히 오기를 희망한다. 또 기회가 있으면 서울에 있는 불교 라디오 방송국을 견학해 보고 싶다.

자상한 어른 배려 기대

윤소영 〈평택 한광여중3〉

올해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문제화된 학교폭력이 사라졌으면 한다.

또 힘들게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이 보다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한다. 그리고 보다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과 학생들에 대한 어른들의 자상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 아침 108배 정진

이민석 〈서울 온수고2〉

새해는 내가 고3이 되는 해이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온 모든 것을 대학입학이라는 것을 통해 실현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선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의 뒷받침이 되도록 건강에도 각별이 신경을 쓸 작정이다.

매일아침 108배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생활하다보면 대학합격의 내 소망은 꼭 이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전 읽으며 자선봉사

강현민 〈부산 전자공고2〉

종립학교인 해동중학교를 다니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지만 불교가 좋아서 지금은 선암사 학생회는 물론 학교 불교교리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모레〉라는 추리소설에 빠져 불경공부를 소홀히 한 결과 교내 교리문답대회에서 참패를 당한 것이다.

물론 추리소설이 불경보다 재미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내게 불경을 추리소설 대하듯 할 수 있는 신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신심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또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도 해보고 싶다. 그들이 어떻게 아파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싶다.

고아원 아이들을 절에 데려와서 부처님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다. 또 우리 불자들이 자비정신을 발해 남북한과 해외동포까지 한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족 화목했으면

이남정 〈대구 제일여상2〉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는 윤동주의 글귀처럼 내게는 괴로움의 연속으로 점철된 95년이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되뇌어야만 했고 뚜렷한 해답은 보이지 않았다.

첫눈이 내린지도 여러날 지났건만 마른나무가지에 매달린 잎처럼 가슴 저미는 이유는 사랑하는 동생의 방황 때문이다.

96년이 싱름 다가와 버린 지금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싶다.

"바라옵건데, 제 동생이 방황의 끝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족들과 더불어 신뢰와 사랑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그리고 새해에는 지난해 같은 끔찍한 사고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 믿는 친구 많게

박정미 〈서울 중평국교4〉

새해에는 부처님을 믿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부처님을 믿는다고 자신있게 큰 소리로 얘기하기를 바란다.

선생님과 부모님께서는 5학년이 되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한다고 말씀하신다. 영어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미국말인데…. 우리말 국어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신뢰·사랑 꽃피는 행복한 가정 염원
북한·해외동포 자비로 감싸 안아야

〈조계종 '불교청소년의 해' 행사 일정〉

행 사 명	시 기	장 소	주 관	주 최	참가인원
· 청소년 지도자 연수	년간 2회	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청소년단체	포교원	지도자 5백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년간 2회	교계 및 복지시설		포교원	청소년 1천명
· 길거리 농구대회	3월~5월	목동청소년회관체육관		포교원	100개팀(4인1팀)
· 청소년 글짓기대회	4.1~10.30	동국대	동대, 공추불교청소년단체	불교청소년의해조직위	청소년 3천명
· 청소년 학술세미나	5월중	동국대	동국대	포교원	청소년 1백명
· 청소년 열린음악회	5월	목동 파리공원	목동청소년회관	포교원	청소년 2천명
· 청소년 문화대축제	6월중	역도경기장문화체육관	청소년단체	포교원	청소년 5천명
· 불교사상강연회	3월~10월	전국 주요도시	단체지부	포교원	청소년 7천5백명
· 불교청소년캠프	8월(2박3일)	덕유산·경주등	교법사단, 청소년단체	불교청소년의해조직위	청소년·학부모 5천명
· 서울·경주 남산살리기 환경대회	10월중 (1박2일)	서울남산, 동국대(서울·경주) 경주남산	동국대, 청소년단체		청소년·대학생 5천명
· 약물남용추방캠페인	등계·하계	전국 동시다발		포교원	청소년 5천명
· 청소년 후원의 밤	12월	서울	청소년단체		청소년 5백명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교구본사
조계사
주지 진현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TEL : 732-2115
FAX : 720-1391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
대중 일동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TEL : 0433-43-3615
FAX : 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방장 원담
주지 법장
대중일동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TEL : 0458-37-6565
FAX : 37-0072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조실 월산성림 대종사
주지 응연설조
사부대중 일동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TEL : 0561-746-9912~3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최지선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TEL : 0685-92-7502
FAX : 92-2081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조 실 석 주
주 지 중 원
신도회장 강창식
도 화 주 이순복
관세음합창단장 김인희
청년회장 권오남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387
TEL : 064-55-6830
—종무소—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856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TEL : 064-22-2829
FAX : 58-3367

"새싹불자를 키우자"

신년특집

선재들 눈빛 초롱초롱 신심·활기 넘쳐요

법회탐방

법련사 불일학생회

매주 토요일 3시30분. 서울 법련사(주지 현호스님) 2층 법당이 청소년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불일학생회 정기법회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방학을 앞두고 기말고사 시험이 한창이던 구랍 16일 토요일에도 중1부터 고3에 이르는 40여명의 남녀학생들이 법련사 부처님앞에 모여 들었다.

"똑똑똑또르르르…!"

불일학생회 회장 신현철군이 법회를 알리는 목탁을 치자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목탁소리에 맞춰 예불문과 반야심경을 외운다. 불일학생회법회는 학생이 직접 법회집전을 하는 자율법회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79년 고등부 법회를 시작으로 81년 중등부 법회가 창립되었고, 지금은 중·고등부가 함께 법회를 보며 신행활동을 해오고 있다.

인기있는 '윤좌법회' 돈독한 법우애 심어

불일학생회는 매년 초파일이면 대형 탑모형을 직접 만들어 제등행렬의 맨 선두를 이끌기도 하고, 참선 108배와 각종 수련법회로 흐트러진 신심을 다지기도 한다. 또 한달에 1번 사물 다루는 법도 함께 배운다. 오늘은 '윤좌법회'가 있는 날. 40여명의 학생들이 서로 마주보며 길게 앉았다.

"저번주엔 왜 그냥갔니?"
"방학때는 뭐 할거야?"
"시험은 어땠어?"
"너도 피자 좋아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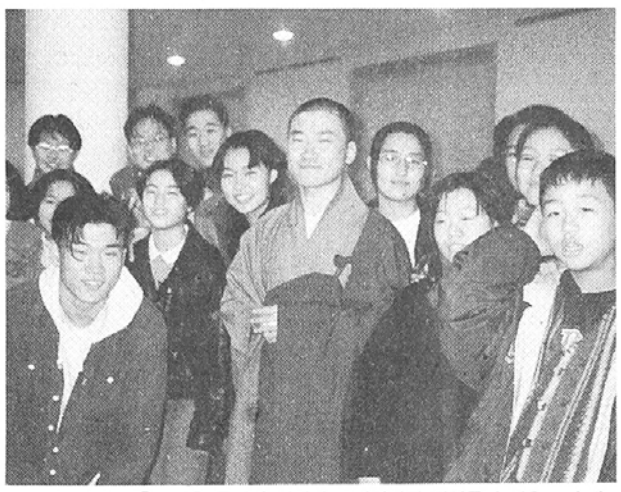
윤좌법회는 일주일만에 만난 남녀학생들이 서로의 일상생활에 대해 돌아가며 대화를 나누며 정을 쌓아가는 시간이다.

"모든 회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윤좌법회시간이 참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강성웅군(재현고 2년)은 이 시간에 의젓한 오빠가 되기도 하고 귀여운 동생이 되기도 한다.

불일학생회는 구랍 24일~27일 공주로 절에 나옵니다. 96년도에는 청소년들에게 깊은 신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회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법련사 불일학생회는 오는 2월에 고3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중1 신입생을 맞이하는 졸업법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더욱 튼실한 96년의 활동을 다짐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지도법사 석우스님을 둘러싼 법련사 불일학생회 회원들의 밝은 모습에서 불교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꼬' 연말결선 왕중왕전에서 우승했다.

동아리 순례 건국대 불교학생회

황소깨워 연꽃세계로 간다

'정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건국대 불교학생회에는 부처님의 마음이 숨쉬고 있습니다.'

건국대 학생회관 5층에 자리잡은 무량광전은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다. 이곳에서 본 일감호와 와우도가 동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처럼 둥실 떠있다. 황혼 무렵 일감호에 살포시 누워있는 와우를 보노라면 서방정토가 그리워진다고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건국대는 황소가 학교의 상징. 씩씩한 황소의 모습은 화엄경에 나오는 십우도를 연상시킨다. 매일 황소를 대하여선지 이들의 모습은 깨달음을 향하여가는 선재동자들처럼 진지하다.

32년차를 맞고 있는 건대불교학생회(회장 최종웅 법학2년)는 불교공부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않는 똘똘하고 발랄한 젊은 불자들이다. 구랍 22일에 있었던 불교TV '퀴즈특급 이뤄꼬?' 연말결선에서 중앙대 불교학생회를 물리치고 왕중왕전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32년 전통…강연·공연등 신행열정 '활활'

동문회서 수행도량 무우사 창건 자랑

모이면 불교계 현안이나 비구와 비구니의 차별문제까지 갖가지 불교문제를 주제로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결론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자'가 답이 된다.

건대불생회의 특색은 창립기념법회에서도 드러난다. 연극과 노래공연이 주를 이루는 여느 학교와 달리 능인선원 지광스님을 초청하여 '법우여 그대는 불교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불교는 광명이고 빛이다'라는 확신을 학우와 불자들에게 심어주어 교내 호응을 받은 것. 이와함께 2개월간 전회원이 바라춤을 배워 공연한 것도 빅 이슈. 홍가사와 장삼을 직접 만들어 신묘장구대다라니경을 염하며 천수바라를 공연했던 기억은 잊을 수 없다고.

신행활동도 열심이다. 아침 8시면 지도교수인 이준 교수(공업화학과)의 집전으로 아침예불을 함께 하고 저녁에는 회장의 집전으로 예불을 모셔, 아름다운 건국대 교정에는 일감호에 누워있는 황소를 깨워 소를 타고 깨달음의 길을 떠나려는 젊은 불자들의 불타는 신심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경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이와 함께 건대불생회는 동문모임인 청심회의 지원으로 수원에 수행도량 무우사를 창건한 것도 남다른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회장 최종웅군은 "신입생의 감소로 어려움이 많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단체의 틀을 잡아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내년 계획을 밝힌다.

김원우 기자

우리절 X세대 스타

조계사 중고등학생회 유성아 양



춤 노래 교리 자신 '끼 있는 포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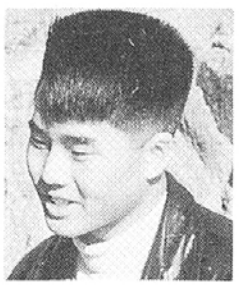
2년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행생활이지만 조계사 중고등학생회 법우 모두가 추천하는 우리절 X세대 스타 유성아(중앙여고 2)양. 유양을 처음 대하는 이들은 유선 유양의 차분하고 환한 웃음에 친숙함부터 느낀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제 할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때도 있었다는 유양은 "지금은 뭐든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앞에 나서서 말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 뭐든지요"라고 말할 만큼 모든 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탈바꿈했다.

고3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아는 그래서 시간틈틈이 서점을 찾는다. 학생회에서 미진했던 교리공부를 불교서적을 통해 익히기 위해서다. 책에서 익힌 내용, 학생회에서 느낀 내용들을 가능한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얘길한다. 맨투맨 포교를 하는 셈이다.

앞에 나서서 활동하는 것 못지 않게 책으로 내실을 다지며 자신과 포교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유성아양은 단연 조계사 중고등학생회에서 돋보이는 스타답다. 〈도필선 기자〉

한마음선원 학생회 김민규 군



시험때도 법회 빠지지 않는 '골수'

살을 에는 매서운 추위도 X세대 불자들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겨울은 추워야 한다고 큰소리를 친다.

한마음선원 앞마당에서 96년 새해달력을 팔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민규(안양공고 1년)군도 옹골찬 X세대 청소년 불자다.

환한 얼굴로 달력을 팔고 있는 민규군은 매주 일요일마다 커피판매, 달력판매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과중한 학업에 쫓기다보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면 으레히 법회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민규군은 아직까지 한번도 시험 때문에 법회에 불참한 적이 없다.

"선원에 나와서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리고 은은한 향내음이 몸에 배어야 공부가 더 잘되고, 시험에도 편한 마음으로 임하게 돼요." 민규군의 말이다.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속에서 충실한 불자의 삶을 펼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김민규군의 생활신조다. 〈이은자 기자〉

천안 연대선원 김효진 양



법회서 피아노 반주 사랑 독차지

삼귀의 피아노 반주가 계속되는데도 노랫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모두가 선녀의 옷자락처럼 나부끼는 효진이의 손가락 끝에 정신이 팔려있다.

천안시 연대선원 중·고생법회에서 으뜸 스타는 단연 김효진(천안여중 2)양. 예쁘장한 얼굴에, 멋진 피아노 연주 솜씨로 법회에 나오는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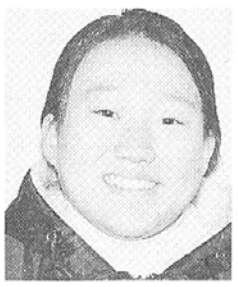
그렇지만 톡톡 튀는 스타가 아닌 수줍음 많은 요즘 보기드문 아이(?)라서 그런지 학생 법우들도 효진이를 모두 좋아한다. 최고수준의 인기관리가 선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불법과 인연을 맺은 효진이는 불교를 접하고부터 자신이 보다 너그러워 진 것 같다고 생긋 웃는다.

앞으로는 공부도, 피아노도, 불법도 더 열심히 배워 '반짝스타'가 아닌 영원한 스타가 되고 싶다는 효진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슈베르트 소나타속에서 멋진 새해를 꿈꾼다.

〈한명우 기자〉

선학원 중앙선원 이은희 양



寺報에 글발 날리는 '문학소녀'

일요일마다 서울 종로구 선학원 중앙선원 중·고등부법회에 참석하는 이은희(덕성여중 2)양은 학생회에서 불심이 깊고 항상 상냥해서 인기가 높다.

이은희양은 친구들과 언니·동생들에게 '문학소녀'로 알려져 있다. 학생회 회보에 수필을 쓰거나 편집을 도와주면서 글솜씨를 인정받은 은희는 이미 국민학교 때부터 교내 독후감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또 중1 때는 '공상과학 이야기'로 과학상을 받아 재능을 뽐냈다.

불교계 신문기자나 국어선생님을 꿈꾸는 소박한 이양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불심이 강해 원주 천종스님이나 친구들에게 모범학생으로 손꼽힌다.

선원의 학생회 모집광고를 보고 스스로 절에 나오기 시작한 이양은 선원 수련회는 물론 법회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성 불자이다.

〈김재경 기자〉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 사 장 오 녹 원
동국대학교총장 송 석 구

교 수 일동
임직원 일동

주소 :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전화 : 02-260-3114 (안내)

학교법인 승가학원

재단 이사장 송 월 주

중앙 승가 대학

학 장 임 송 산

교 수 일동
임직원 일동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전화 : 925-5507~9

(사) 한국불교대원회

대원불교대학

삼가 법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비나이다.

이 사 장 박 윤 흔
학 장 허 성 구
법사단장 오 경 환
동문회장 안 진 수

재학생
29기 회장 이 복 승
30기 회장 임 명 성
31기 회장 박 재 근
32기 회장 김 윤 주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 — 당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社團法人 韓國佛教宗團協議會

會長	大韓佛教 曹溪宗	總務院長	宋月珠	理事	大韓佛教 眞言宗	宗理院長	李泰玉
副會長	韓國佛教 太古宗	總務院長	崔慧草	理事	大韓佛教 本願宗	總務院長	李大和
副會長	大韓佛教 天台宗	總務院長	田雲德	理事	大韓佛教 曺洞宗	總務院長	尹智明
副會長	大韓佛教 眞覺宗	統理院長	金樂慧	理事	韓國佛教 如來宗	總務院長	金法佑
副會長	大韓佛教 曹溪宗	天王寺主持	金月樓	理事	大韓佛教 一鵬諤宗	總務院長	玄鵬海
副會長	大韓佛教 曹溪宗	宗會議員	方智霞	理事	大韓佛教 涅槃宗	總務院長	金海根
副會長	大韓佛教 觀音宗	總務院長	李泓坡	理事	大韓佛教 大乘宗	總務院長	尹一悟
理事	大韓佛教 法華宗	總務院長	金大虎	理事	保國佛教 念佛宗	總務院長	李晴峰
理事	大韓佛教 圓融宗	總務院長	裵一空	理事	天華佛教	教正	李喜秀
理事	大韓佛教 普門宗	總務院長	鄭慧日	主務理事	大韓佛教 曹溪宗	文社部長	金時玄
理事	大韓佛教 法相宗	總務院長	鄭法輪	主務理事	韓國佛教 太古宗	企劃室長	尹慈月
理事	大韓佛教 元曉宗	宗正	李法弘	主務理事	大韓佛教 天台宗	總務部長	金道圓
理事	佛教總指宗	統理院長	安曉岡	理事	大韓佛教 眞覺宗	弘教部長	李悳慧
理事	大韓佛教 總和宗	總務院長	全南亭	監事	韓國佛教 法華宗	總務院長	金光泰
理事	大韓佛教 一乘宗	總務院長	金慧定	監事	大韓佛教 彌勒宗	宗正	金台根
理事	大韓佛教 龍華宗	總務院長	李法德	理事	大韓佛教 彌陀宗	總務院長	
理事	韓國佛教 法輪宗	總務院長	李慧牛	理事	大韓佛教 三輪宗	總務院長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9
대표전화 · 732-4885 / 팩스 · 737-7873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鄭寶城
總務院長 崔慧草

副院長 林元法
企劃室長 尹慈月
總務部長 鄭大隱
教務部長 金月雲
財務部長 禹慧空
護法部長 朴法雨

中央宗會
議長 李昤潭
副議長 李雲山
副議長 金大雲

中央司正院
院長 金法藏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전화 · 745-2030~2 / 팩스 · 745-6364

大韓佛教天台宗

宗正 金道勇 大禪師

總務院
總務院長 田雲德
總務部長 金道圓
教務部長 朴德水
教育部長 金國星
財務部長 南宮道載
社會部長 李門德
糾正部長 邊春光
宗正私書室長 朴法傳

宗議會
宗會議長 尹德山
副議長 金國星
副議長 金吉斗

監査院
監査院長 朱正山
監査委員 趙珍德

參議院
參議院長 朴炯喆
中央信徒會長 金裕赫
宗典譯經院長 李昌燮
宗典研究院長 金煐泰
金剛佛教大學學長 李載昌
救仁寺專門講院 金智福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전화 · 0444-423-7100~8 / 팩스 · 0444-20-3399

大韓佛教總和宗

總務院長 全南亭
文化院長 李基泰
中央選擧委員長 全南亭
總務部長 李萬悟
財務部長 朴青海
教務部長 張一峯
規正部長 林容圭
社會部長 朴時均
組織部長 李成實

各教區宗務院長
京畿北部 宗務院長 朱仁鉉
京畿東部 宗務院長 奇福成
京畿西部 宗務院長 張慧雲
京畿南部 宗務院長 張一峯
忠南北 宗務院長 朴青海
慶北 宗務院長 權泰鳳
濟州 宗務院長 李亨福
釜山慶南 宗務院長 金男日

宗會議長 金華潭
副議長 金慧晋
副議長 權覺信

監察院長 張慧雲
監察部長 白東悟
調査部長 崔海正

教育院長 鄭慧晏
教育部長 金智悟

護戒院長 朱仁鉉
布教院長 金男日

서울시 종로구 창신1등 93번지
전화 · 02-742-8895 · 8896

大韓佛教眞覺宗

總印 覺海
總印司書室長 侔明

統理院
統理院長 樂慧
總務部長 鎭山
財務部長 惠印
弘教部長 悳慧
建設部長 大慶

教育院
教育院長 道欣
教法部長 惠淨
教育部長 孝庵
教務部長 義玄

宗議會
議長 慧一
副議長 一靜
副議長 福善定

查監院
監査院長 眞堂
部長 惠明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전화 · 913-0751~3 / 팩스 · 915-6032

불교총지종

종령 록정

통리원장 효강
총무부장 원봉
재무부장 법공
사회부장 혜암
교정부장 사홍화
중앙종의회 의장 송하
부의장 우승
사감원장 총지화
사감위원 불멸심 · 혜산 · 법정 · 원송

■ 법장원
기획실장 화령
총지종보사 편집기자 박주연

■ 중앙교육원
간사 법경

■ 재단법인 사무국
사무국장 지성
서울 · 경기 교구장 경관
부산 · 경남 교구장 의강
대구 · 경북 교구장 수성
충청 · 전라 교구장 사홍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1080~3 / 팩스 · 02-552-1082

大韓佛教 普門宗

宗正 千慧眼

元老院長 白明悟
總務院長 鄭慧日
宗會議長 李智環
護戒院長 尹法松

總務院
副院長 曺法綜
總務部長 李法善
教務部長 金眞雨
財務部長 吳仁太
布教部長 李明浩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번지
전화 · 928-3797, 926-9752

財團法人 大韓佛教 觀音宗

宗正 金大天

總務院長 李泓坡
總務部長 金智攝
教務部長 黃法明
財務部長 金鏡徹
社會部長 金性哲
布教部長 鄭法性
組職部長 李宗炫
元老院長 李慧雄
宗會議長 鄭法輪
副議長 申無本 · 鄭春潭
教育院長 金東靈
修交部長 洪智默
譯經部長 吳慧院
監察部長 金和儼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 763-3109 · 3345 / 팩스 · 763-5851

대한불교 원효종

종정 이법홍

종회의장 김덕현
원로원장 윤몽봉
총무원장 설대운

총무원장직무대행 송무진
규정위원장 김도원
상벌위원장 박송파
고시위원장 차도민
강원종무원장 김도원
경기종무원장 우종산
경남종무원장 박송파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전화 · 02-735-0501 / 팩스 · 02-736-3509

대한불교 화엄종

종정 한구하
의장 정희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산 21
전화 · 032-422-2066~7 · 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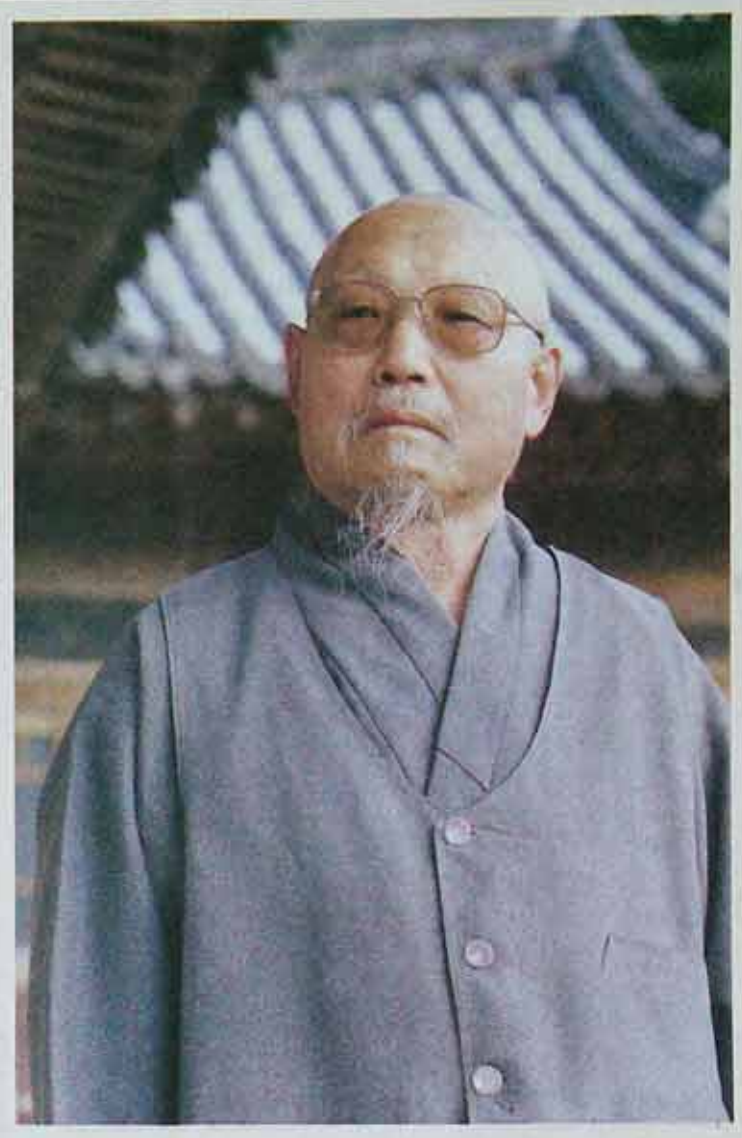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장학회
이사장 정희수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B/D 101호
전화 · 02-730-0798~9 / 팩스 · 02-722-3205

★ 새아침 지상법석

"나를 버리고 남과 조화"

인 허 스님 〈월정사〉



약력
- 1916년 전북 정읍 生
- 1939년 숙가형 탄허스님의 뒤를 이어 한암스님에게 사미계 받음
- 1945년 한암스님을 은사로 비구계 수지

'남을위해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새해 열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모두가 지상낙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감회는 누구나 다 새롭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는 것 또한 세상살이입니다. 늘 하던 일 그대로 하고, 늘 있던 자리를 왔다갔다 하게 되지만 그래도 뭔가 변해야 겠다는 자신도 모르는 욕구가 생솟는 때도 새해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아야 하느냐. 이것은 어려울 것 없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결국 우리 마음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욕하고 아웅다웅 삽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시끄러워지고 온갖 병폐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살길 바라지만 어디 뜻대로 됩니까. 그렇다고 되는대로 산다면 그건 더욱 나쁜 죄업을 짓는 것밖에 안되고, 그러면 뜻대로도 안되고, 되는대로 살 수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한 생활을 하며, 이치에 당도록 살면 곧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어디 있느냐 족한줄 알면 그게 행복이지 무엇입니까. 부처님 법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데서 법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저 분수에 맞게 만족하게 살아 보세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늘 허덕이게 되고, 아무리 없어도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편안해 집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뿌리를 삶아 먹고 살아도 내 전생의 업이 이런가 보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그게 곧 행복이죠. 자기가 있는 자리는 인연이 닿아서 있는 자리니 불만 갖지 말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나 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작년에는 죄만 짓고 불평만 늘어놓고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으니 올해에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족함을 알고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를 맞는 보람이 있는 것이지 항상 살던대로 살면 나이 먹는 값이 있겠습니까. 지상낙원 극락세계가 따로 있질 않아요. 모두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열면 여기가 극락세계고 지상낙원이 되는 겁니다.

'나월삼십일(落月三十日)에 열라가 자귀항(自歸抗)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월삼십일이란 일년이 다 지나간 마지막 날이란 뜻이고 열라가 자귀항이란 염라대왕이 와서 자연히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염라대왕이 와서 항복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헛되이 살았구나 하고 자탄하고 있는 중생들이 많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며 죄업을 닦도록 노력해 보세요. 염라대왕에게 항복받은 사람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수행이 잘 된 상태여서 사리와 이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산골짜기 물이 냇물이 되고 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그 근본자리는 하나이며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때에는 부증불감입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도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공부에 정진하고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해 보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옆에서 벌소리를 다 해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일로매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발도 저리고 온몸이 쑤셔옵니다. 그것도 불러야 합니다. 그러야 제대로 된 기도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전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전생에 지은 업연 깨끗이 씻고 금생을 복을 짓고 살다보면 내생에는 분명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종자를 심어야 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되겠다는 생각으로든 공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보조국사 말씀에 신위공덕모(信爲功德母)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믿는 마음이 견고해야지 견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세태가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문화가 아무리 발달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속은 캄캄해지고 있어요.

도인 나는데 너무 관해도 좋지 않은 법이거든요.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이라는 말도 있듯이 세상이 너무 편하다 보니 관안함에 익숙해져 조금만 어려워도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절제력이 없어 매사를 조심하지 않는 것도 큰 병입니다.

옛날 조주 땅 촉령봉에 태전선사가 있었는데 한퇴지가 태전선사를 시험하려고 기생 홍련으로 하여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련은 태전선사를 찾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태전선사를 유혹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홍련이 태전선사 앞에 가 울면서 '스님을 파계시키려 왔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대로 돌아가면 큰 벌을 받게 된다'고 하며 스님께 도움을 청하였으나 태전선사는 홍련의 치맛자락을 끌치고 다음과 같은 게송을 했습니다.

十年不下觸鑾峰(십년불하촉령봉)
觀色觀空覩空空(관색관공즉색공)
如何一滴曹溪水(여하일적조계수)
將洗人間萬丈紅(초추홍련일염중)

촉령봉 내려가지 않기를 십년
색을 보고 공을 보니 색이 곧 공인데
어찌 조계의 물 한 방울을
홍련의 일사귀에 떨어뜨리겠느냐

공부는 근본진리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태전선사는 공부를 통해 색(色)이 곧 공(空)이라는 진리를 통달했기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色)은 탐욕도 될 수 있고 망념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空)임을 깨달아 집착과 번뇌를 놓고 선정(禪定)에 들어보세요. 이것은 오직 수행과 깨우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禪)과 정(定)에 대해 말하면서 그 근본자리를 알지 못합니다. 선(禪)이라 함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음이요, 정(定)이라 함은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본성이란 무생심(無生心)이며, 정리나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해서 정(定)을 얻은 사람은 비록 범부라 해도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이것이 깨달음이고 피안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흔하들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잘 하면서도 중생들은 뭐가 답답한지 토정비결을 보느니, 또 굿은 일이 있으면 액땜을 한답시고 굿을 하고 점을 치고 그런다고 합니다. 재미로도 하고 잘 안되니까 한다고들 하는데 인생을 재미로 삽니까. 또 잘 안된다고 점치면 안되는 일이 잘 됩니까.

새해를 맞아 점치러 가느니 차라리 부처님께 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발원하는 것이 백번 나아요. 자기가 지은 죄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님 제자중 시마우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공자님같이 덕행이 뛰어난 사람의 제자가 어떻게 나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그 제자가 공부를 못하고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전생에 지은 죄업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장보살도 내세에 좋은 업보를 받으려면 덕을 닦고 실천하라 했습니다. 금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업이 두터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점을 치고 재를 지낸다고 그 업이 소멸되겠습니까.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지식과 주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자니 불자들도 부처님 말씀은 안 믿고 점쟁이를 찾아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부가 덜된 삿된 짓입니다. 나쁜 것임을 알았으면 고치는게 당연한 도리니 하나 둘씩 고쳐 나가야 합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행하는 선업이 곧 스승이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고쳐 나가면 그 역시 스승인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선업도 악업도 모두 스승인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기본적으로 신명나는 일 많고, 땀 흘릴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어야 하지만 어디 욕심대로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즐겁게 살 수 없는 것은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잘못을 알지 못해서 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자신을 바로 보며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쁜 버릇이 오래되면 점점 부끄러움을 모르고 마침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한 개비의 작은 불이 능히 태산을 태울 수 있고, 한 생각의 악한 마음이 하늘을 삼킬만한 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도 밝아 다져지면 굳은 얼음이 되는 것처럼 한 생각 하나의 행동에 자신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열심히 살아가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에 따라 우리 모두 부처님같이 새해를 맞이합시다.

"나쁜버릇 오래되면 부끄러움 모르게 되고 마침내 몸과 마음이 병앓이 악순환 계속"

맡은 일 최선 다하고 만족알면 저절로 행복

그것이 보살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세요. 직장인은 직장일에, 학생은 공부에, 주부는 가정일에 각자 맡은 일에 온 힘을 기울여 보세요. 그게 바로 뜻대로 사는 길이고,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요즘 세상이 온통 난리를 만난 것 처럼 시끄럽지요. 그것도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람들이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사회가 너무 명예와 돈을 찾아서 그런 겁니다.

어디 이것 뿐입니까. 올해에는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이렇게 걱정 근심 재앙이 자꾸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단결과 화합이 안되고 책임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조화가 잘돼야 개인도, 집안도, 나라도 다 잘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어디 있느냐 족한줄 알면 그게 행복이지 무엇입니까. 부처님 법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데서 법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저 분수에 맞게 만족하게 살아 보세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늘 허덕이게 되고, 아무리 없어도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편안해 집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뿌리를 삶아 먹고 살아도 내 전생의 업이 이런가 보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그게 곧 행복이죠. 자기가 있는 자리는 인연이 닿아서 있는 자리니 불만 갖지 말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나 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작년에는 죄만 짓고 불평만 늘어놓고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으니 올해에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족함을 알고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를 맞는 보람이 있는 것이지 항상 살던대로 살면 나이 먹는 값이 있겠습니까. 지상낙원 극락세계가 따로 있질 않아요. 모두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열면 여기가 극락세계고 지상낙원이 되는 겁니다.

'나월삼십일(落月三十日)에 열라가 자귀항(自歸抗)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월삼십일이란 일년이 다 지나간 마지막 날이란 뜻이고 열라가 자귀항이란 염라대왕이 와서 자연히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염라대왕이 와서 항복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헛되이 살았구나 하고 자탄하고 있는 중생들이 많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며 죄업을 닦도록 노력해 보세요. 염라대왕에게 항복받은 사람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수행이 잘 된 상태여서 사리와 이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산골짜기 물이 냇물이 되고 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그 근본자리는 하나이며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때에는 부증불감입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도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공부에 정진하고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해 보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옆에서 벌소리를 다 해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일로매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발도 저리고 온몸이 쑤셔옵니다. 그것도 불러야 합니다. 그러야 제대로 된 기도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전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전생에 지은 업연 깨끗이 씻고 금생을 복을 짓고 살다보면 내생에는 분명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종자를 심어야 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되겠다는 생각으로든 공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보조국사 말씀에 신위공덕모(信爲功德母)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믿는 마음이 견고해야지 견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세태가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문화가 아무리 발달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속은 캄캄해지고 있어요.

도인 나는데 너무 관해도 좋지 않은 법이거든요.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이라는 말도 있듯이 세상이 너무 편하다 보니 관안함에 익숙해져 조금만 어려워도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절제력이 없어 매사를 조심하지 않는 것도 큰 병입니다.

옛날 조주 땅 촉령봉에 태전선사가 있었는데 한퇴지가 태전선사를 시험하려고 기생 홍련으로 하여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련은 태전선사를 찾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태전선사를 유혹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홍련이 태전선사 앞에 가 울면서 '스님을 파계시키려 왔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대로 돌아가면 큰 벌을 받게 된다'고 하며 스님께 도움을 청하였으나 태전선사는 홍련의 치맛자락을 끌치고 다음과 같은 게송을 했습니다.

十年不下觸鑾峰(십년불하촉령봉)
觀色觀空覩空空(관색관공즉색공)
如何一滴曹溪水(여하일적조계수)
將洗人間萬丈紅(초추홍련일염중)

촉령봉 내려가지 않기를 십년
색을 보고 공을 보니 색이 곧 공인데
어찌 조계의 물 한 방울을
홍련의 일사귀에 떨어뜨리겠느냐

공부는 근본진리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태전선사는 공부를 통해 색(色)이 곧 공(空)이라는 진리를 통달했기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色)은 탐욕도 될 수 있고 망념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空)임을 깨달아 집착과 번뇌를 놓고 선정(禪定)에 들어보세요. 이것은 오직 수행과 깨우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禪)과 정(定)에 대해 말하면서 그 근본자리를 알지 못합니다. 선(禪)이라 함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음이요, 정(定)이라 함은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본성이란 무생심(無生心)이며, 정리나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해서 정(定)을 얻은 사람은 비록 범부라 해도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이것이 깨달음이고 피안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흔하들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잘 하면서도 중생들은 뭐가 답답한지 토정비결을 보느니, 또 굿은 일이 있으면 액땜을 한답시고 굿을 하고 점을 치고 그런다고 합니다. 재미로도 하고 잘 안되니까 한다고들 하는데 인생을 재미로 삽니까. 또 잘 안된다고 점치면 안되는 일이 잘 됩니까.

새해를 맞아 점치러 가느니 차라리 부처님께 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발원하는 것이 백번 나아요. 자기가 지은 죄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님 제자중 시마우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공자님같이 덕행이 뛰어난 사람의 제자가 어떻게 나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그 제자가 공부를 못하고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전생에 지은 죄업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장보살도 내세에 좋은 업보를 받으려면 덕을 닦고 실천하라 했습니다. 금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업이 두터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점을 치고 재를 지낸다고 그 업이 소멸되겠습니까.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지식과 주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자니 불자들도 부처님 말씀은 안 믿고 점쟁이를 찾아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부가 덜된 삿된 짓입니다. 나쁜 것임을 알았으면 고치는게 당연한 도리니 하나 둘씩 고쳐 나가야 합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행하는 선업이 곧 스승이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고쳐 나가면 그 역시 스승인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선업도 악업도 모두 스승인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기본적으로 신명나는 일 많고, 땀 흘릴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어야 하지만 어디 욕심대로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즐겁게 살 수 없는 것은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잘못을 알지 못해서 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자신을 바로 보며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쁜 버릇이 오래되면 점점 부끄러움을 모르고 마침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한 개비의 작은 불이 능히 태산을 태울 수 있고, 한 생각의 악한 마음이 하늘을 삼킬만한 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도 밝아 다져지면 굳은 얼음이 되는 것처럼 한 생각 하나의 행동에 자신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열심히 살아가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에 따라 우리 모두 부처님같이 새해를 맞이합시다.

부처님 땅에서 성도절을

혜초여행사가 후원하는 현대불교 인도 성지 순례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4대명절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인 성도절을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맞이하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80생애를 고스란히 간직한 인도성지는 부처님의 체취를 온몸으로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이 무엇인지 일깨워 줄 것입니다. 1996년 새해,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잉태한 인도성지 참배로 큰 감동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 성 지 : 인도 · 네팔
(녹야원, 보드가야, 라즈기르, 바이샬리, 쿠시나가라, 기원정사, 룸비니 등)
■ 일 정 : 9박 10일
■ 참가비 : 155만원
(여권 인지대 45,000원 별도)
■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 출발일정
- 1차 : 96. 1. 17
- 2차 : 96. 1. 24
- 3차 : 96. 1. 26
- 4차 : 96. 1. 31
- 5차 : 96. 2. 4

■ 여행조건
- 1급호텔 기준 2인 1실 (성지지역은 현지 최고 수준)
- 전일정 식사 포함 (기내식 포함)
  성지 지역 : 한식제공
- 해외여행보험, 공항세, 인도 · 네팔 비자 수수료 포함
- 인도성지 전문 안내원 동행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유마상

내 생을 장애인과 함께

강 주 수 〈부산 농아복지회 수화강사〉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따라 절에는 많이 다녔어도 불교가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에서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밖에 있는줄 알고 밖으로만 향했던 눈을 돌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며 보잘 것 없는 나를 미워하며 살던 저의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자금까지 내가 썼던 마음의 결과이며, 나의 환경은 내 마음의 그림자이고 내가 먼저 바꾸어야 환경이 바뀐다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형편없는 내게도 불성이 있다니….

세상이 온통 달라 보였습니다. 불법을 모르고 방황할 때 누가 불법을 가르쳐 줬더라면 나의 생이 일찍 달라졌을텐데…. 이 법을 알기 전의 고통받던 나를 생각하니 아직도 생의 방향을 몰라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머리속에서 장애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렇다. 농아구나. 누군가가 중간에서 정확하게 통역을 해줘야 하는 역할을 기꺼이 하고싶어 1982년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부산에는 수화를 가르치는 곳이 없어 서울농아복지회에서 수화를 배워 다시 부산에 와서 부산농아복지회를 매일 다니면서 농아인들에게 직접 수화를 배웠습니다. 서울수화와 부산수화가 다른게 있는지 서울 부산을 오가며 점검하여 완벽한 수화를 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인들의 세계와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세계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농아인들의 생활은 거의 단순노동과 날품팔이로, 설혹 직장을 구했다 해도 정상인들에 비해 봉급이 적었으며 그것도 몇달씩 미루고 안줘서 이직률이 높고 열심히 살고 싶어도 일반인들과 대화가 되지 않아 모든 면에서 손해보고 피해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상인에 대한 불신의 벽이 두터운 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여호아의 증인 가톨릭 기독교를 믿고 있었기에 불자라는 것을 숨기고 같이 생활하면서 수화를 배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매일 거울을 쳐다보며 못생겼다고 한탄하던 눈 코 입 귀 팔 다리 손가락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도 제 역할을 잘해내던지…. 그때야 저는 비로소 정상인으로 낳아준 부모님의 고마움과 이렇게 못된 내가 아직 장애를 입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임을 알고 너무나 감사해서 몇날 몇밤을 울면서 맹세했습니다. 이 성한 몸으로 평생 장애인을 위해 살겠다고. 이 마음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을 만나기 전에는 갖지못한 고마움이었고 그분들이야말로 저를 사람되게 한 부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다니다 보니 그들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또 가더라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아픈 느낌을 표현하지 못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쌀이며 차비도 없는 사람도 있었고 집세를 못내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언니들에게 손내밀어 그들을 돕는다고 도왔지만 그들에게는 큰 도움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농아인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종이에 적어 보이면서 이것이 귀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면서….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노트에 적기도 하고 수화도 하면서 나름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과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시다. 나는 사실은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고통의 원인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같이 공부하기 위해 수화를 배웠다. 교회가고 성당가니까 왜 농아인이 되었다고 하더냐? 하나님의 큰 뜻? 그래 그 큰 뜻이 무엇이냐? 농아인으로 태어나 듣지 못하고 말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왜 농아가 되었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이대로 죽고 싶으냐? 불교를 믿으라고 하지 않겠다. 나를 따라 다니면서 같이 공부해보자. 일단 배우고나서 그때 당신들 갈데로 가라.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우는 나를 보고 따라우는 농아인들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4명이 처음으로 불자가 되었습니다. 4명이 공교롭게도 성당에서 간부직을 맡은 사람이어서 수녀님과 신부님이 그들 부모를 찾아와서 성당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불교를 믿고부터 많이 착실해지고 달라졌다. 그런데 어찌 내가 성당으로 도로 가라하겠느냐. 나도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들따라 공부해 보고싶다고 했다면서 그 농아인 어머니가 고맙다고 저에게 인사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당시 제가 다니던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에 농아인들과 함께 가서 불교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수화는 많은데 불교수화는 3~4개 밖에 없는 것과 모두 욕 비슷하게 쓰이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을 '이 자식 가만히 있어'로, 스님을 '공짜 대머리'로, 불교를 '목탁'으로….

불교수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불교국가인 일본 중국 대만 수화책을 구해서 제가 다니던 연구원의 이기영박사님을 찾아 갔습니다.

이기영박사님과 돌아가신 서경수교수님께서 그 많은 수화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 보시고 불교수화는 없다고 하시며 이박사님께서 미간백호(제3의 눈, 지혜의 상징)를 가리키며 붙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붙자는 이것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불교용어는 이곳을 찍으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힌트로 지혜, 8정도 등이 만들어 졌고 미간백호를 찍고 기존수화 '님'이라고 쓰는 지금의 스님 수화는 그 자리에서 이박사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정견'을 '막연하게 올바로 보다'로 통역하다가 미간백호를 찍고 기존수화 '보다'라고 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상징인 제3의 눈으로 사물의 실상을 올바로 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농아인들이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이박사님은 불자가 알아야 될 최소한의 불교용어들을 뽑아주시고 수화를 만들기 좋게 간략하게 설명도 해주시어 불교수화 만드는데 크게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정상인들도 말로서 마음의 뜻을 100%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깨닫지 못한 저희가 깨달으신 부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며 손가락 10개와 얼굴표정으로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수화가 다 그렇습니다만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불교용어를 가장 간단한 손동작으로 표현하는 불교수화는 신중하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수행'을 마음공부라고 하면 정상인들은 그 뜻이 바로 전해지지만 농아인들에게는 마음+닦다(청소)로 해야 수행의 뜻이 더 확실히 전해집니다. 공부라면 골치아프고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느낌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정상인의 수준으로 수화를 만들면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에 특히 유의하여 불교수화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23일 불교수화 발표회때 불법을 헌법으로, 법륜을 헌법이 굴러가다로, 수행을 마음공부로, 지옥을 도깨비 미귀로 등등, 문제있는 수화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발표된 39개에서 2개를 더한 41개 불교수화를 농아 교과서에 싣는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떤 농아불자가 불법을 헌법으로 사용하다, 타종교인이 믿는 종교가 헌법이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하느냐며 걱정하는 소릴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는 글을 여러 관계자들에게 보냈고 모불교신도회에서는 이사회때 저의 의견을 들어보시겠다고 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불교수화 발표회의 주역이신 스님이 이미 발표된 불교수화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신문 인터뷰기사를 보고 믿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불교수화는 누가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빨리 만드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하도록 아니 잘못 전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종교계, 학계, 불교를 알고 수화를 잘하는 사람들과 농아불자들이 힘을 합쳐 뜻에 가장 적합한 수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일선에서 현재 쓰고있는 불교수화를 모아 서로 비교 검토하여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수화를 뽑아 검증하고 공인된 것을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교를 만난 것을 고마워 하는 농아인 불자들에게 그들이 훗날 우리들이 잘못 만든 불교수화를 다시 고치는 이중고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농아인불자 가운데 굉장히 똑똑한 불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로부터 불교를 바로 배워 농아인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포교사가 되도록 완벽한 수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이 일에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제가 법성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85년 여름이었습니다. 스님이 계시던 경북 어느 절에서 영남불교 중고등학생 수련회 소식을 전해듣고 우리 농아불자들에게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우리 농아불자들을 보며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해서 느낀만큼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또 장애인은 몸의 일부분이 불편할 뿐이지 능력장애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농아인불자 몇명과 함께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거기서 수화하는 저를 보시고 스님은 맞다 이거다, 내가 헛살았구나 하시면서 저와 뜻이 금방 같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로 오가며 저는 수화를 가르쳐 드리고 스님은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 농아인들이 어떻다고 연락만 하면 곧바로 달려와서 주례도 서주시고 농아인 일터에도 따라가시는 등 농아인에 눈물 겨운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스님계시던 절에서 농아인들로만 구성된 제1회 백화도량 정진대회를 열어 발우공양, 참선도 하고 바닷가에 가서 같이 수영도 하면서 농아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스님은 은사스님의 평범한 기대를 저버리고 농아인들을 위해 진짜 출가를 하셨다며 거처를 경주 남산의 주인 없는 허름한 초가집으로 옮기셔서 불교수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셨습니다.

어떨 때엔 며칠 밤을 잠못이루며 연구해도 아직도 못만들었다며 자신의 머리로 벽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땐 뜻에 꼭맞는 수화를 만들어 너무 기뻐 잠못이루셨다고도 하셨습니다. 돈 한푼없이 밥을 굶으실 때도 있었고, 마을사람들에게 얻어 잡수시며 정진하시다가 집주인에게 쫓겨나 그 추운 겨울을 바위틈에서 방석 1개로 지내셨



내 환경은 내 마음의 그림자임을 알았을 때 세상이 온통 달라 보였다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해 줘야지…' 그래서 1982년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신 행 수 기 당 선 작

현대불교신문이 95년 10월15일 창간 1주년을 기념해 공모한 신행수기 당선작이 결정됐다. 불자들의 바른신행에 도움이 되고 신심을 북돋기 위해 마련한 신행수기 공모에 총 105편이 응모, 6편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총 105편 응모 당선작 6편 선정

대상(유마상) '내 생을 장애인과 함께'
▲강 주 수 〈부산시 금정구 남정동 48-2 부산APT 107호〉

종단협의회장상 저너머에 행복이
▲이 희 명 화 〈서울시 노원구 상계8동 주공APT 1609-804〉

본사 사장상 소중한 만남
▲김 영 미 〈경기도 화남시 감일동 한전사택 2호〉

한마음의 등불
▲청 정 월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1동 248-4호〉

특 별 상 ◇천태종 총무원장상=아내의 정성과 부처님 가피 ▲목영태 〈경기도 안성시 죽산리 438-2〉
◇불교진흥원 이사장상=자식을 잃고 만난 불법
▲노윤택 〈경기도 인양시 석수1동 182-2 주공APT 2-406〉

현대불교신문사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고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2. 8 본교학생 48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문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8명 취득 예정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6년 1월 22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 제일서림 : 424-0801 부산 영광도서 : 252-8558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6 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 집

1. 대학개설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 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스님의 백일법문(上, 下)을 부교재로 선택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8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밀교사상,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무진장스님(전포교원장), 종범스님(승가대교수), 인환스님(동국대교수), 최봉수(동국대교수), 성본스님(동국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한정섭(불교교화교원장), 정병조(동국대교수), 홍윤식(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법화사상, 화엄사상, 반야사상	정락스님(전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교수), 한보광스님(동국대), 암도스님(전포교원장) 오형근(동국대교수), 김영태(동국대교수), 박종(불교통신대학장), 이만(동국대교수), 정승석(동국대교수), 권탄준(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1996년 1월3일~1월31일·입학금 150,000원 (교재제공)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총무원 분교회관 1층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만 가능

4. 개강일시 1996년 2월3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및 동산반야회 사무국(732-1206~8, FAX:732-1207)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733-0333) ◎부산 : 불서보급사(246-4321)
◎대구 : 삼영불교서림(425-4097) ◎대전 : 보문서점(257-0161)
◎광주 : 금강불교백화점(671-0451)

6. 원서접수처
본대학 사무국(110-170 :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총무원 1층)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 포교사자격을 수여함.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동 산 불 교 대 학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유마상

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굶고 계신 것을 알고 쌀, 미역, 빵을 지고 남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만 그때 이미 스님은 많이 지치고 병환이 깊어 있었습니다.

1987년 천룡사지 마당에 텐트를 치고 제2회 백화도량불자 정진대회때 천룡사 주위 약수터에서 약수도 마시며 목욕도 하면서 마음의 때 다 씻고 마음의 눈, 마음의 귀를 열자고 하셨습니다.

천룡사지 뒷산에는 동네 사람들이 귀머거리 연못이라고 부르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님은 우리 농아인들과 인연이 있다 하시며 쓰러진 나무둥치며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농아인들의 귀를 수술하듯이….

스님은 도시에서는 소리를 낼 수도 없다며 산에서는 목청껏 소리를 내어보라며 목탁에 맞춰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는데 평소에 성대를 쓰지않던 농아인들이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리가 없었습니다. 입만 벌리면 죄만 짓는 정상인보다 차라리 너희들이 더 낫다 하시며 마음 아파하며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칠불암을 오르 내리며 농아인들은 관세음보살 명호를 한번이라도 불러 보려고 자기목에 손을 갖다 대보기도 하고 또 내 목에 손을 대어보고 내 입모양을 쳐다보며 눈으로 소리를 듣고 따라 하려고 가던 발을 멈추고 자꾸만 소리를 내어보지만 "가에으로아~ㄹ" 가느다란 절규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급하면 구해달라는 소리는 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산위에서 '아-아'하고 외치는 소리를 연습시켰지만 그 소리를 내는데 땀을 얼마나 흘리며 힘들어 하는지….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때 만약 우리 농아인이 지하에 갇혀 있었다면 밖에서 보내는 신호를 듣지못해 자기를 알릴 수도 없었을텐데.

스님과 같이 생활했던 우리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지난날 종교를 바꾸었을 때 천주님이, 하나님이 벌줄까봐 겁을 내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두려움없이 당당하게 생활하는 농아불자들을 보며 함께 기뻤습니다. 발우공양의 의미를 알고 참선도 해본 경험이 있는 농아불자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며 농아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불자가 된 어느 농아인이 저에게 함께 가서 통역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영문도 모르고 따라 갔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상인과 차별하여 봉급을 적게 준만큼 나쁜 짓한 것을 주인에게 직접 용서를 빌자 그 주인이 감동하여 언제든지 다시 자기 회사로 나오라고 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양봉업을 하는 농아불자는 진짜 꿀만을 만들어 "이꿀을 잡수시는 모든 분들의 병이 완쾌되기"를 기도하고 또 꿀벌에게도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으로 살며 모두 인과의 도리를 확실히 믿고 정상인 이상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988년 어느 날 태산같이 믿었던 법성스님이 갑자기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젖먹이 자식을 줄줄이 놔두고 먼저간 남편을 원망하는 아낙네의 심정이 저와 같았을까요. 빨리 돌아가실려고 그토록 열심히 수화를 만드셨는지 저희와 같이 만든 수화와 합쳐 모두 100여 불교수화만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수화 덕분으로 어떤 불교 강의라도 모두 통역을 할 수 있고 농아인들도 잘 알아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들은 선천적인 장애는 드물고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인 장애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모 형제의 모습일 수 있으며 나 자신 또는 내 자식, 손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수화를 배우는 정상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저도 저와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사람을 찾을려고 11년전 부산에서 처음으로 수화교실을 열었는데 천주교 신자인 한 여성이 와서 수화를 배워 현재 가톨릭 재단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우리농아인들을 잘 지도하고 계시고 기독교인도 수화를 배워 교회에서 농아인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저혼자 뿐입니다. 수화는 시각언어이기 때문에 기초수화를 배워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수화를 배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 했는데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그들이 필요한 곳에 제가 있어주는 것이 제가 할일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서 법원에도 가야 되고 형제끼리 싸우면 그집에 가서 수화통역해야 되고 병원 학교… 장애인의 날에 KBS, MBC에서 가끔 수화통역도 했습니다마는 저의 손을 기다리는 곳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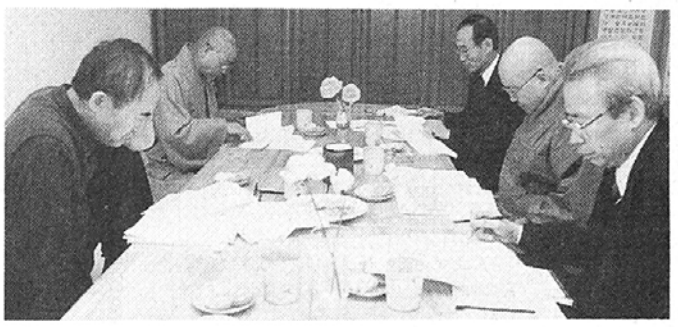
지난 7월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농아인들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부산 남부운전 면허시험장에서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농아인에게 강의하는 통역이 제게 맡겨졌습니다. 농아인들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완벽한 문장 구성을 잘못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운전면허필기시험에서 합격률이 10%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인 수화로 문제지를 읽어주어야만 운전면허도 쉽게 취득하리라 생각됩니다. 불교를 만난 기쁨으로 부처님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코저 감사의 마음 하나로 출발한 일이 지금은 이일을 하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는 엄청난 용기로 커졌습니다.

우리 농아인들이 전국 어디서 오더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거기서 능력껏 작업도 하고 정보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열도록 하고, 생산된 물건을 팔아 그 이익금을 그들에게 전부 돌려주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농아인 자녀를 맡아서 언어지도를 해 주는 탁아방과 언제 누구든지 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육장이 붙어 있는 농아인들의 공간 그곳에서 소외받는 농아인들과 가족이 되어 생을 같이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곳에 오는 농아인들이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그들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농아인 포교사를 배출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바쁘기만 했지 실질적인 큰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에 가장 맞는 불교수화를 연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해서 농아인들이 부처님의 자랑스런 제자가 되어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정상인 여러분들도 건강한 몸을 나눠 써 주세요. 그들의 벗이 되어 주세요. 절을 짓고 탑을 쌓고 부처님 몸에 금물 입히는 일도 우리불자들이 해야 할 일 이지만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이 본래 부처임을 자각케 하여 그들이 맑고 밝은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함은 물론 다시 그들이 그들의 주위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도록 불당기는 일에 동참합시다. 우리 백화도량 농아불자 60여명중 30여명은 결혼 직장 등의 이유로 타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30여명의 농아불자들도 성불사에서 모이던 법회장소를 교통좋은 통도사 부산포교원으로 지난 11월 26일 옮겨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정기법회를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신심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뛰는 능력을 두루 갖춘 불자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그들에게 조금만 나눠 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림 신행수기공모 당선작은 61호부터 모두 연재, 지상발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이 공모한 신행수기에는 모두 105편이 응모, 이중 본심에 오른 20편의 작품들이 심사위원의 심의를 받고 있다.

심사평

'내생을…' 헌신적 포교 감동
기복 치우친 작품많아 아쉬움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기념하여 신행수기를 공모했던바 모두 105편의 신행수기가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서 예선을 통과한 20편이 본심에 넘어왔다. 우리 심사위원 전원은 20편의 예선통과 수기 가운데서 재가불자의 신행수기만을 심사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해구스님의 〈나의 작은 아이들〉과 변근희 행자의 〈고통이 없는 곳으로〉 두편을 심사대상에서 보류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면에 게재하는 예우를 신문사측에 부탁하였다.

노윤택 불자의 〈자식을 잃고 만난 불법〉은 소재는 참으로 좋았으나 구성과 문장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고, 나머지 수기들 가운데는 지나치게 기복적인 면에 치우친 작품과 기복에만 매달리려는 모습들이 보여 아쉽기 그지 없었다.

이희명화 불자의 〈저 너머에 행복이〉, 김영미불자의 〈소중한 만남〉, 강주수 불자의 〈내 생을 장애인과 함께〉를 만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고 목영태 불자의 〈아내의 정성과 부처님 가피〉도 기복적인 흠이 있으나 좋은 작품이었다.

우리 심사위원 전원은 장시간 검토에 검토를 거듭한 끝에, 장애인 포교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강주수 불자의 〈내 생을 장애인과 함께〉를 가장 뛰어난 수기로 뽑았고, 그 다음으로 자폐증에 걸린 딸을 둔 어머니의 진솔한 신행수기를 쓴 김영미 불자의 〈소중한 만남〉과 어린이법회에 자원봉사 교사가 되어준 이희명화 불자의 〈저 너머에 행복이〉를 비롯 청정월 불자의 〈한마음의 등불〉, 노윤택 불자의 〈자식을 잃고 만난 불법〉과 목영태 불자의 〈아내의 정성과 부처님 가피〉를 우수작으로 뽑았다. 이번 심사에서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감동적인 수기를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또 내년을 기대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위원장 고은 〈시인·본지 논설고문〉
채인환 〈동대 교수〉
법산스님 〈동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윤청광 〈방송작가〉
김광삼 〈본지 발행인〉
최정희 〈본지 편집국장〉

"부처님 개금·탑 쌓기도 좋지만 건강한 몸을 나눠 써 주세요"



와 주어야만 합니다.

당선소감



"불교수화 만들어 불법 전하고파"

그간 많이도 울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나만 쳐다보는 농아인 불자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불쌍했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들이 안타까와 울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상을 불교수화 만드시다가 먼저 가신 법성스님께 바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마와서 겁없이 이 일에 뛰어 들었습니다.

제가 스님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화도량 불자 모두는 엉터리라는 소리도 들었고, 저희들이 서울에 살지 않고 부산에 산다고 여태껏 써온 불교수화들을 사투리 수화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농아인 세계에 발을 딛고 보니 그들을 위하는 일은 그들의 사는 모습을 정상인들에게 알리는 일과, 진리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뜻에 맞는 불교수화를 만들어 불법을 전하고 이 일에 동참하는 뜻있는 분들을 지켜보면서 이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소외 받지 않고 함께 잘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 — 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한 마 음 선 원

■ 본원
주 지 : 혜원 스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신도회장 : 명 을 식
☎ 0343-72-3100

■ 금왕지원
지원장 스님 : 무애 스님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산 5-2
신도회장 : 정 용 재
☎ 0446-877-0462

■ 제주지원
지원장 스님 : 혜묘 스님
제주 제주시 영평하동 1500
신도회장 : 문 경 행
☎ 064-21-4662

■ 부산지원
지원장 스님 : 혜도 스님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521-1
신도회장 : 남) 이하경 여) 박성빈
☎ 051-403-7077

■ 광주지원
지원장 스님 : 혜월 스님
광주시 서구 치평동 201-5
신도회장 : 김 희 남
☎ 062-375-9986

■ 아산지원
지원장 스님 : 청일 스님
충남 아산시 실옥동 5통 52-6
신도회장 : 이 우 진
☎ 0418-44-1464

■ 울산지원
지원장 스님 : 혜안 스님
경북 울산시 중구 태화동 13블럭 92노트
신도회장 : 황 경 환
☎ 0522-44-0884

■ 대구지원
지원장 스님 : 혜계 스님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05-22 대광빌딩 7층
신도회장 : 김 우 룡
☎ 053-426-2779

■ 마산지원
지원장 스님 : 혜진 스님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2동 405-107 3층
신도회장 : 양 호 성
☎ 0551-42-6638

■ 진주지원
지원장 스님 : 혜근 스님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신도회장 : 이 병 용
☎ 0531-746-8163

■ 대전지원
지원장 스님 : 혜능 스님
대전시 동구 추동 440-9
신도회장 : 윤 여 형
☎ 042-274-0891

■ 포항지원
지원장 스님 : 혜문 스님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신도회장 : 현 수 훈
☎ 0562-75-3163

■ 청주지원
지원장 스님 : 혜천 스님
충북 청주시 봉명동 833
신도회장 : 남) 한정교 여) 박상애
☎ 0431-273-6946

■ 강릉지원
지원장 스님 : 혜인 스님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89
신도회장 : 권 오 윤
☎ 0391-651-3003

고은 불교 대하소설



59

윤회의 발전에 의해서 도달하는 수미산이야말로 구도자의 궁극일 터이나 궁극까지도 다 무너지리라

이 긴 소설은 조선 후기의 한 방랑승 인담의 기연(奇緣)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분명한 조선시대의 사람이면서 어느날 꿈에 나타난 고려의 선승 담인을 스승으로 삼아 그의 제자가 된다.

스승과 제자는 시공을 초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스승 담인의 분부를 꿈속에서 받은 인담은 경기도 북부의 한 산악 암굴에 찾아가 그 암굴에 비장되어 있는 '서하문집'이라는 서책을 찾아낸다.

그것은 바로 고려의 불우한 천재시인 임춘의 것이다. 그러니까 임춘은 그가 죽은 뒤로도 몇백년동안 그의 시문(詩文)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다른 시인들을 통해서 겨우 몇편만이 알려졌을 뿐이었다.

지금까지의 줄거리

바로 이 시인의 문집을 스승에 의해서 찾아낸 인담은 그동안의 호서지방 방랑을 끝내고 서해안의 한 무인도인 무욕도에 건너가게 된다.

그가 이곳으로 오게되는 과정에서 끌려가는 여자를 구해서 그 여자와 함께 무욕도의 도량을 개척한다.

남녀가 한 섬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일은 곧 부부가 되는 것을 뜻하겠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두 사람은 철저하게 이성간의 차별을 넘어 하나의 도반(道伴)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만화 남각 무전 과현 수원 수월 그리고 임춘의 후신인 불이들이 무욕도에 합류한다. 이들은 남자이다. 그래서인지 합두라는 아름다운 과부가 이 무욕도 도량의 식구가 되어 인담이 처음에 데려온 우녀와 함께 두사람의 여자로 되는 것이다.

이들은 출가자의 신분이 되었으므로 차츰 그들 자신들의 규범을 이루어가며 삭발한 수행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육지에서 이들의 수행을 돕는 재가자들이 생겨났다. 굳이 견줄 수 있다면 2천5백년전의 사카 원시교단의 그것과도 일치하고 있다.

무욕도는 오랫동안 그 일대의 해류가 거칠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았을 뿐인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마실 샘물이 있었고 무엇보다 숲이 울창해서 땔감도 넉넉한 편이었다.

그곳에서의 수행은 점점 본격적으로 되었다. 특히 우녀는 놀랍게도 인담을 능가하는 것 같은 영감(靈感)에 차 있는 자혜를 번뜩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힘이 한창이던 무렵 이윽고 무욕도는 하나의 결사(結社)를 이룩하여 간화(看話)와 묵조(默照)에 구애받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혹은 난파선의 어부로서 혹은 해안의 물에서 하나하나 이곳에서의 삶에 가세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러나 아직 대중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개성을 녹이지 못한 상태이므로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뿐아니라 무욕도의 공간과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공간이 합치되지 않을 때는 그곳을 떠나려는 생각들이 고개를 들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러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 생각이 가라앉은 뒤 전혀 다른 것으로 발전해서 사람들의 커다란 포부도 되는 것이다. 그 포부는 각각의 업(業)에 따라 다채로운 것으로 된다.

무욕도 도량은 온통 파도소리와 바다냄새로 이루어진 곳이다. 아니 그곳은 하나의 커다란 배처럼 바다 가운데 떠있는 섬이다.

그렇다면 이 바다에서 살고 있는 갈매기들이나 바다 밑의 고기들 그리고 바다 위의 수많은 높고 낮은 파도들도 차라리 이 무욕도의 대중들인지 모른다.

이같은 사실은 선당(禪堂)이 산중에 있다는 통념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좀 낯선 것이기도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서산 간월암(看月庵)을 소설 속에서 변화시킨 바다의 도량인 것이다. 아클테면 그 간월암의 만공(滿空)선사를 복수화(複數化)함으로써 새로운 구도(求道)의 가능성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공부로 이곳 사람들이 일정한 경지를 얻은 뒤의 자유로서 저마다의 포부를 실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갈등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그 자신의 선택일 따름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선택한 사람에게 부딪친 사건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이를테면 무욕도에서 맨먼저 떠나는 사람이 무전인데 그는 죽은 뒤에 그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갈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생사를 그 자체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생사를 무한한 수행의 과정으로 파악하는데서 그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무전이 죽은 뒤 다른 세상의 중생으로 태어난다. 심지어 그는 고기 속의 내장에 박혀있는 벌레가 되기까지 한다.

그런가하면 만화는 생전의 그 성정(性情)과는 달리 대번에 천상계에 태어나 도솔천 외원(外院)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천상계에서 사는 복락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복락을 다한 뒤 다른 세상으로 갈때는 그동안 누린 복락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는 것 같은 고통의 과정을 지내야 하는 것이다. 천상계의 만화는 바로 이런 일을 앞두고 날마다 즐겁기만 한 천상락을 누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남각은 그의 발원(發願)대로 이 아니라 이승으로서의 다른 지역, 즉 육지로 건너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각각 건너간 그들은 어느만큼 가서 극적으로 만나지만 또한 그들의 운명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무욕도는 인담과 우녀 정도로 남아있어야 하였다. 파도소리가 한층 더 힘을 내고 있었다.



무욕도의 수행자들은 저마다의 세상을 그들 자신의 발원과 업보에 의해서 편력 하고 있다

그리하여 무욕도의 수행자들은 저마다의 세상을 그들 자신의 발원과 업보에 의해서 편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옥계라 하더라도 인간계의 지상 지옥을 무대로 삼는가 하면 이승을 떠나는 형식을 이승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메우는 자유분방한 행로(行路)를 제시할 때와도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이승을 떠도는 자들이나 곧 떠돌지도 모르는 무욕도의 잔존인물들과 함께 바로 이러한 무욕도 도량의 시절도 장차 사라질지 모르는 징후가 있었다. 그것은 서산땅의 한 어린 계집아이가 신들린 듯이 곧 세상이 불길에 덮인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어린이의 발언치고는 섬뜩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이치에 의해 하나의 심이 어떤 지각운동에 의해 솟아날 수도 있고 영영 물속 깊이 가라앉아버릴 수도 있다. 아니 화산으로 폭발해서 파괴될 수도 있다.

이같은 자연의 체험에 의존해서 인류의 삶이 등장한 것이므로 이런 운동이 뒤늦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소설은 소설 제목 그대로 수미산의 세계를 그 무대로 삼는다. 그것은 사바세계 남섬부주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 군데 역시 크게 보아 수미산의 한 부분인 것을 뜻한다.

'구사론(俱舍論)'을 소승불교의 한 이론이라고 구분하는 것을 떠나서 이미 화엄경에도 다른 대승경전의 여기저기에도 심지어 선종에서도 수미산은 언제나 떠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세계인 것이다.

이미 이승을 떠나서 다른 세상의 6도(六途)를 윤회하는 그 전생(轉生)의 수고를 통해서 우주의 공간을 확대하는 일이 이 소설의 부분적인 의도이기도 하다.

엄밀히 말해서 이 소설은 여느 소설형식과 다르다. 소설의 구도가 미리 짜여진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수시적(隨時的)인 행위가 곧 소설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되고 있다.

또한 이 소설에는 고정된 주인공이 없다. 주인공이 있을진대 그것은 궁극적으로 수미산 자체이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수미산 자체의 위용(偉容)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각 인물들이 하나하나 갖가지 시련과 고통 그리고 환희로 뒤범벅이 된 구도의 길을 걸어서 수미산 밑에 모일 때에만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수미산은 구름 조차도 녹아버린 추상일 따름이다.

이제 무욕도에 남은 사람들이 무욕도의 최후와 함께 다른 세상을 향하게 되면 이 소설은 사바세계의 현실로부터 떠남으로써 하나의 무형(無形)의 심식(心識)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담 우녀까지도 인간으로서의 구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령과도 같은 아니 외계인과도 같은 존재의 유연한 동작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확인시켜 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이 소설 1백회 이상의 절반에 이르기까지는 바로 수미산의 우주로 승화되기 위한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현실이었다.

이같은 형이상학은 서구 기독교문학의 전형으로 본다면 매우 단태적(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신곡(神曲)'의 단순한 구도와는 처음부터 어긋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차의 인담 우녀 만화 남각 합두 무전 과현 수월 수원 불이 그리고 그밖의 인물들이 다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인도, 중국 한반도 등의 역대 조사들의 시적(詩的)인 발언들이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미산을 지향한다 한들 그 시원은 사바세계의 한 군데인 무욕도이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 회로 이어지는 것이 불이와 합두의 아귀계에서 일어나는 애욕의 불덩어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이야기는 새로운 차원을 요청할 것이 틀림없다.

이제까지의 용맹정진을 계속한 무욕도가 없어지는 대신 윤회 자체를 일상적인 정진의 도량으로 삼고 그 윤회의 발전에 의해서 도달하는 수미산이야말로 구도자의 궁극일 터이다.

그러나 그 궁극까지도 다 무너지리라.

그림 · 조항숙

생활 속의 불교 ⑤⑥

무지개는 본래 일곱 색깔이 아니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을 띤다. 햇빛이 공기 중의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일곱 가지 색깔로 나뉘어져 하늘에 수를 놓은 것이 무지개이다. 빛이 프리즘과 같은 분광(分光) 장치를 통과하면 똑같이 선명한 일곱색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색을 일곱 가지로 받아 들인다. 그러나 빛은 일곱 색이 아니다. 다만 사람의 눈에 일곱 색으로 보일 뿐이다.

사람의 눈은 적외선, 자외선을 볼 수 없다. 또 너무 가까운 것, 너무 먼 것도 볼 수 없다. 귀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정한 영역에 속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 소리의 파장이 아주 길거나 짧을 경우 사람들은 소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코끼리는 자기들끼리만 알아 듣는 저음을 낼 줄 알고 박쥐는 또 기계장치로나 포착 가능한 극초단파로 통신을 한다.

따지고 보면 사람이 오관을 통해 감지하는 바깥 세상의 모습은 그 전부가 아니라 한 귀퉁이에 불과하다. 빛의 극히 일부분만을 볼 수 있고 소리의 일부분만을 들을 수 있다. 냄새·맛·감촉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았다고 하는 것, 내 두 귀로 분명히 들었노라고 하는 것이 실은 참이 아니다. 그러니 오관을 통해 주워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식의 작용이라는 것도 따져 보면 왜곡된 것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받게 되는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다.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자면 많은 양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엄밀히 따져보면 진리, 또는 그에 가까운 것보다는 왜곡된 것이 대부분이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교육이란 이 세상의 실체를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방법·투쟁의 방법을 배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갈등·분쟁·폭력·범죄·전쟁 따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다.



진리라는 측면, 궁극적인 실체의 입장에 서면 인간은 '가짜'라는 이름의 신을 믿고 '가짜'라는 이름의 종교에 빠져 사는 셈이다. 귀머거리, 장님이나 다름 없고 고작해야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은 진정한 눈뜸, 귀 열림을 그토록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깨달음의 자리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누구나 통 속에 갇혀 살고 온산철벽에 둘러싸인 꼴이니 어찌 애통해하지 않겠는가.

'나'를 앞세우는 한은 보고 듣는 것이 모두 가짜요, 배우는 것도 모두 가짜이다. 사랑한다는 것도 가짜 사랑이요, 베풀고 나눈다는 것도 가짜 베풂이다.

그러기에 불법에서는 눈 없는 눈으로 보고 귀 없는 귀로 들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무주상의 삶이어야 비로소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한다. '나'가 빠져야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으며 바른 배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한 '나를 죽이는 일'—아상·아만·자존자대·자기사랑을 멈추는 일만이 진정으로 배우고 노력해야 할 우리의 목표인 것이다.

무지개는 본래 일곱 색이 아니다.

협찬: 정 진 이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바라밀 포교원

신도회장 양수명

신도일동

▶전화 : 051) 633-6413

귀 달리는 법당
부산불교운전기사회

회장 백 봉 도

▶주소 : 부산시 남구 대연동 광진가스 충전소
▶전화 : 051) 624-2207

산사선행회

회장 이 숙 향

▶주소 : 부산시 남구 대연5동 1364-7 (4/5)
▶전화 : 051) 627-8334

부산 불교 신용협동 조합

이사장 사상호

▶전화 : 051) 633-9120

재가불자 수행도량 부산불교 교육원

총 재 대성스님
법 사 성 재 도
법우회장 진 상 실

대중 일동

▶전화 : 051) 466-4080

여성 불자회

회 장 왕 선 자
고문스님 김 혜 응

▶전화 : 051) 817-3166
806-6718

전법, 도생, 정진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이 하 우

교직원 일동

불자신용카드사업단

본부장 박 주 천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 (051)818-8659 / FAX:807-7351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
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대한불교 조계종 천불사

주 지 허도봉
신도회장 허보은 합장

▶주소 : 경남 양산군 웅상읍 매곡리 304번지
▶전화 : 0523) 82-1463 / 팩스 : 0523) 84-6541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步 登一段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회 장 김 정 태
고 문 강 병 중
상임부회장 서 춘 석

부 회 장 조 영 준
부 회 장 백 봉 도
부 회 장 최 참
부 회 장 최 용 원
부 회 장 김 윤 환

감 사 정 호 철
감 사 박 수 복
총무이사 박 영 근
재정이사 배 영 호
특별사업이사 김 진 석

회원 일동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47-14 국제O/T 1805호
▶전화 : 466-7174~5 / 팩스 : 466-7176

부산광역시 불교 연합회

회 장 조 정 관
수석부회장 변 춘 광
상임부회장 김 월 강
사무총장 이 혜 총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양정 3동 393-12
▶전화 : 051) 867-0501~3 / 팩스 : 051) 867-0504

사단법인 부산불교신도회

회 장 류 진 수
상임부회장 임 채 수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B/D 7층
▶전화 : 464-2020 / 팩스 : 464-4786

부산불교 자비원(자비의 전화·무료 법률 상담) 원장
사회복지법인 대각자비원 이사장
부산불교대학 학장
봉래산 미룡사 주지

김 정 각

자비원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13-4
▶전화 : 051) 461-0009, 465-8307 / 팩스 : 051) 441-2719

미룡사 ▶주소 :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전화 : 051) 404-4300 / 팩스 : 051) 404-2100

불교 전시관

1층 서적·불구·테이프·초파일 용품
2층 서적
3층 불상·탱화

대표 조 재 원

▶주소 : 부산 광역시 동구 범일 2동 330-152번지
▶전화 : 051) 647-7393, 632-7393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대흥공업주식회사
대한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류 진 수

▶ 전화 : 0525) 45-6391 (대표)
▶ 팩스 : 0525) 45-6070
▶ 주소 : 김해군 진례면 청천리 607번지

신년특집

불교문화계 전망



개방화시대…문화포교 활로 찾는다

문화시장이 활짝 개방됐다. 출판유통시장과 음악교육, 공연장·운영업 등이 부분 또는 완전히 개방되는 등 바야흐로 세계 문화개방시대에 들어섰다.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문화 전쟁시대를 맞아 불교문화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올 한해동안 장르별로 새로운 활로모색과 저변확대를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학관련 단체들이 지방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편집자 주〉

문 학

'문학의 해'인만큼 불교문학의 활성화도 특히 기대되고 있다. 이제껏 불교를 중심테마로 작품활동을 해 온 작가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작품발표 계획을 밝히지는 않지만 백금남 남지심 황충상씨를 비롯한 작가들이 작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승려시인회도 올 한해 동안 활동의 영역을 넓혀 시집 묶기와 낭송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학의 해와 불교문학의 활성화를 한 테두리로 묶어 '희망적'이라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미술의 해에 불교미술인들이 개별적인 활동을 왕성히 보였으나 미술의해 조직위와 연계한 행사를 갖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문학

지방 소그룹활동 '관심'

장르 다양화 통한 질적향상 기대

인들도 문학의 해란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의 활동을 펴 나갈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짜여진 불교문학의 큰 기류가 얼마만큼 지방화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곤란한 형편이다. 지방문인들의 활동이 문학의 해라고해서 일약 왕성해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불교문학단체들이 지방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또 고려·조선시대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시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 선시에 대한 대조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불교시선집 등의 출간으로 불교문학을 둘러싼 담론의 형성도 기대된다.

한편, 불교문학을 수용할 본격 문학지의 태동이 올해에 불교문학계가 이뤄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출 판

지난해 불서신간 발행종수는 160여종으로 94년(301종)에 비해 60% 수준에 머물렀다. 그만큼 불황에 시달렸다. 불서출판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이 올해라고 특별히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전반적으로 책을 읽지 않는 불교내의 분위기, 하강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경제전망을 그 이유로 든다. 여기에다 정치적으로 총선까지 있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서전문출판사들은 학술서 교리서보다는 법어집 수상집 등 비교적 독자층이 넓은 불서에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불교학술서를 주로 펴냈던 민족사 불교시대사는 〈인물고승평

법어·수상집 독자 확보

저작권법 개정 학술서 번역 위축

전〉〈세계고승법문집〉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57년 이후 사망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을 소급보호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개정 전에는 87년 이후 외국저작물만 저작권을 보호했다)됨에 따라 저작권료의 추가부담이 따르는 학술서 번역출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에는 젊고 참신한 필자의 불서가 여러 종 선보이며 필자의 세대교체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는 또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하고 청소년포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키로 함에 따라 청소년 대상의 불서출간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미 술

지난해가 '미술의 해'였던 관계로 불교미술인들의 활동이 왕성했지만 그러한 기류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미술계가 지난해에 다진 기반을 토대로 활발할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진단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그룹전이나 특별 이벤트보다는 개인적인 전시회나 해외에서의 활동 폭이 넓어질 것'이라게 미술평론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고조와 실천의 마당 넓히기에 동참하는 작가들의 활동도 주목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그 좋은 예가 지난해 10월 민족환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회(회장 강행원, 이하 환불연)의 발족이다.

창작영역 폭넓게 모색

전통불교미술 현대적 해석 늘듯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어 환경을 보호, 사랑한다'는 의지로 결성된 환불연은 그 실천의 하나로 오는 5월10일 서남미술관에서 생태환경미술제를 개최해 환경미술운동의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된다.

고정 장르를 벗어나 창작의 영역을 다양화시키려는 것이 미술계의 동향이란 점에서 불교미술가들의 소재 다양화, 전통불교미술의 현대적 해석등에 대한 시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미술계는 굳이 서울중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산, 광주, 전주,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 불교미술인들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종교인들의 불교소재 접근도 눈여겨 볼만.

음악·연극

불교음악 무대에도 올 한해동안 열기가 모아질 전망이다. 불교방송의 찬불가 100곡 창작이 완료된 것과 관련한 대형 무대가 연초에 기획돼 있고, 불광사 회주 광덕스님과 박범훈교수(중앙대)가 창작할 대형 교성곡 '부모은중송'이 4월경 무대에 오를 계획이기 때문이다. 교성곡 '부모은중송'공연은 박범훈교수가 91년 '불사' 92년 '보현행원송'에 이어 세번째로 선보이는 곡으로 2악장의 합창곡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연이은 대형무대의 조성은 불교음악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르와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각 사찰의 합창단과 젊은 불자음악인들의 활

찬불음악 대형무대 '붐'

불교연극 침체지속…불교희곡 '눈길'

동무대 넓히기, 개성있는 불교 대중음악 만들기에 대한 열의도 일정부분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극의 경우는 여전히 침체상황을 깨기 힘들 것이란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다만 일반 극단이 얼마만큼 불교적 소재를 다룬 공연을 준비할 것인가에 불교연극의 분위기가 묶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작년 한해동안 신명예술단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서울연극제 희곡심사작에 올랐던 '끽다거', 글로리아 오케라단의 '원효'등 불교적인 소재를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던 각 일반극단이 작년과는 대조적으로 금년의 계획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문학의 해란 범주 속에서 관심을 끌 만한 불교관련 희곡이 어느 정도 눈길을 끌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영 화

96년은 오랜만에 불교영화의 전성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암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시네아트), 불교의 자비사상을 주제로한 통일영화 '카루나'(일목필름), 구도영화 '유리'(하명중영화제작소) 등이 개봉된다.

94년 가을부터 촬영된 만암스님 일대기영화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감독 황학봉)는 내년 초파일 개봉될 예정. 또 불교의 자비사상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되는 영화 '카루나'(감독 이일목)는 분단 50년을 결산하는 '통일한국' 염원의 민족 대파노라마로 2월29일 개봉된다.

'유리'는 상업성을 배제한 예술지상주의를 표방

불교영상 전성기 전망

'카루나' '유리' '마지막…' 등 속속 개봉

하고 있는 작품답게 해외영화제 출품을 겨냥하고 있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후 해외영화제 수상이 예상된다. 20대 젊은 불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뛰어든 이 작품은 영화형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통쾌, 충돌, 광기, 색욕, 고행을 아무런 덧칠없이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영화계에 충격을 준 작품이다.

이들 영화들은 뛰어난 작품성과 파격적인 신선한 표현 그리고 꾸준한 제작으로 불교영화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꾸준히 영화화가 거론돼온 성철스님의 일대기 '산은산 물은물'(금산영상사업단)이 9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화 영험담

神通

사업 실패, 이혼, 실종, 사고, 정신질환 등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혜윤스님/저

길 잃은 자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밭이 되고 병든 자에게 양약이 되고 어리석은 중생에게 지혜의 샘이 되는 혜윤스님의 실화 영험담!



지금 곧 체험해 보십시오!

질병 가난 고뇌에 빠진 가정의 등불

이 책을 펴는 순간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죽은 후의 세계가 왜 두려운가를 ——. 소름 끼칠 귀신들의 작태, 원한 맺힌 영혼들의 해꼬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밝혀 준다. 이렇듯 한 많은 원혼을 달래어 극락에 보내주고 시달린 가정을 건져주는 혜윤 스님의 신통력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귀신의 작용! 마침내 부처님의 법력으로 파헤치다.

신국판/312쪽/반양장
값 6,000원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



정마

주소 131-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730-13
전화번호 925-5730~1, 팩시밀리 925-5731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한국철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던 고형곤 박사의 역작!!

增補版

선의 세계

高亨坤 著

제1권
서양철학과 禪
제2권
한국의 禪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저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선(禪)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드디어 현대어로 완역

摩訶止觀
大止觀坐禪法
대지관좌선법
전5권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을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석가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방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述
空綠 金無得 註釋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올해는 문학의 해

신년특집

올곧은 사유로 '정신 황폐화' 계도

소비 대중문화 거셀수록 '성찰문학' 역할 높아져

구도주의·용맹정진 이념 표상화 작업 나설때

'미래사회와 불교문학'

평론가 진단



김 선 학

〈동국대교수·국문학〉

효율위주 문화에 떠밀려

서구에서 금세기 초부터 시작된 현상이 반세기가 훨씬 지난 70년대 중반에 한국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의 굴레를 벗어나면서 동족상잔의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겪은 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종전까지 누려왔던 문학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정신을 거치면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았던 문화의 중심축이었던 문학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현상이 그것이다. 60년대 이후의 개발독재는 '조국 근대화'라는 말로 압축되는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였다. 그것만이 삶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되었다. 3차까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물신화의 가치관이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신적인 상부구조의 가치관보다는 경제생활에 근거한 하부구조인 물질만능의 가치척도가 한국인 심성에 자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소비가 중심이 되는 대중화 통속화의 문화적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전파매체 혹은 영상매체 그리고 레저 중심의 문화적 다변화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진실로 인간과 삶, 현실에 고뇌하는 문학은 이런 문화의 다변화 현상속에서 문화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88서울올림픽은 이러한 문화의 대중화 통속화 혹은 일반화 현상과 문학이 문화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화가 대중화 되고 문화적 현상이 다변화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면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레저 중심의 소비문화가 문화의 중심축이 될 때 문학과 같은 고급문화를 대중문화의 속악성이 짓누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70년대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문학의 상업주의는 이같은 현상과 우려 속에서 나온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19세기 말 산업화 사회로 이행하던 때의 영국을 매슈 아놀드가 '교양과 무질서'로 질타했던 사실에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학이 문화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현상은 때로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 시키기도 한다. 모든 대중적이고 속악한 통속적 문화현상은 대중적임으로 하여 영향력을 보다 폭넓게 행사하게 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지만 올곧은 존재와 현실에 대한 성찰과 사유로부터 비켜서게 만든다. 첨단과학, 정보통신, 영상매체에서 비롯하는 삶의 질 개선에 언제나 봉사하려는 의도를 갖게 된다. 그러나 그 질의 향상은 대중적이고 일반적이며 물질적인 것에 치우칠 뿐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탐구나 삶과 현실 속에서 인간 존재가 물질로부터 소외되어 영혼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에는 맹목한다. 과학이 인간에 봉사하기보다는 인간이 과학에 맹종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첨단과학, 정보통신, 영상매체로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다가올 시대의 문화적 현상을 정보화 시대라고 부른다. 정보는 무엇으로 전달되는가, 그것이 언어로서 전달된다고 한다면 이 경우 언어는 다만 전달기능을 가진 기호에 다름 아니다. 언어가 전달기능만을 가졌다면 언어를 절차탁마하는 문학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언어가 전달의 기능 외에도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언어가 이념 그 자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이다. 언어를 전달기호로만 인식하는 것은 지나친 효율성 위주의 물질적 발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바흐틴은 '언어는 이데올로기'라고 단언한다. 이러한 논의는 전달기능 이상의 무엇을 애당초 갖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언표들이다. 언어에 대한 이같은 논의가 언어의 전달기능과 함께 검증되고 천착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야만 정보화 시대에 있어 문학은 문화의 주변부에 자리하지만 제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가치관 정립 밑거름 돼야

정신주의는 물질주의에 대응되는 용어이면서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말이다. 동시에 세기말에 접어든 오늘의 물질만능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정신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머금고 있기도 하다. 문학이 문화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지만 문학은 망가지고 황폐화 되어가는 영혼을 정신주의의 추구로서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문학은 대중성과 통속주의의 속악성에 황폐화 되는 영혼의 참모습을 지켜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의 이념으로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문학은 다만 소재를 불교적인 것에서 구했다거나,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인간구원을 주제로 한 것이라는 소승적인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질주의에 대응하는 정신주의, 물질주의의 물신화를 극복하는 인간영혼의 쟁투와 그 사유의 흔적을 언어에 인각시키는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은 언어로서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일차적인 뜻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로서 바르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파악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문학이 문화의 주변부로 밀려난 마당에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이며, 불교문학이 소승적 울타리를 벗어나 정신주의의 극한을 언어로써 어떻게 자리잡게 해야 할 것인가를 뼈저리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일과 삶과 현실에 대한 올곧은 사유의 자리로 인간이 돌아올 수 있게 언어 그것을 불교의 구도주의와 용맹정진의 이념으로 표상화해야 할 것이란 생각의 연장에서 또 한번 불교문학의 존재를 떠올리게 된다.

산업화, 물신화 시대의 세기말 문화 주변부에서 기가 죽은 한국문학의 모습. 그것을 소생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불교문학의 가능성에서 찾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싶다.

문학의 해

근대문학관·번역원 설립등 22개사업 전개

'96 문학의 해' 사업계획안이 발표됐다.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서기원)는 문학기반 조성, 학술 및 자료조사, 문학창작 활성화, 홍보 및 기념품 제작 등 4개부문 22개 사업을 전개한다.

문학기반 조성사업은 창작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할 근대문학관 및 문학의 해를 기념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문학적 정서를 진작키 위한 근대문학 백년탑 건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국문학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번역원을 설치키로 했으며, 정보통신을 이용한 문학통신망의 설치, 한국근대문학 100년 CD-ROM 제작, 한국문학작품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한다.

학술 및 자료조사 사업으로는 각종 국제적 규모의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학지도 및 한국문학인명록을 발간키로 했다. 문학창작 활성화 사업 부문에서는 국내외에서 한국어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한민족 문학인대회 개최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조직위는 특히 북한의 문인도 세미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할 방침이다. 이밖에 문인 종합예술제, 작고·원로문인 육필 전시회, 동인지 콘테스트, 국제 시낭송대회, 문학캠프 등도 열기로 했다. 또 TV를 통해 한국 문학전집을 방영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라는 공식표어와 흰색 바탕에 청색으로 디자인한 공식 휘장을 선보이고 있는 조직위는 문학의 해 홍보 및 기념품 제작사업을 통해 포스터, 스티커, 현수막 등을 점차적으로 제작, 배포키로 했다. 아울러 조직위는 박건호 작사, 문지환 작곡의 '문학을 꽃 피우자'라는 제목으로 로고송을 확정, 문지환·정미영의 음성으로 홍보한다.

〈필〉

1월의 문화인물

서포 김만중



96년 1월은 문화체육부가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김만중의 달이다.

김만중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호는 서포(西浦), 시호는 문효(文孝)다.

조선조 예학의 대가인 김장생의 증손이요, 충렬공 익겸의 유복자이며, 광성부원군 만기의 아우로 숙종의 초비(初妃)인 인경왕후의 숙부인 김만중은 아버지인 익겸이 정축호란때 일찍이 순절한 이유로 어머니의 남다른 가정교육에 힘입어 성장했다.

그 좋은 예로 궁색한 살림 중에도 자식들에게 필요한 서책을 구입함에 값의 고하를 물지 않았고, 또 이웃에 사는 홍문관서리를 통해 책을 빌려내어 손수 등사하여 교본을 만들었다. 또 〈소학〉〈사략(史略)〉〈당률(唐律)〉 등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가지 면들, 즉 연원있는 부모의 가통(家統)과 어머니 윤씨의 희생적인 가르침은 훗날 그의 생애와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훈도를 받고 14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하고 이어 16세에 진사에 일등으로 합격, 1674년까지 헌납·부수찬·교리 등을 지냈다. 그 뒤 시대의 우여곡절을 겪다가 1692년 5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사상과 문학은 이전의 여느 문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말년에 와서 불운한 유배생활로 일생을 마치게 되지만, 생애의 전반부와 중반부는 상당한 권력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득의의 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본디 총명한 재능을 타고 나기도 했지만 가문의 훌륭한 전통 등으로 인해 그의 학문도 상당한 경지를 성취하였다. 그가 종종 주희(朱熹)의 논리를 비판했다든지, 불교적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한 점은 위와 같은 배경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억불의 시대에 불교를 주된 사상으로 창작 활동에 몰입하기도 했던 김만중은 〈구운몽〉을 통해 그의 불교사상적 문학의지를 잘 선보이고 있다. 이재가 구운몽의 대지(大指)를 인생의 부귀공명이 일장춘몽이라는데 둔 바와 같이 김만중의 〈구운몽〉 역시 대승불교의 중심인 금강경의 '공(空)'에 있다. 공이 인생만사를 역설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구운몽〉은 〈금강경〉이 소설화된 하나의 작품이다. 〈구운몽〉은 1월의 문화인물 김만중의 대표적 작품으로, 작품의 뜻과 사상을 재고찰한다는 측면에서 불교 문학계뿐만 아니라 국어학자들의 연구에 지속적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조선후기 문신…주자학 비판 자세

불교사상 바탕둔 '구운몽' 등 창작

1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김만중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3일부터 31일까지 '서포 김만중' 관련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도필선 기자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 — 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명예회장 : 월 탄
회 장 : 혜 총
상임부회장 : 원 성
부 회 장 : 장산, 일우, 지홍, 삼지
감 사 : 정덕, 일면

사무총장 : 지 원
섭외부장 : 이 정
재무부장 : 종 림
기획실장 : 동 성
총무부장 : 도 광
조직부장 : 도 진

특별분과위원회

- 장학포상분과위원회위원장 : 월 탄
- 종책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 보 광
- 언론통일인권분과위원회위원장 : 진 관
- 포교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 성 열
- 복지문제분과위원회위원장 : 시 현
- 법사분과위원회위원장 : 원 명
- 동국학원중흥위원회위원장 : 원 성
  부위원장 : 법 장
- 석림불교아카데미 원장 : 혜 총

사무국장 : 선 종 / 사무간사 : 유 혜 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38 내자원빌딩 6층
전화 : 02-723-5264, 722-2214 / 팩스 : 02-735-6205

대구불교산악회
회장 : 김 장 근
신입회원모집
대구 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84-35 동양APT A동 410호
(053) 954-7233
(053) 743-2554

파 계 사
주지 : 배 도 원
대구 광역시 동구 중대동 7번지
(053) 984-4550

관음사 영남불교대학
주지 : 조 우 학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1동 605-4
(053) 474-8228

불교장의사 지장불교상조개발
가족처럼 모십니다.
불교인의 장례는 불교장의사에서
24시간 전화상담
대구 광역시 남구 대명 2동 1791-6
(053) 654-0055

한국불교연구원 대구 구도회
회장 : 권 오 주
대구 광역시 남구 대명 4동 3052-7
(053) 654-8533

'해롭다' 인식변화…부지런 상징

병자년 쥐에 얽힌 이야기

병자년 쥐띠해가 밝았다. 고유한 우리 풍속에는 정월에 자일(子日)이 되면 이날을 쥐날이라 하여 농부들은 쥐를 없애기 위해 들로 나가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는 쥐불놀이를 하는데 이것은 수확한 각종 곡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세계 각국에 분포하고 있는 쥐는 강한 번식력으로 형태 구조 서식장소가 다양하다. 쥐는 농작물을 손상시키고 병원체를 옮기는 등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해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어 실험용, 관상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모피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험용 이용…생명의학 발달 기여

부처님 본생담 "불길하게 생각말라"

또한 우리나라 속담과 민담에도 쥐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하여 불행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운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며, 도저히 되지도 않을 일을 시킨다는 뜻의 '쥐구멍으로 소몰라 한다'는 등 많은 속담이 전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민담에는 며느리가 쫓겨다니다 어느 대사의 도움으로 쥐로 둔갑한 것을 고양이가 알아내었다는 쥐의 사악을 풍자한 '쥐의 둔갑' 이야기와 '쥐의 사위감 고르기' 등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전해오고 있다.

불교경전 가운데에도 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한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물 당시, 옷으로 점을 치던 한 바라문에 대한 이야기다.

왕사성에 한 바라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느날 자신의 새옷을 쥐가 갉아 먹은 것을 발견하고 불길한 징조라 여겨 내다버리라 했다. 그런데 마침 묘지를 지나던 부처님이 그 바라문이 깨달음의 근기가 무르익었음을 알고, 그를 제도하고자 그 옷을 건네받았다. 두려움에 질린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그 옷의 불길한 징조를 고하며 만류하자 부처님은 그에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우리는 출가한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묘지나 거리, 또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옷들이 알맞다. 그대는 이번 생 뿐만 아니라 전생에도 이같은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하자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그 전생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바라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옛날 마가다국 라자가하에 신분이 높은 바라문계급의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미신을 깊이 믿었는데 옷으로 길흉을 점치고 있었다. 어느날 바라문이 옷장에 넣어둔 새옷을 입으려고 보니 쥐가 갉아먹어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다. 쥐가 갉아먹은 옷을 살펴보던 바라문은 "큰일이다. 점괘가 좋지 않아! 이 옷을 이대로 집에 두었다가는 반드시 우리 집에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도 이 옷을 만질 수 없도록 멀리 내다 버려라"라고 아들에게 명령했다.



숨은그림 찾아보세요

종·연꽃·경전·목탁·주름등·향로·촛불·귀자·발우

바라문이 옷을 버리자 옆에 있던 수행자가 그 옷을 주웠다.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은 그런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길흉따위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기 마련이요, 미혹의 어둠속으로 던져져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진리의 빛을 받으며 미혹의 어둠을 깨뜨리는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깨닫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바라문의 전생에 대해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게송을 읊었다.

"길흉의 징조나 꿈, 관상의 생각들에서 벗어난 이는 이미 미신의 허물을 넘어 더불어 일어나는 번뇌를 모두 항복받고 다시는 나고 죽는 윤회의 몸을 받지 않는다." 부처님은 게송으로 설법하고 나서 다시 말했다. "그때의 그 두 사람은 지금의 이 부자요, 그 수행자는 지금의 나였다." 〈자타카 87〉

이은자 기자

丙子年 불교소사

신라 ▲616년(진평왕38)=신라 승려 안함(安含), 왕명에 의해 법기(法器)가 될만한 자를 선발, 隋에 유학시킴. 7월 진평왕, 奈末竹也土로 하여금 불상을 일본에 보냄. 봉강사에 안치.

▲676년(문무왕16)=2월 의상, 태백산 아래에 부석사 창건.

▲736년(성덕왕25)=법주사 중수.

▲796년(원성왕12)=발징(發徵) 등 31인, 원각사에서 염불 서왕(西往).

▲856년(문성왕18)=원랑대통(圓朗大通), 하정사(賀正使: 정월에 중국에 가는 사신)를 따라 당에 들어감.

▲916년(신덕왕5)=2월12일 낭공행적(朗空行寂), 남산사에서 입적.

고려 ▲1036년(정종2)=5월14일 자식 넷을 둔 사람은 1명의 출가를 허용, 영통사 승법사 보원사 동화사 등 절의 계단(戒壇)에서 소업 경율(所業 經律)을 시험하라고 지시. 5월26일 문덕전에서 기우(祈雨)도량을 5일간 개설. 8월18일 구정(毬庭)에서 승려 1만명을 공양.

▲1096년(숙종1)=9월27일 회경전에서 〈인왕경〉을 3일간 강의, 왕이 몸소 승려 1만명을 공양. 12월18일 혜덕왕사 소현(韶顯) 입적.

▲1156년(의종10)=4월23일 왕이 흥국사에 거동하여 〈화엄경〉을 전경(轉經). 왕자 출생함에 금은자(金銀字) 〈화엄경〉 2부를 사경하여 홍왕사 홍법원을 중수, 이를 봉안하고 흥진원(弘眞院)이라 고쳐 법회를 크게 개설.

▲1216년(고종3)=2월 일본 승려가 건너와 구법(求法). 9월글안병이 묘향산에 들어와 보현사를 불태움.

▲1276년(충렬왕3)=5월11일 왕이 공주와 더불어 흥왕사에 거동, 공주가 황금탑을 대내로 가져감. 윤3월 토번의 승려가 원으로부터 와서 제사(帝師)를 사칭하고 거짓 불사를 함.

676년 의상대사 부석사 창건
1876년 한암스님 화천서 출생
1936년 명성여학교 설립 인가

조선 ▲1396년(태조5)=2월 왜구의 약탈을 피하기 위해 송림사로 옮겨 관리하던 불사리·패엽경(貝葉經)을 보내 대내로 가져옴. 3월 일본 左京權의 대부 多多良義弘, 승려 通竺·永琳을 보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요청.

▲1456년(세조2)=3월5일 승려들에게 잡사역을 맡기지 못하게 함. 10월24일 노산군이 죽자 부인 송씨가 시녀 3인과 정업원에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됨.

▲1516년(중종11)=6월 기일에 개설하던 승재(僧齋)를 폐지. 11월 절의 노비와 토지를 관공(官公)에 귀속시킴. 12월 〈경국대전〉의 도승조(度僧條)를 없앰.

▲1636년(인조14)=청나라의 침입으로 대가(大駕)가 남한산성에 파천하니, 벽암각성이 화엄사에서 승군 3천명을 모아 북상하다가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감. 묘향산 명조(明照)는 의승군을 거느리고 의곡(義穀)을 모아 큰 공을 세움.

▲1696년(숙종22)=쌍운금화(雙運錦華) 입적.

▲1816년(순조16)=12월20일 두월우홍(斗月禹洪), 송광사 천자암에서 입적. 인곡뢰학(麟谷靈學) 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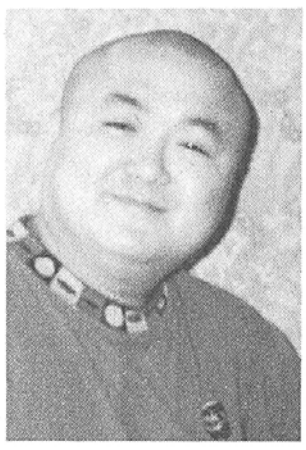
▲1876년(고종13)=1월17일 만암 송종헌, 전북 고창에서 출생. 3월27일 한암 방중원, 강원도 화천에서 출생. 8월28일 서암선기 입적. 10월2일 침명한성 입적. 우담홍기, 〈선문證正록〉을 지어 백파의 〈선문手經〉을 논박. 우담유정 입적.

근대 ▲1936년=1월1일 총독부 학무국 종교과 독립. 1월27일 김대운 입적. 2월19일 경북 5본산 경북불교협회 조직, 심전개발 시위 및 강연. 3월10일 오리산 입적. 4월26일 김동선 금강산 선계사 보광암에서 입적. 5월17일 남천 김한규 입적. 5월20일 명성여학교 설립 인가(교장 최범술). 6월6일 조선불교동경유학생회 駒澤대학에서 발기, 9월20일 창립. 8월 불교신도대회 개최, 학교·교당 분리경영을 결의. 9월 해인사대장경 인출(印出). 11월 대각사 '범어사 경성포교원'으로 개칭.

쥐띠 불자 새해 설계

'코미디 전문제작사' 차릴 계획

개그맨 김형곤씨



"올해는 코미디에 관한 모든 것을 연극, 뮤지컬 등으로 담아낼 수 있는 '코미디 전문제작사'를 만들 계획입니다."

오는 8일까지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왕과 나'의 연습으로 한창 바쁜 김형곤씨의 새해설계다.

뮤지컬 공연이 두번째라는 김씨는 이번 공연에서 태국 샴왕국 프라마하왕 역할을 위해 구랍 2일 칠보사에서 삭발을 하고 석주 큰스님께 무애라는 법명을 받기도 했다.

"칠보사에서 머리도 깎고, 불교국가인 태국을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을 하게된 것도 불교와의 큰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기로 새맘 새뜻으로 새해에는 모든 일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라고 김형곤씨는 말했다.

김씨는 "이번 뮤지컬을 마치고 나서는 TV 출연도 더욱 활발히 해 질높고 신선한 코미디로 안방에 웃음을 전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올 대학졸업…"성숙된 연기 보일터"

탤런트 김민희씨



똑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욱 친근한 김민희씨에게 96년은 누구보다도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

쥐띠 불자인 김씨가 대학졸업과 함께 본격적인 연기활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월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더욱 성숙된 연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굿모닝 배뱅이'라는 연극에서 질곡의 삶을 살아온 술집마담 배뱅이 역을 훌륭히 소화해 내 아역스타의 이미지를 벗고, 성인연기자로서의 대변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지 간에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연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하는 김민희씨는 올해가 '쥐해'인 만큼 자신의 해로서 확고한 연기영역을 이뤄내겠다고 야무진 포부를 밝혔다.

〈은〉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대한불교조계종
■ 호암사 ■
(아동복지 룸비니)
주지 현종
대중 일등
경북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293
☎ (0582) 541-7863

■ 정각사 ■
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 742-1231

■ 신어사 ■
주지 상운
신도 일동
경남 김해군 대동면 주동리 994
☎ (0525) 31-6389

■ 삼보사 ■
주지 윤지원
신도회장 임석순
거사림회장 홍성걸
연화회장 차정순
서울시 은평구 역촌 1동
☎ 352-6406

문화재 수리: 단청기능 708호, 도금기능 821호
탱화·단청·불상조성
■ 한국불교미술원 ■
원장 정규진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 730-8072 (야)648-0930

■ (주)국보도자기 ■
(황금빛 도자기불상 조성업체)
일천불, 삼천불, 일만불
대표이사 권영천
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B/D 301호
공장: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장심리
☎ 02-723-4260~1 / FAX: 02-723-4260

■ 신흥사 ■
(청소년 수련원)
주지 오성일
신도 일동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 (0339) 57-2695 / 3916

■ 진관사 ■
주지 진관
대중 일동
신도 일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 359-8410

대한불교 조계종
■ 성지 비슬산 유가사 ■
주 지 김문성
대중 일동
대구 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양2동 115번지
☎ (053) 614-5115

재단법인 선학원
■ 여여선원 ■
원장 혜운
신도 일동
대구 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82-4
☎ (053) 622-0336, 629-4945 / FAX: 655-3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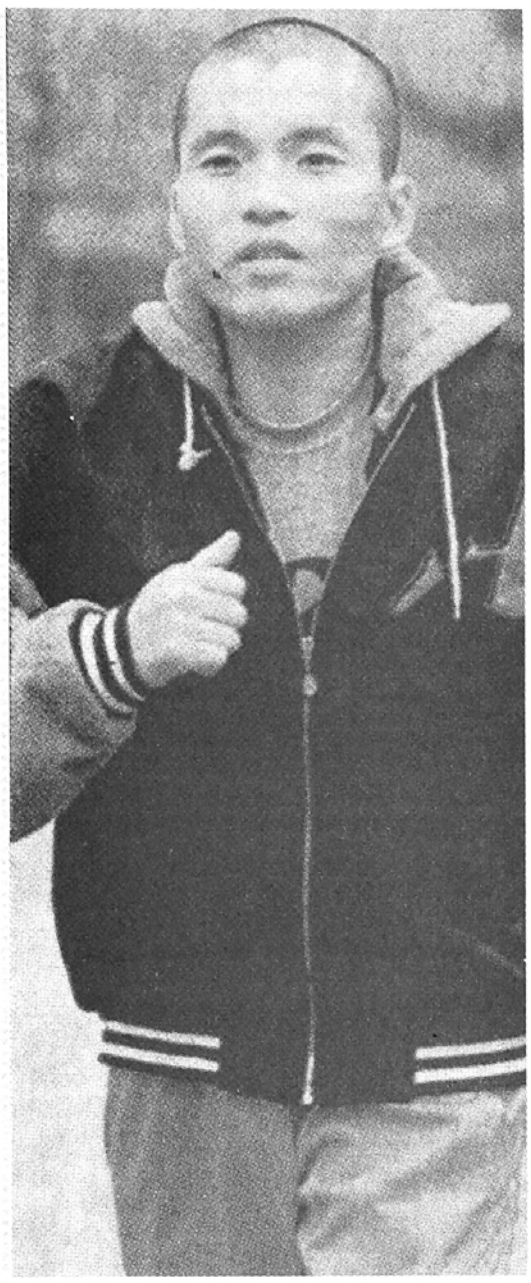
■ 서울 종로 대각사 ■
식가여래부촉법 제68세 용성진종조사 창건도량
조실경주지 불심도문
부주지 무심보광
노전 보월
선덕 월남경운
총무 각천청청
서울시 종로구 대각사
☎ 765-0972 / FAX: 742-2126

■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전문 연구원 ■
회장 김재일
회원 일동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 732-1206

■ 동명불원 ■
주지 덕천
신도 일동
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496-3
☎ 488-7027

대한불교 조계종
■ 신어산 은하사 ■
주 지 김대성
금강회·금옥회·청년회
신도 일동
경남 김해시 삼방동 662
☎ (0525) 37-0101~5

■ 청계사 ■
신도 일동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
☎ (0343) 26-2348, 26-2670



◇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서 2연패의 월계관을 쓰기위해 삭발까지 한 황영조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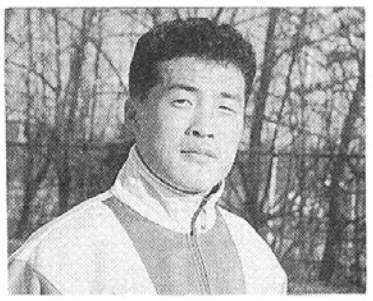
◇ 수많은 국내외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건 양궁의 히로인 이은경 선수.



◇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을 향해 불심투혼을 불사르고 있는 '한마음 불자회' 불자 선수들. 이번 올림픽에서 10위권안을 목표로하고 있는 한국선수단의 확고한 메달리스트들이다. (중앙에는 13년간 선수들을 지도해온 영산스님)



◇ 작은 거인 전병관 선수는 수행자의 자세로 올림픽에 임하겠다는 각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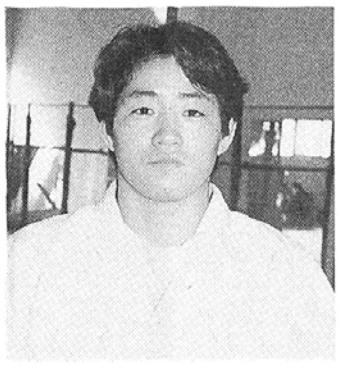


◇ 빠듯한 훈련시간 속에서도 '한마음 불자회'를 체계화시킨 전용균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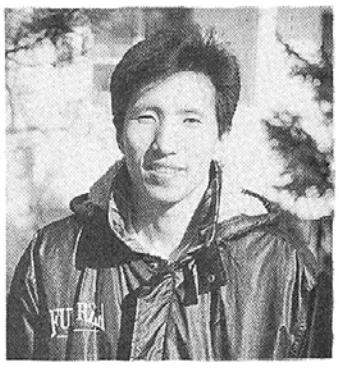
애틀랜타 향한 구슬 땀
金캐는 불자선수 "화이팅"



◇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한다는 전기형 선수.



◇ '부처님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요'라고 말하는 정성숙 선수.



◇ 가끔씩 불암사 법당에 올라가 마음을 정리한다는 이은철 선수.

참선 · 108배… '운동도 수행' …3백여명 필승 강행군

7개월 남짓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을 향한 선수들의 집념은 한겨울 동장군도 물러나게 할 만큼 태릉선수촌을 흥건히 적시고 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무대인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을 깨기위해 땀흘리는 불자 선수들이 유난히 돋보인다.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참가하는 불자선수는 대략 3백여명. 이들중 태릉선수촌 법당을 찾아 일심으로 기도정진하는 한마음불자회(회장 전용균)선수는 90여명이다.

매주 목요일 정기법회를 갖고 불심투혼을 일구고 있는 불자선수들은 강한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통쾌한 플레이를 펼치겠다는 각오로 보란듯이 한마음으로 합장한다.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는 세계최고의 마라토너인 영웅 황영조선수와 이진일 선수가 있다. 황영조선수는 '몬주익의 영웅'답게 대회 2연패의 월계관을 쓰기 위해 삭발투혼을 불사르고 있다. 초인에 가까운 황선수는 "어머니(이만자보살· 영은사 신도)가 밤새워 불공드리는 모습을 떠올리며 뛴다"는 효자불자. 13년간 선수촌불자들을 지도해온 영산스님(안산 고려선원 원장)은 "황선수가 세계 1인자로 우뚝선 것은 불굴의 투지와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불심으로 무장된 정신력으로 본다"고 한마디.

유도관에는 정성숙 전기영 배상일 남용훈 김석규 김민수 정성기 이지미 조수정 조지현 선수가 있다. 95년 히로시마아시안게임에서 일본여자유도의 히로인 에모토 유코를 절반으로 누르고 광복 50년의 승전보를 안겨준 정성숙선수는 "경기중에도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담감이 없어진다"고 말한다. 전기영선수도 "시합중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힘이 절로난다"는 독실한 불자이며, 배상일선수는 한마음불자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망주.

한국의 금발 양궁팀은 불자선수들의 터전이다. 장영술·이왕우감독을 비롯 이은경 김경욱 한승훈 임희식 박성수 정세희 김보람 오교문 이희정 김은진 손민정 윤혜영 한희정 양승숙 강경옥선수가 있다.

장영술감독은 "불교가 정신수양적 특성이 강해 정신집중이 요구되는 양궁과 통한다"고. 수많은 국내외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쁜이 이은경은 "양내음에 매료됐다"며 "참선을 하다보니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법당을 자주찾는다"는 한마음불자회 부회장선수. 대표선발전에서 세계신기록 타이를 획득한 김경욱선수는 차분함과 침착함을 갖게해주는 불교가 좋다며 "참선을 통해 호흡을 조절한다"고 한다.

레슬링에도 방대두 김영남감독을 비롯하여 심권호 박장순 김종신 최진호 김은유선수가 있다. 심권호선수는 95년 히로시마 올림픽에서 국민들이 목놓아 기다리던 첫 금메달로 포문을 연 선수이며, 바로셀로나 금메달리스트 박장순선수도 든든한 불자.

역도에는 전병관 정대진 이강석 황희동 진명성 강희숙 지윤경선수가 있다. 작은거인 전병관선수는 92년 바로셀로나에서 비인기종목인 역도로 금메달을 획득. 전선수는 "수행자 자세로 올림픽 2관왕을 이루겠다"며 몇백만톤의 바벨은 쥐었음직한 두주먹을 불끈쥔다.

사격에도 이은철 한현진 여갑순 신용자 손혜경 오미란 이상희선수가 있다. 사격 2관왕 이은철선수 어머니의 아들사랑은 '아들과의 대화'라는 글을 통해 동아일보 추천작가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선수는 "항상 어렸을때부터 어머니가 '부처님께 팔았다'며 정신의 귀의처로 인도했다"며 "가끔씩 불암사 법당에 앉아있다 온다"고. 이 선수는 전병관선수와 의형제 관계이기도 하다. 오미란선수는 히로시마에서 매일 법당을 찾아 1백8배 기도정진, 일본스님들도 혀를 내두른 알짜배기불자. 또 당돌하기까지 한 한현진선수는 한마음불자회 총무로 모든 잡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남다른 살림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하키팀은 법회에 자주찾아와 신경을 많이 써주는 유영채감독을 비롯 전용균 박신흠 김영기 유영근 정홍균 전종하 권창숙 최은경 조은정 노영미선수가 있다.

한마음불자회 회장 전용균선수는 빠듯한 운동시간 이외에도 불자회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신심깊은 선수.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유발상좌라는 전선수는 중앙승가대 스님들을 모셔와 법문을 듣고 선수들과 사찰순례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운동이 힘들 때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참선을 많이 한다"는 그는 법명이 명진.

이밖에도 농구에는 히로시마 금메달 획득후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밝힌 불심 돈독한 전주 현감독을 비롯 전주원선수, 체조에는 여홍철 조성호 이장형 이주형 정진수선수가 있으며 육상에는 김기훈 김태희, 숏트랙에는 김이경 채지훈, 볼링에 김숙영 김영심선수 가 있다.

12시간 선수촌 강훈에도 매일 법당을 찾아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불자선수들은 96년도 애틀랜타올림픽에서도 세계10위 안에 드는데 추츳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릉선수촌 불자선수들을 지도해온 영산스님은 애틀랜타올림픽에도 동행하여 축원기도를 할 것으로 보여 한국팀의 좋은 성과는 불보듯 뻔하다. 한마음불자회 선수들은 '꼭 좋은 성적으로 2천만불자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라고 입을 모으며 선수촌이 떠나갈 듯 함성을 외친다. '불심 화이팅! 한마음불자회 화이팅!'

김원우 기자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서부은평 사원연합회

회 장 서 성 운 (삼천사)
부 회 장 한 자 용 (수국사)
부 회 장 김 혜 진 (시연사)
부 회 장 이 법 성 (관음사)
사무총장 서 혜 진 (신흥사)

서울시 은평구 전관외동 산 127-1 은평사서함 77호
☎ 359-7766, 353-3004

대한불교 천태종 백양산 삼광사

주 지 변 춘 광
총 무 박 자 정
재 무 곽 수 산
노 전 변 진 달
노 전 오 문 곡
신도회장 김 찬 권

사부대중 일동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
☎ (051) 808-7111~5 / 팩스 : (051) 803-1332

대한불교 조계종 흑성산 천불암

회 주 이 기 연 (起然)
주 지 석 인 경 (印鏡)
관음회장 박 영 순 (法日心)

(매월 음력 초닷새는 큰스님 초청 법회일)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13번지
☎ (0417) 557-1388, 64-0506, 64-3223 / 팩스:(0417) 64-0506

법륜사

주 지 이 일 지

신도 일동

서울시 동작구 상도2등 363-142 장승B/D
☎ 814-9946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 조계종 호국 참회 기도 도량

주 지 차 동 광

대중 일동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 264번지
☎ 993-3161~3 / (주지실) 993-5002/ 팩스 : 993-3164

한국불교 연화 꽃꽂이 연합회

회 장 심 보 명

회원 일동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3가 51번지
☎ 925-0435

社團法人 伽山佛教文化研究院

佛教原典專門學林 三學院

理事長 李 智 冠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 우담기념관 2층
☎ 765-9602~3 / 팩스 : 765-5673

덕불산 불광사

주 지 자 현

신도 일동

인천시 서구 석남1동 덕불산
☎ (032) 583-5238

신년특집

'부끄러운 불교인' 달라지자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진 합시다"

한국불교는 건강한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쉽지않은 현실이다. 한국불교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한국불교를 이루고 있는 승가와 재가가 건강하지 못한 까닭이다.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불교인들은 깊숙히 든 골병의 환부를 째야 한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뼈아픈 자성과 참회로써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스님들이 보는 재가불자들의 고질병은 무엇이고 재가불자들이 보는 승단이 달라져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그룹인터뷰로 의견을 모았다. 가장 많이 지적된 5가지씩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주〉



산문 안에서 본 재가

- 5계조차 실천 못해
- 대 사회참여도 떨어져
- 교리공부 관심없어
- 외형 불사에 더 적극적
- 승보공경심 희박

스님들이 지적하는 재가불자들의 가장 큰 병은 **첫째** 실천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불교가 자비의 종교이고 '자리이타' '보살행' 등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고 있고 입만 열면 말하지만 이것을 실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5계는 불자라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이고 실천덕목이다. 그러나 5계조차 생활에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는 회의적이다.

둘째로 꼽는 부분이 사회의식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이라는 말과도 통하면서 비불교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당시 인도사회에서 혁명가였으며 사회개혁가였다. 불교가 인권·통일·복지·사회구제 등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기독교 등에서 세운 복지시설만을 비교해 봐도 능히 알 수 있는 일이다. 타 종교가 사회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불교는 어용·관제 소리를 들어왔다. 불교가 사회의식이 약하다는 얘기는 불자들에게 사회의식이 없다는 소리다. 불자들이 사회에 폐는 안 끼치지만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이다. 이것은 불교 근본이념에 대한 자각없이 그저 우리 가족 내 자식의 복과 안녕만을 비는 기복이 그만큼 성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셋째 불교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불교인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생애조차 모르는 불자가 많다. 자신의 신행에 주축이 될 기초교리도 모르면서 다라니를 외운다거나 참선을 제일로 아는 '겉멋만 든 불자'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 교리를 가르치는 교양대학이 늘어나면서 기초교리를 배우는 불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단순히 가르치는대로 습득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공부하는 모습이 아쉽다. 염불과 기도를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한때일지라도 경전을 읽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넷째로 지적하는 것이 외형적인 불사에만 신심을 내고 복지·인재양성·환경 등 무형의 불사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두번째로 지적한 대 사회의식이 약하다는 내용과 상통한다. 또 불사동참만이 복짓는 일이라 역설하는 일부 스님들의 강권도 작용하겠지만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상(相)내는 외형불사만을 크게 여기는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느 사찰이나 가보면 범종 겉면에는 빽빽하니 시주자들의 이름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복지단체 후원이나 자원봉사같은 일에는 동참이 인색하다.

다섯째로 지적한 것은 승보공경심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 해당하지만 좋은 스님 나쁜 스님을 구별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이미지로 승단전체를 비하한다. 승가는 부처님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모임이다. 이들을 수행자로 여법하게 완성시키는 일은 당사자의 수행의지뿐 아니라 재가자의 몫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부 신도들은 스님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거나 잘못을 방관하는 경우가 있다. 또 지나치게 떠 받든다거나 흑백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재가불자의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재가자들의 진실한 삼보 공경만이 간혹 승려로서의 위의를 흐트리고 삿된 길을 가는 스님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신 분=태응 〈불교TV 사장〉 광우 〈전국 비구니회장〉 효림 〈실천불교승가회 부의장〉 선혜 〈법륜왕사 주지〉 법인 〈화엄학림〉

산문 밖에서 본 스님

- 파계모습 노출
- 정재 바르게 써야
- 무례한 언행
- 자질 갖추는 공부를
- 문중간의 불화

재가신도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스님에게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행자다운 스님상이다. 스님이 스님다울때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은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스님들이 유념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계행을 지키는 스님'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실적으로 재가불자에게 스님들의 파계모습이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다. 대중음식점에서 막행막식하는 스님들을 만날수 있다. 스님들이 사찰을 지키기보다는 세속인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석예불을 모시는 스님들을 거룩하게 여기며 매달 지켜야 할 포살과 안거가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나타낸다.

둘째는 '정재의 바른쓰임'이다. 정재는 말그대로 깨끗한 부처님 재산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재산=스님들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시물이 그러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사찰땅이 그러하다. 일부 스님들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다는 것이 재가불자들의 지적이다. 스님들의 의식주가 수행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호화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승복은 누더기가 비단으로 바뀐지 오래다. 여기에 승용차가 지나치게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다. 재가불자들은 그동안 불교계가 보여준 난잡한 싸움도 재산이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화와 그로 인한 손실을 없애기 위해 사찰재산을 사부대중이 공동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로 스님들이 보다 더 겸손하기를 바라고 있다. 스님은 어떤 벼슬의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교만한 스님들을 쉽게 만날수 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스님이라면 대부분 쉽게 사회예절을 무시한다. 타종교인, 공무원, 일반인에게는 그러하지 않으면서 유독 재가신도에게만 거만한 스님들도 있다. 이렇다보니 불교에 관한 것은 본분에 구별없이 모두가 스님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것 같다. 세속의 일도 스님이 관여하고 신도에 관한 것도 스님이 나서며 재가신도와의 대화가 부족해 아쉬움을 준다.

넷째로 스님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스님이 되는 절차가 너무 쉽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철저한 행자의 기간을 거친 뒤 스님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수행과정에서 이판과 사판의 구분이 정확하게 지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님의 교육체계가 허술하다보니 시대감각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족으로 때로는 스님이 수행자로서의 삶보다는 세속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재가불자들이 느끼기에 스님들은 다른 종교 성직자에 비해 보시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자질향상을 위한 스님들의 교육은 곧 불교뿐 아니라 사회를 이끌수 있기에 중요하다.

다섯째로 '스님들의 화합'이다. 가장 화합을 강조해야할 승가가 종단, 문중으로 나뉘어 집단이기주의를 보일 때도 있다. 흔히 부처님 제자는 일불제자라고 한다. 불제자들에게 내가 있고 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에도 승가에 이러한 구분이 보인다. 때로는 사찰마다 신도유치를 위해 스님간의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며안타까워 한다.

말씀해 주신 분=이기영 〈한국불교 연구원 이사장〉 민병천 〈동국대 교수〉 김승석 〈변호사〉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 강행원 〈한국화가〉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대한불교조계종
군자봉 영각사
주지 현 법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산 22-3
☎ (0345) 498-7700~2 / FAX:(0345) 498-7703

청 룡 사
마야합창단
주지 김 법 운
합창단·신도 일동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32-11
☎ 612-0609

만 의 사
주지 성 직
노전 응 진
대중 일동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 (0339) 72-6005

대한불교 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종 하
신도회장 유무심화
신도 일동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49
☎ 582-8609

서울시립
목동 청소년 회관
(위탁 운영체: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관장 이 명 우
임직원 일동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8번지
☎ 646-6815~9, 646-0181~5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 재 웅
회원 일동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31-80
☎ 742-0172

인과선원
주지 정 덕
신도 일동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
☎ 993-3706, 907-3706

대한불교조계종
동리산 태안사 서울 포교당
대 명 사
주 지 허 원 명
금강선원 회장 이 돈 우
대명사 신도회장 배불성화
금강선원 참선회: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정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7-10호
☎ 553-4856~7

경 수 사
주 지 김보경
신도회장 이상원
신도 일동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목산리
☎ (0334) 72-3668

대한불교 조계종
계룡산 자광사
주 지 이 원 행
대중 일동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649
☎ (042) 822-9219 / FAX:822-9220

남북통일기원청동대불봉안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호국각원사
주지 신 법 인
총무 서 대 원
대중 일동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83
☎ (0417) 61-3545, 62-5332

마이산탑사
주지 혜 명
신도 일동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번지
☎ (0655) 33-2900, 32-0652, 32-0072

약 사 사
주 지 장 영 하
신도회장 황대덕월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32-1
☎ 662-2551, 664-0311

약사포교원 정법대학
불교지도자협회회장
장 각 성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66-4
☎ 474-0554 / FAX:472-5292

삼 보 사
주 지 대 평
신도회장 신재철
총 무 전인순
인천시 북구 임학동 31-3
☎ (032) 542-5131

건강하게 삽시다

신년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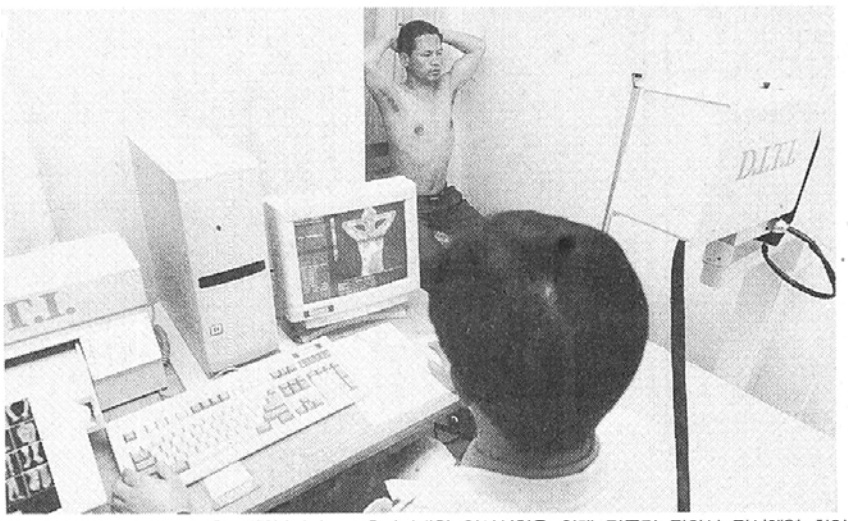
108배 관절·근육강화 디스크예방 효과크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황폐해가는 물질만능시대에 종교는 감로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행은 곧 감로수를 떠서 마시는 그릇에 비유된다하겠다. 그릇이 크거나 작으면 감로수를 마시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불자들에게 수행의 하나인 108배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치열한 생활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정신적 수행과 운동을 겸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현대불교는 108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동국대 경주 한방병원 의료팀(팀장 강윤호 원장)의 임상실험으로 알아본다. 〈편집자 주〉

동국대 한방의료팀 임상측정 결과

체열촬영 결과 덜 사용하는 근육 운동량 커

아침·저녁 108배 실천하면 '몸도 마음도 거뜬'



◇4년동안 매일 108배를 해온 박종부씨가 그 효과에대한 임상실험을 위해 컴퓨터 적외선 전신체열 촬영(D.I.T.I)에 임하고 있다.

마산에서 기계제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부(43)씨. 40여명이나 되는 종업원을 관리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일쑤다. 업무의 과중은 말할나위도 없다. 여기에 천성적으로 약한 체질은 하루를 무사히 넘긴것만해도 감사할따름이다. 4년전 박씨의 모습이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하루의 생활은 항상 웃는 얼굴로 이루어진다. 모든일에 자신감이 넘친다.

박씨를 변화시킨것은 부처님전에서 절을 하는것이다. 사업이 풀리지 않던때 평소 찾던 수효법당 자원스님이 권유했다. 하루일과를 마치고 매일 저녁 법당에서 108배를 했다. 디스크로 고생하던 박씨가 절을 한다는것은 무리였다.

첫날, 법당을 기어서 나왔다. 10분이면 끝낼수 있는 것이 20여분 걸렸다. 시일이 지나면서 다리에 힘이 붙었다.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 하루종일 화장실에서 살아야 했던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박씨의 108배 또한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 본사는 동국대 경주 한방병원과 공동으로 특별 의료팀을 구성했다. 그렇다고 특별히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박씨의 건강변화를 통해 108배의 실체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강윤호원장을 팀장으로 서운교 과장(내과 교수)이 합류했다. 먼저 강원장의 진료가 시작됐다. 문진, 진맥, 맥박, 혈압. 특이한 이상이 없다는 판명이 났다.

특별의료팀은 절하는 행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위해 컴퓨터 적외선 전신체열 촬영(D.I.T.I)을 선택했다. 경주병원이 지난해에 도입한 이 기기는 인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인체의 미세한 체온변화를 천연색 영상으로 보여주는 최첨단 의료기이다. 서과장의 주도로 진행된 체열촬영은 신체의 구조를 파악하기에 충분했다. 컴퓨터에 나타난 박씨의 전신은 대부분 붉은색으로 이루어졌다. 붉은색은 정상이고 몸의 상태가 나쁠수록 청색이 나타난다.

유난히 목뒷편을 중심으로 양쪽 어깨까지가 붉은색이었다. 이부위는 생활상에서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경추부이다. 서과장은 "절이 복부나 다리근육뿐 아니라 의외로 어깨부위에 힘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머리에 까지 영향을 끼쳐 항상 상쾌한 기분을 느낄수 있다는 진단이다.

허리부위에는 과거에 디스크를 앓았던 흔적이 나타났다. 박씨가 앓고있던 디스크가 나았다고 진단했다. 인체에서 척추는 대들보에 해당한다.

108배를 생활화하는 불자들에게는 허리 부위에 많은 운동량이 미친다는 결과는 반가운 일일것이다. 대체적으로 관절부위를 중심으로 붉은색이 나타났다. 그러나 복부부위는 청색이 완연하다. 아직 박씨의 내장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별의료팀은 "108배는 좁은공간에서 시간 구애없이 최대의 운동효과를 볼수 있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위를 움직이게 하여 인체의 조화를 이루는데 특효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생활속의 108배는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판명됐다.

경주=이준엽 기자

노폐물 배출등 인체조화로 맑은 정신 유지

임상실험 팀장 동국대 한방병원 강 윤 호 박사



108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신과 육체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정신적 효과는 수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원력에 따라 좌우된다 하겠다.

108배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신운동의 효과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효과는 관절과 근육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발, 무릎, 엉치뼈, 허리, 어깨부위의 대관절과 배꼽아래의 근육이 큰 힘을 받게 된다. 허리부위의 관절과 근육 강화는 디스크 예방은 물론 치료효과를 볼수 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 다리 근육의 강화는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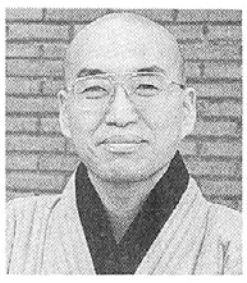
또한 허리와 복부근육의 발달은 오장육부의 기능을 증진시키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까지도 강화시킨다.

특히 절을 하는동안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이 이루어져 몸의 거친 기운이 소멸되기도 한다.

이러한 육체적 변화는 몸의 불필요한 노폐물까지 배출시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

간절한 종교적 발원이 함께한다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러나 108배의 효과는 단시일에 나타나지 않는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천했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하겠다.



법륜스님이 말하는 108배

참회표현…진실로 자기를 굽혀야

"절이란 참회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짓지 않겠다는 맹세의 행위입니다."

생활불교를 주창하며 정토포교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륜스님은 "절이란 내가 옳다는 것 까지도 놓아버리는 수행법"이라며 "강한 아상에 빠져있는 현대인에게 수행방법으로 108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짜증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자신에게 원인이 있음을 직시하고 절을 통해 이를 해소하자"고 주장한다.

스님은 "이런 수행으로 108배, 1천배, 3천배, 1만배등이 있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자칫 경쟁에 빠져 몇번 절을 했느냐는 횟수와 시간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스님은 특히 "절을 할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진실되게 자기를 굽혀 엎드릴때 마음을 조복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108배로 병마이긴 송 춘 희 씨

"불교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을 따르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부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60년대 무명가수에서 '수덕사의 여승'으로 일약 가요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송춘희씨(60세).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할 나이임에도 송씨는 20대 젊은이보다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불법과의 커다란 인연을 맺고서부터다.

"연예계 생활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습니다. 불규칙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탓에 가수생활엔 의자나 책상을 옆에 놓고 불들어가며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쯤 지나자 언제 아팠냐는듯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해외공연으로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등 세계 30여개국을 누비고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108배를 거른 적이 없다는 송씨는 호텔방이 비좁을 때에는 가구를 한쪽으로 치우고 108배를 하기도 했다며 빙그레 웃는다.

그후 신장결석, 늑막염, 불면증등 많은 병마와 싸웠지만 약보다 108배 참회기도로 모두 이겨냈다는 송씨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있을때만이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하루하루를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젠 건강도 좋고 나름대로 신심과 하심이 생겨 아무리 바빠도 즐겁고 환희심이 납니다"

일주일에 3차례와 2차례씩 군부대와 교도소를 각각 방문해 찬불가를 부르며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는 송씨는 조계종 상임포교사로, 법무부 종교교화위원으로, 한국연예인불교회 지도법사로서도 두 발이 쉴틈없이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

한명우 기자

매일 108배 하다보니

두달만에 지병 '씻은듯'

건강도 얻고 신심도 가꾸고 '일거양득'

10여년이 지나자 심한 위장병과 허리 디스크를 앓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도저히 차도가 없기에 결국 부처님 법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수덕사의 여승'을 불렀던 인연과 "아픈 것도 전생의 업이니 업장을 녹여야 한다"는 광옥스님의 말로 송씨는 108배를 시작했다.

그러나 위장병은 그렇다 치더라도 등을 돌리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108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오직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참회기도를 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플때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낙산사
주지 석마근
대중 일동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 (0396) 672-2448

청룡사
(청룡 유치원)
주지 이진우
신도 일동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1
☎ 763-4031

대한불교 조계종
보경사
주지 진 현
대중 일동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 (0562) 62-1117
FAX (0562) 62-0149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정사
성동불교 포교원
주지 법 경
육바라밀회장 성장엄각
능인불자 일동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30-8
☎ 462-1335, 1339
FAX 462-1339

법화경 전문도량
무설정사
주지 혜 경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72-545
☎ 983-0198
FAX 982-7598

조동종
청련사
주지 윤지명
대중 일동
신도 일동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62-1
☎ 379-3935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사
통도사 독일포교원
(국제불교문화원)
주지 조병오
신도 일동
베를린 Neve chris t str. 4
Tel/Fax : 0049-30-325 6440, 792 8550

대한불교조계종 제 9 교구본사 **동 화 사**
조 실 진 제
주 지 무 공
총 무 도 영
교 무 각 정
재 무 오 정
포 교 한 우
호 법 법 현
대중 일동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 (053) 982-0101~2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 선 사**
조 실 운 경
회 주 월 운
선 덕 밀 운
부주지 월 암
대중 일동
신도회 일동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전화 : (0346) 555-5974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산 보현사**
주 지 도 완
신도회장 한순옥
대중 일동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 544
전화 : (0391) 42-9437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부설(관인) 영화유치원
회 주 송 월 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산 9번지
전화 : 444-4321, 7215

성보 관리 전산화

조계종 실태조사 착수…도록 발간도

그동안 방치돼 있던 성보문화재의 현황이 세밀히 파악, 전산화 된다.

조계종 문화사회부(부장 시현스님)는 성보의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성보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올해 우선 해인사·월정사의 성보문화재 조사에 착수한다.

동국대박물관(관장 홍윤식)과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스님)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각 곳에 산재해 있는 지금까지의 성보문화재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며 사찰별 현장조사를 통해 성보문화재 전체를 파악해 놓는다는 것.

명칭 소장처 소재지 조성년대 조성자 재질 구조특징 유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카드화하고 정밀 사진촬영과 함께 조사된 자료는 분류 정리돼 전산화한다.

이번 성보실태조사 대상은 조계종에 등록된 본·말사 전체의 지정·비지정 문화재와 함께 최근 봉안된 현대작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화사회부는 조사를 마침과 동시에 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며 성보도록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성보문화재 실태조사는 8개 본사 성보전시관이 올해 건립시공됨에 따라 건립추진에 따른 봉안 유물 분류와 함께 성보관리 체계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시키고 지금까지 방치돼온 성보문화재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된다는 점에서 교계의 중요사업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구랍 2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용마빌딩 6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성타(조계종 포교원장)스님을 비롯 이종구(전 국방장관), 안동일(변호사)씨등 신도회 창립준비위 관계자 30여명이 동참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저소득 모자가정에 자비 손길

마·창 불교연 6년째 월동비 전달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안스님)는 구랍 26일 경남 건축사 회관강당에서 '제6회 저소득 모자가정 위안법회'를 개최했다.

마·창지역 각 사암 주지스님과 각급 불교 지도자, 신도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는 분다리카 합창단의 음성공양, 유성 유치원생들의 재롱잔치, 정양자 무용단의 축무등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 마·창불교연합회는 경남 도청에서 추천한 영세 모자세대 50가구에 월동 주부식비 30만원씩과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환경미화원 포상

선교종, 54명 30만원씩

대한불교 선교종(총무원장 혜종)은 구랍 28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제5회 모범 환경미화원 포상대법회를 개최했다.

미화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광역시 16개구, 군청 및 경산시 소속 54명의 환경미화원들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포상금과 〈불교성전〉 단주 등을 증정했다.

문화재 209점 복원

전남도 5개년계획 발표

전남도는 올해부터 2000년까지 5년간 7백14억3천1백만원을 들여 2백9점의 문화재를 보수·복원하는 '문화재보존중기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7백16점의 각종 문화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 61점과 도지정문화재 1백48점의 보수·정비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전문기구 설치 논의

통일법요집 편찬위 편집세미나

조계종 포교원 통일법요집편찬위(위원장 성타스님) 결성기념 불교의식 토론회가 구랍 27일 '한국불교의식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불교종단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3월 시작, 5회에 걸친 편찬준비세미나와 불교의식관련 기초자료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편집작업을 진행중인 편찬위원회의 편집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법요집은 오는 4월 시안이 작성돼 6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월운스님(동국역경원장)과 홍윤식교수(동국대박물관장), 김형우 서울시문화재감정관, 진철승실장(불교문화교육연구소) 등은 종단내의 단일한 의식집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월운스님은 단일안의 기준으로 △종단이 의식교육을 전담, 일정한 의식교육 후에 득도케 할 것과 △종단적 합의를 거칠 것 △종단내에 의식관련 전문기구 설치 △의식관련 자격부여제도의 마련 등을 제안해 눈길을 모았다.

이에앞서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식은 불교신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계층과 지역, 산문안팎에 두루 적합한 현대적인 통일법요집을 만드는 일은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봉사단 모집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부산불교 중·고등학생연합회 주관하에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키 위한 겨울철 불교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1월20일부터 22일까지 지체부자유아, 정신박약아들의 보금자리인 천마재활원, 성우원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될 이번 행사에는 1인당 1천원씩의 참가비를 받아 전액 봉사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삼귀의계·오계 수계

26일 우이동 금강사

우이동 금강사(주지 자우)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삼귀의계와 오계 수계식을 갖는다.

이날 삼귀의계는 20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오계는 20세이상 성년에게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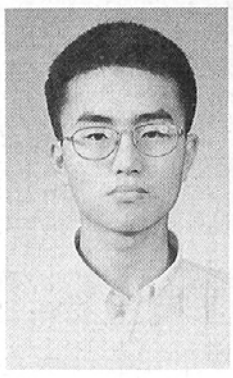
한편 경찰가족과 운전기사가족에게는 동참비를 받지 않는다.

소쩍새마을에 성금

대구 공덕원 거사림회

대구 공덕원(회주 석용산)은 구랍 21일 한국인의 집에서 '제9회 공덕원 거사림의 밤'을 개최하고 착한 어린이 장학금 전달, 세계 어린이기구 유니세프 및 소쩍새 마을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수능 인문계 전국수석 능인고 허영훈군



"수석은 전혀 뜻밖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96 대입수능시험에서 2백점 만점에 1백88.3점으로 인문계 전국수석을 차지한 허영훈군(18, 대구 능인고 3년)은 수석의 영광을 주위 사람들에게 돌리며 겸손해했다.

IQ 140으로 알려진 허군은 책벌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어디엘 가든 책을 놓지 않는 노력형. 그러나 허군이 수석이라는 영광을 차지하기까지는 독실한 신심으로 매주 2회 갓바위를 찾아 108배 관음정근과 함께 대구근교 장원사를 찾아 열심히 불공을 드린 아버지 허술이씨의 뒷바라지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장원사엔 허군의 큰아버지인 인호스님이 주지스님으로 주석하고 친할머니가 공양주 보살로 있는 곳.

신도들로부터 '조카만 축원해 주었느냐'는 질투어린 항의를 받기도 했다는 인호스님은 "영훈이는 절에 와서도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며 허군의 끈기있는 노력을 대견해 했다.

종립학교에 다니는 관계로 매주 1회 교학시간을 갖는 허군은 "때로 권태롭거나 정신집중이 안될 때 불교서적을 읽거나 절을 찾아 마음을 가다듬곤 했다"며 불자집안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틈틈이 읽은 불서 정신집중 도움"

가수 이승환을 좋아하고 컴퓨터와 피아노가 수준급인 허군의 장래희망은 경제학 교수가 되는 것.

그러나 허군은 "아직 본고사가 남아 있어 기뻐하기는 이른 것 같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더 좋은 결과로 주위 분들에게 보답하겠다"는 말을 건네고는 다시 책속으로 빠져 들었다.

〈윤〉

군불교진흥회 법인화 난항

자산기준 30억 못미쳐 문체부 불허 결정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는 지난 12월 법인화 추진에 대한 명분부족과 잔고증명 기준미달을 이유로 법인설립을 인가할 수 없다는 문체부 통고를 전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불교진흥회는 학사학위이상 학위를 취득한 타종단 승려에게도 군승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현재 조계종단 소속으로는 진흥회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10월 법인설립 자격요건 서류를 구비, 문체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군불교진흥회가 30억원 이상의 자산액 기준에 크게 부족하고, 현재상태에서도 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설립인가 불허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채랑등 원로불자가수 문체부장관상 수상

원로연예인 상록회(회장 송해)는 구랍 28일 종로 한일관에서 원로연예인 공로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로대상 시상식에서는 원로가수 채랑 김해암 차수향 김용태 윤신옥씨가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소쩍새 마을 또 '일력 악몽'

정상을 찾아가는 소쩍새 마을이 또다시 회오리 바람에 휘말릴 조짐이다.

지난해 불교계와 사회복지계에 물의를 일으켜 복역중인 정승우씨(일명 일력)가 중앙승가대에 기증한 소쩍새 마을에 대한 기부를 취하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사실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외화도피)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구랍 14일 열린 변호인 증인 채택 심리에서도 증인들이 정씨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씨측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또한 정씨가 중국 연변에 세운 일력중학교를 중국당국에 기증한 것이 법정에서 정상참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같은 소문의 진위를 둣받침하고 있다.

정씨는 중앙승가대에 소쩍새 마을을 기증할 당시 조건중 하나였던 복지법인 설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부취하소송 제기의 이유로 들고 있다.

중앙승가대에 기증된 이후 3개월여간 소쩍새 마을은 승가대 보각스님을 원장으로 맞아 기존 천막집을 헐어 조립식 주택 2개등을 건립하고, 정기검진도 받는 등 체제를 정비하고 새살림 다지기에도 열심이었다. 일순간 단절돼버린 후원금도 점차 늘어나 지난달에는 8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다시 답지하고 있다. 또한 복지법인 설립문제도 소쩍새 마을 시설 지원법인 승가원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마친 상태로 있어 이달 중순경 승인이 정식 허가될 전망이다.

이렇게 소쩍새 마을이 정상을 되찾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씨가 반환소송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불교계와 아직도 따뜻한 보살의 마음으로 온정을 보내고 있는 7만여 후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씨의 소쩍새 마을 반환소송으로 다시한번 회오리가 몰아치게 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사랑에 굶주린 장애인들과 무의탁자들이 더이상 상처를 입지 않도록 관련자들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은자 기자

목탁소리

해넘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총리실,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간의 조정으로 95년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결정이 마침내 해를 넘겼다. 구랍 20일 개각으로 주돈식 문체부장관은 정무장관으로 가고 오명 건교부장관은 실각하면서 어쨌든 고속철 경주노선 결정은 연기됐다.

그런데 같은날 건교부는 대전이남 구간의 공사기간 지연을 막기위해 김천의 상촌터널, 경주의 경주터널 등 장대터널 4개소를 96년 상반기에 착공키로 결정을 내려 공사를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현재 건교부안(도심통과노선)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차츰 설득력을 잃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대구 매일신문사와 경주발전정책연구소가, 각각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선도산내에 많은 불교유적과 각종 고분, 왕경유적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건교부가 노선변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3년 공기연장과 3조원 가량의 추가비용 지출도 문제는 된다. 그러나 건교부안대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문화재 발굴로 인해 공사기간이 더욱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천년 세월동안 숙성 되어온 역사의 숨결을 3년을 못참아 망쳐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량매연이 유적지를 훼손한다 하여 도심에 일체의 차량진입을 금지한 아테네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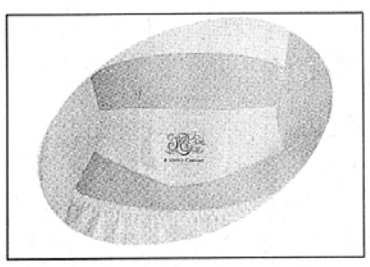
일부의 우려대로 정부는 다가올 총선을 의식해 결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여론의 희석을 위한 시간끌기식 결정은 더욱 안된다.

경주는 고도답게, 역사의 향기가 은은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보전을 위해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를 백지화시켰다'는 무형의 유산을 물려줄 시점이다.

이윤호 기자

여성 질병의 원인과 항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02) 755-9821

봉 봉원사 제35대 주지 김대운 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축

한국불교 태고종
봉 원 사

주 지 김 대 운
부주지 강 환 월
총 무 박 고 산
교 무 이 기 봉
재 무 마 일 운
사무장 이 운 봉

대중일동

한국불교 태고종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총 재 박 송 암
회 장 김 대 운
총 무 마 일 운
교 무 최 원 허
사 회 김 능 화
재 무 이 운 봉

회원일동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 1번지
☎ (02) 392-3007~8 / 팩스 : 393-9450

배낭가득 기쁨담아 '새소식'

쥐띠 불자 집배원 박종관씨

"이맘 때가 되면 우편물의 양도 많고 종류도 각양각색입니다. 게다가 추운 날씨 때문에 두배이상 힘겹지만 갖가지 소식을 한아름 배달한다고 생각하니 한결 뿌듯합니다."

새해아침 희망차고 반가운 사연들이 가방 가득 담긴 우편물을 안고 각 가정을 찾아나서는 쥐띠 집배원 박종관씨(37,관악우체국)의 발걸음은 올해가 병자년 쥐띠해라선지 그 어느 해보다 날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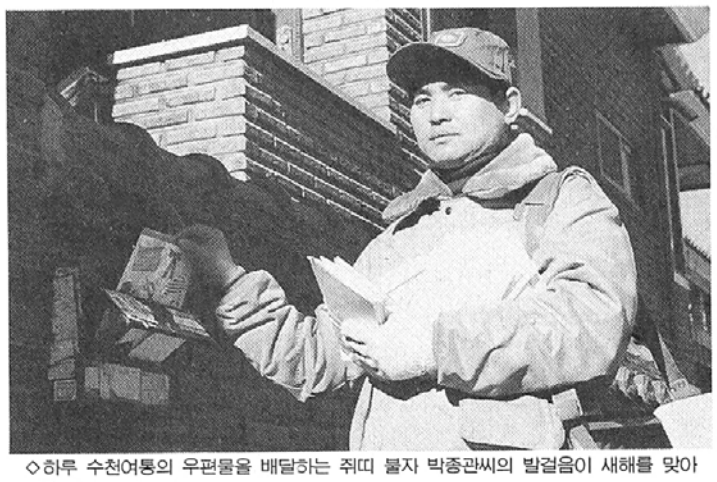
또박 또박 정성들여 쓴 연하장, 시골에서 보내오는 소포꾸러미, 군대간 아들이 어머님의 안부를 묻는 군사우편 등 박씨가 요즘들어 하루 배달하는 우편물은 약 4천여통.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지만 박씨는 항상 웃음 가득한 얼굴로 흠흠히 늘어선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우편물을 주인에게 배달한다.

하지만 하루 수천여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다보면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박씨를 골탕먹이는 우편물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소만 쓰고 번지가 없는 것, 잘못된 주소로 몇달이고 계속해서 배달되는 것 등이 그 주범. 이밖에도 번지수가 일정하지 않는 달동네, 내용증명 우편물 때문에 집배원과 주민이 '받아라' '못받는다' 며 옥신각신하는 일 등이 자주 벌어지곤 한다.

박씨가 배달하는 구역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신림동 봉천동일대. 특히 우체국내에서 독실한 불자로 정평이 나 있는 박씨는 일주일에 두번은 어김없이 관악산 일대 성주암, 성불암, 자운암 등 절에 우편물을 배달한다.

절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날은 즐겁고 신명나는 날이다. 꼬불꼬불한 산사 길을 오르노라면 그동안 힘들고 답답했던 마음이 저절로 풀리고 스님의 감로수와 같은 법담까지 들을 수 있는 날은 그야말로 행운이다. 그러니까 우편물을 전달하러 절을 찾는 것은 그에게 특별하고도 유일한 신행활동이다.



◇하루 수천여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쥐띠 불자 박종관씨의 발걸음이 새해를 맞아 더욱 가볍고 빠르다.

하루 4천여통 불심으로 친절 배달
사찰참배 법담 들으면 힘든줄 몰라

"마음같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싶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3~4시간 걸리는 관악산 산사에 배달을 하고 나면 다른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스님들을 만나면 합장인사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박씨가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에 돌아오는 시간은 오후 5시경. 그러나 이때부터 또다른 일과가 시작된다. 반송처리와 장부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배달처별로 세분화하다 보면 자정이 가까워서야 하루 일과를 마친다.

"우편업무가 기계화, 전산화 되고 있지만 우편물의 세분화 작업과 집배업무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박씨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국민들이 규격봉투를 이용해 주소와 번지까지 정확하게 표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악우체국 집배계에는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우편물이 도착돼 있다. 박종관씨는 새해에 발원한 '친절배달'을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작업대에 앉아 배달처별로 분류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북녘포교 '마음의 등불' 방송

매일 15분 3회씩… 북한주민 심성순화

새해를 맞아 북한 주민들에게도 부처님 법음이 매일 3회 울려퍼진다. 북한주민과 인민군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는 대북 포교방송이 구랍 29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대북포교방송은 '마음의 등불'이란 제목으로 매주 금·토·일요일 매일 15분씩 02:30분, 04:15분, 22:30분에, 여름철은 02:30분, 05:15분, 22:50분이다.

군승단에서 군인들의 심성순화, 인간성 회복을 통한 민족동질성 확인과 통일이 됐을 때를 대비한 남북상호간에 충격완화와 포교활동의 기반조성을 내용으로 하며 대북 종교방송에는 불교 이외에 기독교 가톨릭도 참여한다.

그늘진 곳에 1억성금
조계종 작년 한해 동안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지난 95년 한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총 1억7백33만5천원의 성금을 사회의 그늘진 곳에 전달 위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내역을 보면 △일본 고베지역 지진피해자 위로 △대구가스폭발사고 △소쩍새마을·혜명보육원 △북한 수재민 돕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해지역 피해사찰 △성우나환자 자립회 △사할린 영구귀국노인 서울 초청지원 △천애원 지원 등이다.

경북도의원 42명
정각회 결성

경북도의회 의원 42명이 1개 광역시·도 의회로는 처음으로 불교신행단체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도의회 정각회는 구랍 15일 의회 4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에 최억만 의원을, 수석부회장에 주기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의정발전 및 불심고취를 위해 결성된 경북도의회 정각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각 사찰등과 합심해 문화재 보존정책과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펴 나가기로 결정했다.

대불련 임원대상 일꾼교육

8일 영화사·25일 가평 상락향수도원서 수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하재길)는 34년차 첫 사업으로 오는 8일 일꾼교육과 25일 수행학교를 개최한다.

대불련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영화사에서 열리는 일꾼교육을 통해 각 지구·지회 임원진들에게 사회정세 및 불교계 정세를 설명한다. 또 대불련 임원 품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가평 상락향수도원에서 오는 25일부터 개최할 수행학교에서는 염불과 좌선수행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오던 예년의 수행학교와는 달리 '생활수련'에 역점을 둬 진행한다.

대불련은 생활수련 프로그램으로 서원세우기, 합장하기, 수행일기 쓰기 등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도리사 중창불사 회향
극락전·태조선원 보수

해동불교 최초의 가람인 도리사가 말끔이 정비됐다. 도리사는 최근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극락전 해체보수와 석탑 보호책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됐다.

도리사는 그동안 전통사찰 전승 보존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업비 4억2천만원을 들여 태조선원 해체보수와 62평 규모의 요사채 1동, 일주문 1각을 신축했다.

아미타불 점안
26일 소쩍새마을

원주 소쩍새 마을(원장 보각스님)은 구랍 26일 중앙승가대학장 송산스님, 대흥사 주지 천운스님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미타불 점안식과 장애인부부 2쌍의 결혼식을 거행했다.

조립식 신축건물에서 봉행된 아미타불 점안식에 이어 장애인 최도식, 이미나씨와 김양식, 이미영씨가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며 소쩍새마을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된다.

'선학원 문제' 강경국면 가속

'이사징계' 대두…입장 팽팽

선학원문제가 '이사징계'를 두고 강경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재)선학원(이사장 정일스님)은 구랍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에서 재단이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시는 단일대오를 형성해 공동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랍 18일 열린 선학원 분원장 초청간담회가 재단과 아무런 상의없이 진행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조계종에서 요구하는 정관개정에 대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조계종 산하 법인대책위(위원장 정우)는 같은 날 회의를 갖고 종단방침에 따르지 않는 선학원 이사와 소속 사찰 주지에 대한 징계를 거듭 확인했다. 대책위는 조계종 승적을 갖고 있는 선학원 사암에 조계종의 종지 봉대 등 내용의 동의서를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깨어있는 교육환경 만들자"

어린이지도자연합회 연수서 논의

제20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 주최로 구랍 30일부터 1월1일까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됐다.

'깨어있는 교육환경, 세계로 달리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는 국민대 교육학과 신중식교수의 '5·31 교육개혁 이후 국민학교 교육정책과 나아갈 방향',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의 '포교활성화 방안', 종광(전 화엄학림 학장)스님의 '불교의 신앙체계와 신행생활' 등 비중있는 강의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연극과 마당놀이의 실제 △인형극 공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실내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대불청 법인추진

14일 대의원총회 논의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오는 14일 부산 대각사에서 제3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2월로 임기가 만료된 대의원의장 선출건과 95년도 사업결산 승인, 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임원인준, 정관개정과 사단법인 설립추진등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대불청은 96년도 사업안으로 각 지구·지회의 사업보고 정례화, 각 지구 사무실 및 상근자 확보, 대불청 후원회 결성 등 조직의 위상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취득 홍보 독려, 국민제휴카드 홍보 등 임원진 수준향상과 재정마련안도 주요안건으로 채택해 놓고 있다.

선우마을 청소년수련원 건립

통도사 옥련암 97년 완공…자원봉사자 교육등 활용

지난해 11월 발족한 사단법인 불국토 산하 '선우마을'(대표 법선스님)이 의욕적인 불교청소년 사업계획을 세웠다.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님과 재가자,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등 30여명의 선우마을 회원들은 불법홍포와 아울러 청소년 상담, 성교육, 자원봉사활동 등 전반적 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사회운동으로 확대한다는 것.

이에따라 선우마을은 올 사업을 분기별로 나눠 1~3월에는 청소년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1차교육, 청소년수련관 견학, 4~6월에는 청소년 수련활동 준비와 청소년자원봉사자 교육자교육을, 7~9월은 여름 수련활동과 청소년자원봉사자 2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살리기운동(연 4회 실시)과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교육센터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3층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97년 완공예정으로 통도사 옥련암에 건립중에 있다. 또 경남북 지역의 폐교되는 학교 한 곳을 선정,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선우마을은 오는 25일 국제신문사 소강당에서 청소년문제의 다각적 점검을 위한 첫 사업으로 'TV오락프로그램이 청소년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범수(동아대 신방과)교수, 김재일(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종세(근로청소년복지회관)관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서 TV오락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노인복지시설 완공
니르바나마을, 1월말

노인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니르바나마을(회장 지현스님)이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목련의 집'과 양로원 '피안의 집'을 건립한다.

현재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에 건립중인 목련의 집과 피안의 집은 각 30평, 60평의 규모로 이달말 완공될 예정이다.

초파일 제등행렬 5월19일

조계종 봉축기획단 구성…포스터 공모

불기 2540년도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이 오는 5월19일 일요일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조계종은 구랍 19일 봉축기획단 구성을 위한 1차회의에서 이같이 잠정 결정하고 봉축기획단장에 총무부장, 부단장에 총무국장·문화국장을 선임했다.

금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는 타종교인 일반시민 모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행사기획안 및 표어·포스터를 현상공모한다.

151세대 생필품 전달
석왕사 덕유복지관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구랍 22, 23일 부천시 덕유마을 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 정 1백51세대에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부천 석왕사가 매년 실시해 온 팥죽보시 행사와 함께 실시된 이번 행사는 조계종 복지재단과 LG복지재단에서 후원한 주방용품 및 비누, 치약 등이 전달됐다.

KAL WORLD TOUR KAL 월드투어
'95. 10. 1~'96. 2. 12
인도

'94, '95년에 이어 '96년에도 성도절 기념 대법회를 부다가야에서 —

인도 불교성지 순례 —
깨달음의 시간에
KAL 월드투어가 함께합니다.

부처님의 향기가 서린 땅 -
그 위대한 성지를 순례하고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전에서
성도절 특별법회에 참가하는 감격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서울-델리 대한항공 전세기 운항
1차 '96. 1. 24~2. 3(10박 11일)
2차 '96. 2. 2~2. 12(10박 11일)

인·도·전·세·기·성·지·순·례·일·정 ₩1,420,000
• 정부인가 조건임

1/24	1	서울	1/30	7	쿠시나가르
2/2		델리	2/8		발람푸르
1/25	2	알리하바드	1/31	8	발람푸르
2/3		바라나시	2/9		럭나우
1/26	3	바라나시	2/1	9	델리
2/4		부다가야	2/10		델리
1/27	4	부다가야	2/2	10	델리
2/5		부다가야	2/11		델리
1/28	5	부다가야	2/3	11	델리
2/6		파트나	2/12		서울
1/29	6	파트나			
2/7		쿠시나가르			

• 1급 Hotel2인1실 기준
• VISA요금(인도 세금)₩31,000별도
• 신청금₩100,000-한빛은행 009-03-011006/예금주 (주)한진관광1급 Hotel2인1실 기준

50H 미래로 길을여는 — 精誠을 다하는 旅行의 名門 韓進觀光
서울 특별시 중구 봉래동132-4
예약상담 726-5750 / 726-5771~7 (임채영과장/김석준)

지점 및 영업소
• 부산 463-2115
• 경주 745-3070~3
• 대구 426-6706~8
• 광주 228-0041~2
• 대전 252-2034~5
• 제주 42-7217
• 팔레스호텔 536-0368~9
• 가든호텔 718-3140~1
• 서울르네상스호텔 566-1768
• 리츠칼튼 3453-3489

후원: BBS 불교방송 인도관광성 대한항공

TriGem

컴퓨터는 삼보, 프린터도 삼보

民選 컴퓨터



多·事·多·賞

'95년에 보내주신 소비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96년에는 더욱 노력하는 삼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비자 인기부문, A/S부문, 인재개발부문, 노사화합부문등 전 분야에서 '95년은 삼보의 해였습니다!

소비자 인기부문



한국능률협회 히트상품 | 매일경제신문 히트상품 | 내외경제신문 히트상품 | 전자신문 인기상품 | 한국전파신문 히트상품 | 코리아헤럴드 히트상품 | 신 산업경영원 뉴미디어 대상

A/S부문



공업진흥청 A/S인증 획득

인재개발부문



한국능률협회 '95 인재개발대상

노사화합부문



노동부 후원 노사화합우수상

삼보컴퓨터